

# MAXIM

SOUTH KOREA



## 2010 FIFA WORLD CUP

**SOUTH AFRICA**  
공인구 JABULANI 발재!

16강팀 맞추고 16개월  
**FREE MAXIM!**

**THE HOTTEST**  
**UFC**  
OCTAGON GIRL  
**ARIANNY  
CELESTE**

**SEXY  
WOMAN,  
SEXIER  
GADGETS**

**밤의 챔피언을  
위한 피트니스**

더 잘하기 위해  
들어야 할 그녀의  
첫 경험 이야기

미친친구 업그레이드 대작전  
**MICHAEL JACKSON**

**Just Joy**  
this moment!  
가수 JJ 화보

JUNE 2010



9 772093 422007

ISSN 2093-422X

www.maximkorea.net

ZIOZIA

ANDZ  
HOMME

Z by ZIOZIA

De Santis Dali milan



# Features

## JUNE 2010

### 22 첫...

남자든 여자든 첫 '경험' 을  
잊을 순 없는 법.

### 90 여친 개조 프로젝트

여친을 그 상태로 방치해주는 것이 사  
람이 아니라 사실을 명심하라.

### 92

## ARIANNY CELESTE

남자라면 UFC 경기장에서 그녀  
의 착한 가슴에 사정 없이 두드려  
맞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을 거  
다. 없다고? MAXIM 6월호를 보  
고 나면 생각이 달라져 있을 거  
다. 정답한다.

### 98 OH! MY INDIE!

인디밴드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인기에 연연해하지 않을 뿐이다.

### -20 King of Pop Micheal Jackson

대한민국 제1호 팝 칼럼니스트 서병후  
가 들려주는 팝의 제왕 마이클 잭슨의 빛  
과 그림자.

### 58 SPORTS

월드컵 최종 점검. 우리나라의 16강 가능  
성을 SWOT 분석했다. 뭔가 그럴싸하지?  
이제 좀 믿음이 짝박 생기나?

### 36 DRINK: 하우스 맥주

월드컵을 보면서 풍부한 향과 맛의 하우스  
맥주를 즐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 109 특집 기사 MAXIM BUSINESS JOB을 잡아라!

취업 전문가가 들려주는 자소서 작성과 면  
접 대응법. 황당 면접 성공기(와 사회 초년  
생을 위한 슈트 코디 가이드) 고맙지? 취  
직해서 첫 월급 타면 MAXIM 정기구독하  
는 거 잊지 마라.

### -26 ICON: Ridley Scott

리들의 스코티 만들고, 라셀 크로가 출연  
하면 로빈후드도 전쟁 영웅으로 변신한다.

### 26 HOW TO

충남두 같은 딱매질 링이 되고픈 남자에  
게 필요한 운동법. 여친 사면 예쁘게 찍는  
법(일단 예쁜 여자친구부터 만들자), 편의  
점 음식만으로 한 달 버티는 법, 그게 싫다  
면 간단 요리법



## ESSENTIAL GEAR.

Invented in the United States. Made in Switzerland. [www.luminox.com](http://www.luminox.com)

The Luminox Navy SEALs No. 3053: 44 mm, carbon reinforced polymer injection molded case, crown protection, unidirectional ratcheting bezel, tempered scratch resistant mineral crystal, carbon reinforced case back, signature black PU strap, 200 meters water resistant, Luminox self-powered illumination, Swiss Made. Preferred timepiece of U.S. Navy SEALs.



루미녹스 판매처

공역수출권 및 AMLA 연방 미합중국(주) (02)757-9866, A/S센터직통 (02)735-9880, [www.milimwatch.co.kr](http://www.milimwatch.co.kr)

지명권 획득/등록된 분장 지원(하이밀시계 02-772-3181 / 현대백화점 후원장 1층(하이밀시계 02-2183-1198 / 롯데백화점 대구점 1층(하이밀시계 053-660-3122)  
 특약점 (한국 세븐스투어 1층) TM시계(백화점) 02-3424-0793 / (한국 세븐스투어 7층(백화점)) 02-3424-7073 / (5성급 세븐스투어 지하1층(TM 시계백화점) 02-278-1120 / (정실 롯데백화점) 수원점 지하1층(백화점)  
 타점) 02-484-9600 / (중국 YUNCA (신타이리) 02-729-3627 / (북대륙 루시타의 5층(백화점)) 02-3006-7527 / (북대륙 루시타의 5층(백화점)) 1589-6796 / (이탈리아(루시타)) 02-771-2033 / (미국(루시타))  
 01-727-7033 / (홍콩(루시타) 중점점 (신타이리시계) 02-671-5334 / (홍콩(루시타) 남점점 (신타이리시계) 02-665-5351 / (도쿄(루시타)) 03-3430-8848 / (싱가포르(루시타)) 01-965-9882 / (미국(루시타))  
 02-452-4067 / 수면 관리(루시타) 1층(OG(공역권) 03-221-4997 / (공역) 양산(루시타) 031-907-1644 / (인천 롯데백화점) 지하1층(백화점) 032-450-3895 / (인천 송문(루시타) 가림점 2층(루시타)) 032-576-2002 / 부산 공역(루시타) 01-245-0330 / 부산 백화점(루시타) 061-749-6192

 ALWAYS  
VISIBLE



# Departments

## 6 MAXIM INSIDE

연재 본격 MAXIM 카툰 <보리의 마음>

작가: 굽시니스트

주연: 정신병에 걸린 MAXIM 편집부

## 12 CIRCUS MAXIMUS

강남 할매, 할매의 간지 나는 스트리트 패션.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지렁이 공국수, 특이한 거리 간판. 영영이 퀴즈, 친철하게 알려주는 사이즈의 문제. 담배를 입에 물게 만드는 글렌 캠페인, MAXIMO! 사랑하는 교복이 잘 어울리는 15명의 여자 연예인. MAXIM 월드컵 특별 이벤트, BEAT THIS CAPTION

## 38 RATED

<스타 2> 영접을 대비한 스티크래프트 게임 스토리 따라잡기, <심즈 3>의 두 번째 확장 팩, 월드컵보다 야구가 더 좋은 <프로야구 매너> 게임 개발 팀장과의 인터뷰, 영화에서 만나는 인간 마라도나와 그의 인생 그래프, 심장 뛰게 만드는 신작 영화, 진짜 전쟁 같은 전쟁 영화 이야기, 축구 만화 속 이쁜이들, 음악 욕심 여전한 애덤 크리스티나 아일레라, 2PM 옥택연 좋아하는 우리나라 제2 디바 홍산, 6월 이후 가볼 만한 유적 페스티벌, 죽기 싫다고 구시영거리던 유상우의 마지막 24시간

## 60 STUFF

남자라면 질러야 할 아이패드, 당신의 긴택을 기다리는 세시한 6개의 전자제품, Maserati GranCabrio, 붉은 악마의 기운을 담은 레드 바이크의 향연, 류지혜와 한희가 온몸으로 보여주는 코스프레 화보, 원전 멋진 피규어 만드는 블로거 헨즈, 구준엽 형=디제이 쿠? 이젠 얼리어답 쿨라고 불러주세요!

## -1 FASHION

2010년 선글라스 트렌드, 월드컵 시즌 여성을 잡기 위한 RED 패션, WORLD DJ FESTIVAL, 쌍쌍파티가 아닌 쌍둥이 콘서트 파티, 유·수분 조절 화장품, 소중한 당신을 위한 약실, 신입사원을 위한 슈트 TP



오케스트라  
orchestra ROCK

가게서  
잔액이  
15%할인  
@orchestra-rock

25주년기념 콘서트

이승철

6월 5일 (토) 오후 8시 / 잠실주경기장

예매\_인터파크 / 문의\_1588-4992



# MAXIM

INTERNATIONAL



CHIEF EXECUTIVE OFFICER **JOE MANGIONE**  
GENERAL COUNSEL **DAVID SIMCOX**  
INTERNATIONAL LICENSING DIRECTOR **MARIANNA GAPANOVICH**

 **MAXIM UNITED STATES DENNIS PUBLISHING INC.**  
1040 Avenue of the Americas, New York, NY 10018

EDITOR IN CHIEF **JOE LEVY**

-  **US HISPANIC** Dominican Republic
-  **UNITED KINGDOM** Ireland, Australia, New Zealand
-  **FRANCE** Belgium, Switzerland, Quebec
-  **GERMANY** Austria, Switzerland, Lichtenstein
- CENTRAL AMERICA** Guatemala, Honduras, El Salvador, Nicaragua, Costa Rica, Panama
-  **CHINA** United States, Hong Kong, Taiwan, Singapore, Malaysia, Australia, Canada
-  **CZECH** Slovakia
-  **SERBIA** Montenegro, Bosnia, Herzegovina, Fyrom
-  **TURKEY** Cyprus
-  **ITALY**
-  **PORTUGAL**
-  **BULGARIA**
-  **SLOVENIA**
-  **ROMANIA**
-  **GREECE**
-  **KOREA**
-  **ARGENTINA**
-  **BRAZIL**
-  **VENEZUELA**
-  **MEXICO**
-  **PUERTO RICO**
-  **COLUMBIA**
-  **CHILE**
-  **ECUADOR**
-  **RUSSIA**
-  **UKRAINE**
-  **THAILAND**
-  **INDIA**
-  **INDONESIA**
-  **PHILIPPINES**

# MAXIM

SOUTH KOREA

발행인/ 편집인

대표이사 이예성

전무이사 김경선

이사 양지웅

이사 원해진

이사 소상혁

## FEATURE EDITORIAL Team

EDITOR

권가영 sarah@maximkorea.net, 김민혜 ny@maximkorea.net, 김상현 psycho@maximkorea.net, 김희성 alicex@maximkorea.net  
박상우 daydreamer@maximkorea.net, 이영미 yb@maximkorea.net, 임가람 soccerholix@maximkorea.net

## FASHION EDITORIAL Team

EDITOR

고경희 koko@maximkorea.net, 권해진 JN@maximkorea.net  
세민정 Mj@maximkorea.net, 조창진 JJ@maximkorea.net

## EDITORIAL DESIGN Team

DESIGNER

장성민 ssung\_ma@maximkorea.net  
정지림 dooldo@maximkorea.net, 하승민 design@maximkorea.net

## STRATEGIC PLANNING Team

STRATEGIC PLANNING Director 소상혁 so@maximkorea.net

ADVERTISING Manager 김찬욱 14@maximkorea.net, 박해진 maxxim@maximkorea.net, 홍승외 soulmate@maximkorea.net  
STRATEGIC PLANNING Manager 진우빈 wozbr@maximkorea.net, FINANCE PLANNING Manager 최은영 jy@maximkorea.net  
CREATIVE PLANNING Manager 유승민 sm@maximkorea.net, MARKETING PLANNING Manager 김중국 jk@maximkorea.net

## 교열

신선경 kshin0211@daum.net

## WEB SERVICE

토크

IT Director 서정민 creiss@town.com

## PHOTOGRAPHY

ARC STUDIO

## FILM MAKING

Director 이요섭 Assistant 김영주

## FINANCIAL CONSULTANT

승강회계법인

Accountant 김홍락 Consultant 김희영

## 인쇄 · 인쇄분해

인쇄인 유성근 ㈜상화인쇄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37-10

## DISTRIBUTION

승주 출판유통

발행처 ㈜엠에이미디어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KOREA 빌딩 1~4층 /  
TEL. 02-323-1182 / FAX. 02-6465-0193 / 2010년 1월 2일부로, 대한민국의 (RY Media)에 독점적 상표사용권을 부여하였습니다.  
본지는 한국은행 영리위협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광고문의 070-4010-9041, 9043, 9044

구독문의 02-323-1182

www.maximkorea.net

MAXIM South Korea는 세계 3개국 편집부에서 발행되고 54개국에서 판매되는 글로벌 남성월간지 MAXIM의 공식 한국어판입니다.  
MAXIM 상표의 소유자인 미국의 알파미디어 그룹은 2009년 1월 2일부로, 대한민국의 (RY Media)에 독점적 상표사용권을 부여하였습니다.  
(RY Media는 대한민국 내에서 유일한 라이선스 계약자이며, MAXIM의 한국어판을 출판, 배포, 판매하고 웹사이트를 운영할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알파미디어 그룹과 와이미디어 외에 어떠한 제3자도 MAXIM의 트레이드마크와 로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에 실린 컬러 사진은 (RY Media)에 귀속되므로 허락없이 옮겨 쓸 수 없습니다.

copyright© 2007 | Dennis Publishing Inc.

MAXIM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ALPHA MEDIA GROUP Inc., the owner of the Dennis Publishing Inc. MAXIM is a monthly published by Dennis Publishing Inc. On Nov 21st 2009, Y Media Inc(Korea) contracted exclusive license agreement of MAXIM magazine, a world famous men's magazine. Y Media Inc is the sole MAXIM licensee in South Korea and has an exclusive license right to publish, distribute, and sell a monthly Korea-language MAXIM magazine. No party but Alpha Media Group Inc. and Y Media Inc. is permitted to use the MAXIM trademarks or the MAXIM logos in Korea

# Letters

지면에 다 실진 못했으나 열렬한 관심을 보내준 모든 분께 일확천금이 함께하길 빈다.

이유 말도 없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 보내온 독자가 있다. 현지 꽤나 사회적 지위와 명망이 있는 분이 남몰래 이렇게 억눌린 열정을 표출한 것 같아 그저 고마울 뿐이다. 선물을 보내고 싶었으나 주소도 전화번호도 없었다. 부디 이분이 독자들의 선생님이거나 직장 상사가 아니길 빈다.



## 어장관리

안녕하세요? 제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두 자릿 수) 여진이 있습니다. 워낙 여러 동생으로만 생각했는데 그녀가 먼저 대시해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귀 지 1년도 안 된 지금, 그녀가 변해갑니다. 전화는 제가 먼저 해야 하고, 명랑하던 애가 너무 시큰 통해졌어요. 제가 나이가 있어 집에서는 결혼을 하라고 난리인데, 다른 여자를 사귀어야 하나요? 그녀는 어장관리 중인 건가요? -chris lee

그렇다, 그녀는 어장관리 중이다. 사람은 남녀 불문 누구나 자신의 어장을 갖고 있다. 그러나 누가 물고기고, 누가 양어장 주인이 될지는 당시 허기에 달려 있다. 결혼을 원하는 애절한 물고기의 눈빛을 버려라. 한 달만 즐겁게 사귀다 헤어진다든 마음으로 연애해보라. 모름지기 어장 주인은 어장을 뛰쳐나갈 듯한 물고기에 가장 신경 쓰게 마련이다. 그 순간, 그녀는 당시 어장의 고기가 되어 있을 거다.

그녀는 어장관리 중인 건가요?



## 이민호를!!

나 MAXIM 보는 여자애 MAXIM에서 근무할 이민호를 볼 수 있는 그날까지 MAXIMO! 여 소수의 여성 독자도 존중하래 존중하래 존중하래!! -jeje

MAXIM에도 당신 같은 여자 에디터가 많다. 이들도 처음엔 당신같이 근무장 훈훈한 남성들을 보며 모니터를 훑아대다가 MAXIM 대다수 남성 독자를 위해 눈물을 삼키고 섹시한 차자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지금은 화려한 여자 에디터들이 여자 사진 앞에서 더 화려하기 때문에 남 보기 부끄러워 죽겠다. ㅋㅋㅋ님도 MAXIM에 나온 예쁜 차자한테서 매력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요? 혹시 아니? 본연의 정체성을 찾게 될지 모른다.

## 스타제국 침입자

안녕하세요? 안성기 선생님 만나드립니다. 제가 겪은 듯이 못할 실화를 말씀드릴게요. 4년 전 따로 쪽에서 세글 출동 다니다 시절입니다. 나쁜날 일요일 오후 "스타제국 침입 이상 출동 바람니다" 라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바로 달려가 보니 웬 남자카 카드도 없이 출입을 했다라고요. 당신 누구냐며 따졌죠. 남자는 지갑을 안 들고 와서 그랬다며, 죄송한데 자갈 모르니까 물어봤습니다. 머리로 약간 노래서 도둑같이 생각했습니다. 당신 도둑 아니라고 계속 따지던 중 경찰이 와서 같이 경찰서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스타제국 대표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알고 보니 그 남자는 바로 V.O.S의 최현준 씨 "눈을 보고 내게 말해요~" 노래 부르신 분이었어요. 미안한 마음에 진작 V.O.S라고 말하지 왜 최현준이냐고 그랬냐고 말했더니 약간 지난 표정을 지었습니다. 꼭 외장하드를 노리고 썼다가보다 MAXIM 집지 재창간 기념 첫 사연을 보내고 싶어 꼭꼭 그려봤습니다. -안성기 선생님 메니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외장하드를 위해 우리 V.O.S의 최현준 씨를 두 번 죽이다니! 웃긴 에피소드지만 최현준 씨는 그때 일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나. 이렇게 이 아기가 공개되면 최현준 씨 도 상처받을 텐데... 그런데 최현준이 박지현 원복인가. 오 큰복인가?

## 은골사를 원한다

재밌었다. 그런데 다음 달엔 은골사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사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별로 안 아했다. -ho966

미안하다. 이번 달에 살색 느낌이 많이 나도록 MAXIMO이 광장도 노력했다. 남녀 관계에 대한 기사가 이번 달부터 대폭 강화했다. 예쁜 차자를 섭외하려고 동분서주하다 결국 몸져누운 에디터, 섹스 킹 등극을 위한 피트니스를 연구하여 몸을 만들었지만 막상 쓸 데가 없어 괴로워 미치는 에디터, 퀘히 (카미수트라)를 독파하겠다고 덤뽀다가 눈빛만 이상해지고 막상 자기가 쓴 기사는 너무 세서 당당한 에디터네 온 것 같더라!, 성간 속도도 조사하다 성기 박사가 된 에디터(여자)도 있다. 불쌍하지 않나? 좋은 정신과 있으면 소개 좀 부탁한다. 다 태클로 부쳐버리게.



# WANTED!



MAXIMO로 사연을 보내라. 재미없어도 좋다. 선물을 못 받더라도 더하냐? 매일 독자 편지 코너에 선정된 사연 중 2명을 추첨하여 삼성 친화적 외장하드 Q2 포터블을 선물로 제공한다.

## 응모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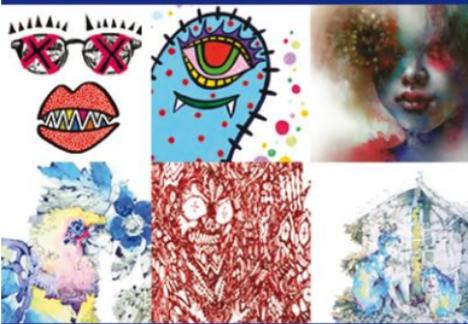
우편접수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코리아 빌딩 4층 편집부  
이메일접수 : reader@maximkorea.net

EVERYONE

IS A DESIGNER  
& ARTISTCREATIVITY  
ORIGINALITYT OUT UT OUT UT OUT UT OUT UT  
OUT UT OUT UT OUT UT OUT UT  
UT UT UT UT UT UT UT UT UT UT

DESIGN

VANN WORKS

VANN  
WORKS

난 급하게 제작되는 Fast Fashion은 거부한다.  
난 지구 상에 나와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많은 건 견딜 수 없다.  
난 환경을 사랑하는 멋진 생태계 친화형 남자다.  
난 예술을 사랑한다.  
난 예민한 내 피부를 아낄 줄 안다.

MAXIM 독자들 이야기? 그걸 좀 알고 당신들에게 어울리는 패션 디자인 브랜드 VANN WORKS를 소개한다. VANN WORKS는 신선하고 유니크한 제품을 선보이며 많은 패션 피플에게 사랑받고 있다. 타 업체와 달리 디자인, 원단, 부자재, 나염, 자봉 모두 100% 자체 제작하기 때문에 소량만 출고되고, 이를 통해 트렌드를 넘어서는 새로운 독특함으로 론칭 5개월 만에 첫 콜라보레이션 제품 완전 품절이라는 신화를 쓴 That's very HOT한 브랜드다. VANN WORKS는 'Project V' 라는 업체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일러스트 그래픽 아티스트들과 작업하고 있다. 일러스트 디자이너는 작품 공모를 통해 선발된 김용겸, 정민희, 김유라, 홍범석 총 4명이다. 이들의 작품을 티셔츠로 출시하는데, 작가들의 작품은 VANN WORKS 사이트 내 소품 포토북에서 볼 수 있다. 일러스트가 정말 멋지다! 좀더 언더바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은 이유를 직접 확인해보시라.

또 VANN WORKS의 그래픽티셔츠 라인은 100% 오가니 코튼을 사용해 환경과 피부 문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다. 오가니 코튼은 화학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촉감이 부드럽고 연약한 피부에도 잘 맞는다. 환경에도 좋은 것은 물론 5월 이후부터 출시되는 제품들은 미국 EPA, FDA, CDC에서 인증한 'QUATS' 계열의 항균 세정제인 D-125로 항균 처리까지 한다니 구입 후 세탁기부터 돌려야 할 일은 없을 거다.

비밀 것 같다고? 괜히 VANN WORKS를 소개하는 게 아니다. 1만 원대부터 시작한다(재질 너무 사정아님). 또한 매일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이니 실속 있는 당신이라면 일러스트 VANN WORKS로 뛰어가라. 여름 이후 F/W 시즌에는 후드, 재킷, 블레이저, 셔츠, 카디건, 레깅스, 니트 등의 제품도 선보인다.

문의 02-6402-8229 / [www.vann-works.com](http://www.vann-works.com)



# ORIENTAL STYLE EARTHWORM NOODLE IN COLD BEAN SOUP

오리엔탈 스타일의 차가운 콩물 지렁이국수

\*본 촬영 당시 단 한 마리의 지렁이도 희생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모든 지렁이와 지렁이 새끼들은 촬영 후 양분수 보존통에 무사히 방사되었습니다.  
MAXIMUS 동물학 연구팀입니다.

〈분초강박에는 성질이 찬 지렁이가 해열에도 도움을 준다.〉  
기속이 있다.  
지렁이를 같은 그녀의 성질머리를 식히고 싶다면 차가운 지렁이 사탕 한 사발을 권하겠오. 그녀의 얼굴이 벌써 창백해지고 있다.

오리 촬영 내내 지렁이 때가 계속 땀을 싸는 걸 볼 수 있었다. 이 분비물을 모아 평소 건조한 피부 때문에 고생하는 그녀 얼굴에 발라 주자 지금 그녀 얼굴에서 흐르는 것은 식염물이 아니라 피부 보습이 아주 잘 되어 물기가 흐르는 것이니 놀라거나 개의치 마라.

지렁이에서 약간 짠맛이 나기 때문에 콩국에 소금을 첨가하지 않는 게 좋다. 이것은 가련한 어스틴턴트들의 강함에서 나온 것이니 확실하다.

콩은 비타민 E와 단백질이 풍부하고, 어찌고자찌고... 하여튼 몸에 좋다. 하지만 이 요리에서 콩국은 지렁이 국수를 거들 뿐.

▶여러분의 무병장수가 MAX의 소망입니다.



**RECIPE** 재료: 지렁이 200~300마리, 콩국물, 채 썬 오이, 약간 삶은 달걀 반 개, 생강과 소금 약간, 얼음

① 마트에서 콩국수용 콩국물을 구입해서 냉장고에 보관한다. ② 지렁이를 물에 깨끗하게 씻는다. ③ 이제 남는다움을 과시할 차례다. 진짜 남자라면 미끄덩한 지렁이 수백 마리가 꿈틀대는 그릇에 과감하게 주먹을 넣어 손가락을 짹 펼칠 수 있어야 한다! 빠른 손놀림으로 지렁이를 등고과 예쁘게 밀어서 그릇에 소복하게 담는다. 손이 빠를수록 지렁이 신선도는 높아진다. ④ 빨강고 통통한 지렁이국수 위에 차가운 콩국과 얼음을 붓는다. ⑤ 기호에 따라 아삭하고 상큼한 식감을 더하는 오이채와 고소한 삶은 달걀 곁들여 올리고 깨를 뿌린다. 맛  
이 아주 좋네. BY 약간 반대 이영미 PHOTOGRAPH BY 비워 줄은 ARC STUDIO ASSISTANTS 김 있는 김연희, 박성준, 김희정

# 16강 국가를 맞추면, 16개월 정기구독을!

십육(十六)이 머릿속에 자꾸 맴도는 월드컵 국가의 신민이라면, 응모하라.

1은 유일하다는 뜻이 좋고, 2는 둘이어서 좋고, 3은 해결이 말한 반함이라  
좋고, 4는 선배(先)자와 발음이 같아 좋고, 5는 독수리 오형제가 생각나  
좋고, 7은 말할 것도 없고, 12는 사랑에서 행운의 숫자고...

그럼 대체 16이라는 숫자는 어느 때에 좋은 것인가?

바로 지금. 16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질 시간이다.



x16

16강에 진출할 16개 국가를 맞추는 능력자에게  
**MAXIM 16개월 정기구독권을** 거침없이 쏘겠다.

#### 응모방법

(121-841)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46-38번지 MAXIM 코리아이 빌딩 3층 기획전략과 or 14k@maximkorea.net으로 응모하라. 마감은 6월 10일까지다. 이름, 주소, 연락처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

BACK TO SCHOOL

# MAXIM 교복 어워드

교복이 잘 어울리는 15인의 여자 연예인을 선정했다. 나 학교로 돌아갈래!!!

BY 김희성 ILLUSTRATION 장성만



### <신데렐라 연나>

#### 문근영

(가을동화)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그녀에게 발육은 오지 않았다. 은조야, 은조야.



### 소녀시대 윤아

긴 생머리로 발산하는 청순함에다 평따뜻한 스커트를 살짝 걷어 올려주는 센스까지 발휘했다. 너 뭘 좀 아는구나.



### 김연아

은반 위의 여신은 광바닥 위에서든 여신이다. 소리 열과 과일도 다저은 명예의 소유자는 교복도 여신 급으로 소화해냈다.



### <꽃보다 남자> 구혜선

다소 후덜덜한 실체 나이에도 불구하고 수은 주사리도 맞은 듯 고당으로 완벽 빙의



### 원더걸스 소희

바위에 척 달라붙는 슈즈에도 밧을 발하는 우월한 저 비주얼 보라, 자네 우리 학교로 전학을 생각 없다.



### <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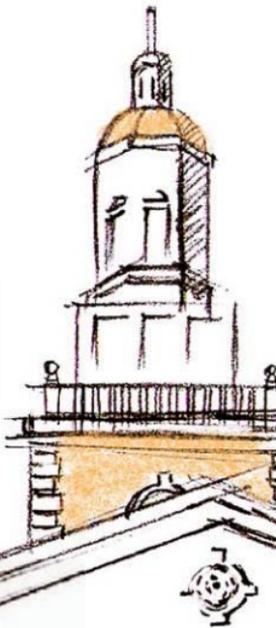
#### 티아라 지연, 박은빈

교복을 이토록 착하게 소화해워 시, 사랑합니다.



### 2위 소녀시대 서현

덕치고 서현 찬양 유미의 꿀벅지를 능가할 우유백지를 제대로 보여준다.



### 이연희

교복 바깥으로 살짝 나온 레이스 속채마가 여간 사랑스러운게 애. 바다 재네. 잠시 학생지도실로 따라오게

### 카라 니콜

짧은 차마는 필수. '저야 무것도 몰라도' 라고 쓰여 있는 손진환 소녀의 표정은 응선

### 소녀시대 유리

네 소원이 무어나고 않으면 나는 사슴지 않고 "그녀 블라우스의 프릴 장식이 되는 것"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 1위 카라 김지영

그래도 교복은 역시 진짜 고딩이 입어줘야 재밌이대 MAMA에서 무료 눈술 과외 해줄 테니 전화주세요. 재발!

### <아이엠샘> 박민영

영양이를 살짝 덮는 자켓은 차마가 짧아 보이는 착시현상을 일으킨다.

### 3위 (파랑주의보) 송혜교

자마히 청순하다. 하지만 해고 누님의 클레머 러스원은 교복도 감추지 못했다.

### 시와지리 에리카

어쩐지 남다르다 했더니 그라비아 아이돌 출신이였다. 브라보!



# 사이즈의 문제

구경을 오래내고, 날아라, 그리고 기사를 읽고 다시 날아보라, 세, 세우진 맵 BY 김민재

화장실, 목욕탕에서 다른 사람의 축 늘어진 그것을 보고 괜히 기죽었던 사람? 대부분 남자는 자신의 성기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신의 성기가 더 작다고 생각한다. 또 한 연구에서는 평소엔 작은 성기가 발기 시 팽창하는 비율이 큰 성기에 비해 높고, 쪼그라든 성기는 온도, 컨디션 등에 따라 사이즈가 달라지기 때문에 발기 전 성기 사이즈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아, 다행이다. 미국에서 실시한 실험에서 평소 7cm인 성기는 120%나 팽창했으나 11cm인 성기는 50%만 팽창했다. 단 평소의 성기를 꼭 잡아당겨 측정할 길이는 발기의 성기 길이와 같으니 똑똑 길게 당겨지는 성기는 부러워해도 된다.

한국비뇨기과학회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 남성 평균 성기 사이즈는 길이 12.7cm, 둘레 11.5cm다. 그리고 저 구멍은 한국 남성의 평균 성기 둘레를 실측 사이즈 그대로 재한 것이다. 어떤가? 여백이 허망한 당신, 너무 걱정하지 마라. 약 10년 전 한정으로 3명이 서울에 거주하는 20~38세 남성 279명을 대상으로 같은 조사를 실시했을 때는 한국 남성 평균 성기 사이즈는 길이 12.66cm, 둘레 11.28cm였다. 10년 사이 각각 0.04cm, 0.22cm 정도 커진 거다. 응, 과연 당신의 몇 대 후손이 이 통크리미를 일차게 채울 수 있을까?

조상은 갈자만 우리는 다르게 진화했다. 고릴라는 3cm, 오랑우탄은 4cm, 침팬지는 8cm, 모두 발기 시 사이즈다. 풀 하나만 더 알고 비웃자. 뽀족뒤리라는 동물은 척추동물 중 가장 작은 성기를 가졌다. 고작 5mm. 아예 성기가 없는 동물도 많다. 새는 대부분 성기가 아예 없다. 타조와 거위 등 약 3%의 새만 성기가 달려 있다. 원래 새는 성기가 있었지만 진화 과정에서 퇴화했다고 한다. 참고로 동물 중 가장 큰 성기를 가진 것은 흰긴수염고래다. 길이는 무려 3m에 지름이 30cm 정도. 그래도 애내는 30초 만에 교미를 끝낸다. 커봤자 소용없다.

당신의  
얼굴

코깅이 놈 부러워하지 마라. 성의학의 대가 최형기 원장은 "한국 남성은 특히 성기가 잘 늘어났다"며, 시들어 있을 때 사이즈는 차이가 날 수 있으나 발기 사이즈는 큰 차이가 없다고 대답했다. 또 한국 남성은 페니스 구석구석 혈관이 촘촘해 더 단단하게 발기한다. 킨케이 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인의 평균 사이즈는 12.7~16.51cm 길이에 둘레 10.16~12.7cm다. 일본에서 성기를 자랑할 땐 '오친찬'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뜻은 귀한 딸랑이. 당신도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당신의 성기를 '오친찬'이라고 나직이 불러줘라.

이렇게까지 보여줬는데도 사이즈 문제로 고민할까 봐 여자들의 입지도 더 조사해봤다. 미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여성 2%만이 "남자의 성기에 매력을 느낀다"고 대답했다. 39%의 여성은 "남성의 성기보다 더 엉덩이가 더 매력적"이라고 대답했으나 이제 비누는 여자 앞에서만 쫓자. 또 여자의 질은 개구부에서 5cm 정도에서 자국을 느끼기 때문에 발기된 성기가 5cm 이상만 되면 성생활에 문제가 없다. 하지만 기회는 적겠지. 킨케이 연구소에 들어오는 질문 내용도 남자의 성기가 너무 작다는 불평보다 남자의 성기가 너무 커서 힘들다는 불평이 더 많다.





# 간판이 기가 막혀

무심코 지나치기엔 너무 인상적인 간판을 모았다. 아, 참 힘들지?

BY 양기원, 김희성



룸안이야의 정취가 느껴지나?



점밤 냄새 그리워하는 예비역이여, 이곳으로.



1.5층에서 술 취하면 3D 영상이 펼쳐진다.



Open PM 02:00 - Close AM 08:00

아침 8시까지 닫히고 방구석에서 노래나 부르려는 말인가.



가게 이름은 만드시 스티카토로 읽는다.

지하



ㅋㅋㅋ 세일이 즐겁나? 그러다 평생 세일만 한다.



글자가 왼쪽에서 시작하는 걸 보니 사어나 주인이 일본인인가!



생황 속에서 육을 칭찬하는 새끼인가? 누구지는 팔라도 조낸 부지런한 새끼네.

생황할작공권 전서 스티카토에

월가담 치킨에선 피카소 단체를 환영한다고? 대체 무슨 말이야!



48 Hours 전신 여자들이 복질거리겠군, 흥흥흥



술 안 마시는 새끼를, 다 공구리 쳐버려!

## QUIZ FOR ASS

엉덩이를 찾아라!!  
우리 몸은 엉덩이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아는가? 자, 이 중 진짜 엉덩이를 토하는 엉덩이를 감별해보자.



정답: 모두 엉덩이 아님. 미안.  
(상처가 모두 남재)  
1. 케트링이여 가슴 사이 골  
2. 다리위 다리 사이  
3. 과음으로 축적된 뱃살  
4. 발등  
5. 반으로 절은 팔

# 흡연 조장하는 금연 캠페인

불수록 땀기게 만들더니... 흡연자를 모두 죽여 금연 천국을 만들 속셈인가!

**BEST OF WORST**



지난 4월, 호주 시드니에서 니코틴 황홀경이 펼쳐졌다. 행사 취지는 하루 담배 20개비를 태우는 흡연자가 30년간 피울 2만9천 개비의 담배를 보여주며 "자네 그러다 곧 죽네"라고 경고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타르와 니코틴에 이미 충성을 맹세한 노예들은 수십만 장초가 깔린 바닥에 얼드려 마음껏 담배를 짚어 피우며 담배의 기적을 노래하고 싶었을 거다.



담배 회사 필립 모리스 앞에서 한 단체가 담배 광고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당신 눈에 불뿔이 필터까지 도달하는 데 일주일은 걸릴 듯한 초대형 담배가, 수줍게 광대를 뽐내며 '어여 외서 벨라' 며 당신을 유혹하는 걸로 보일 거다.



무하마드 알리의 딸이자 복서인 라일라 알리가 금연 캠페인 행사에서 담배 인건을 때는 퍼포먼스를 보였다. 우리 불쌍한 친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 아랫도리는 누렇게 변했다(아마 겁에 질려 지렸겠지). 이제 내가 평생 지켜주겠!

**QUIT OR KEEP?**

**금연 광고**

우리 모두가 담배를 끊으면 이 재미있는 광고들도 사라지겠지? 흑흑.



편안해 보인다. 암이 폼보다.



제대로 넣으면 상 주는 거지?



건강해질 것 같잖아?



언가로 여자를 사로잡는다고?



공중부양 기능이 있는 제품인가?



도넛 따위로 감치지 말자. 우리 더 배워야 한다.



오, 내 시어도 좀 꺾어주게



“MAXIM 에디터는 기사 작성만큼 많은 시간을 적절한 사진 찾는 데 투자한다. 그리고 그 이상의 시간을 독자의 웃음보를 자극할 캡션을 다는 데 사용한다.

독자의 찰나의 미소가 MAXIM의 기쁨이다.”

**저 오묘한 자세의 축구 선수들은 과연 어떤 말을 받았을까?**

담당 에디터가 뉴스를 활성화해 나온 결과물은 위와 같다.

이제 당신이 '행' 타지는 캡션으로 편집부 전원을 머쓱하게 만들 차례다.

망설이지 마라. MAXIM은 도전 정신이 아름다운 독자의 캡션을 월드컵 16강만큼 기다리고 있겠다.



1. 저 등장인물 중 아무나 입을 열어 웃기면 장영
2. 응모는 (121-841)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46-36번지 MAXIM KOREA 빌딩 4층 편집부나 caption@maximkorea.net으로 하라. 마감은 6월 10일이다.
3. 담당 에디터의 입꼬리가 올라가는 캡션을 달아주는 독자에게 **9만 9천원 상상의 타거스 에코스마트 백팩** 또는 **MAXIM 1년 정기구독권**을 선물하겠다.
4. Winner는 홈페이지에 공고하겠다. www.maximkorea.net



# MAXIM

## 2010 남아공 월드컵 16강 진출기원EVENT



“ 나를 자블라니? ”

### 2010 남아공 월드컵 공인구 자블라니를 MAXIM 6월호 구매 고객에게 쏜다!

#### 응모 방법

1. 위 그림에서 자블라니 공인구를 머금고 있는 약마 모양의 MAXIM 로고를 성세하게 잘 오린다. 어릴 때 설탕을 녹여 만든 달고나를 쪄개던 기억이 떠오르나? 맥박조자 부당하게 느껴지던 그 시절의 성세한 솜씨를 발휘하여 그림이 잘리거나 점선 안쪽의 그림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게 공을 오린다.
2. 완벽한 커트인가? 오래된 로고를 2010년 6월 10일까지 우편을 이용해서 MAXIM으로 보내라. 기한을 넘겨서 도착한 응모는 안타깝게도 탈락이다. 응모 시 주소와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3. 자 이젠 대한민국이 16강에 진출하기를 간절히 빌면 된다. 16강 진출 시 응모한 독자에게 월드컵 공인구 자블라니-B2B GLIDER를 준다!



※ MAXIM이 확보한 자블라니 수량은 총 400개이며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사무실이 운동 축구공으로 딱 차 있으니 빨리 좀 가져가라.

#### MAXIM KOREA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KOREA  
빌딩 3층 기획전략실 프로모션 담당자 앞  
문의 event@maximkorea.net

LOVE

# 첫...

첫 경험을 망했다고 좌  
절하지 말자. 워든 처  
음은 어려운 법. 그녀  
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를 새겨두고 다음 기회  
에 역전 장외 만루 홈  
런포 세리래!

BY 이영미  
PHOTOGRAPHS BY RONY SHRAM



"과일 사세요. 맛 없으면 돈 안 받아요."

## 첫 손잡기

"나는 색스보다 손잡는 게 더 떨린다. 스किन의 시작은 손부터니까. 사 권 지 얼마 안 돼서 손잡기 전에 나란히 걸을 때마다 살짝 손이 스치잖아. 예가 얼른 손 잡아주기를 기다리게 되고, 가끔은 기다리다 지치지만 하여튼 그 순간이 가장 떨리고 좋아. 손잡기 직전 소시 칠 때" K영24세, 취업 준비생

## GIRLS SAY

축감, 특히 손의 주도에 주의하라. 아무리 한창 좋을 때라도 죽은 생선 같은 손이 뽁뽁충한 아기 양덩이처럼 느껴질 리 없다. 그녀 손에 남을 당신의 손 채우며 신경 쓰자. 손잡고 난 뒤 좋은 향이 묻어오면 데이트가 끝난 뒤에도 그녀는 당신을 의식하게 된다.

## 첫 키스

"그날도 미친 듯이 클럽의 리듬에 몸을 맡기고 있었다. 남자 보기를 둘 같이 하던 때라 남자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하지만 반짝이는 조명 속에서도 유난히 빛나는 사람이 있었다. 후덜덜한 외모에 첫눈에 반했다. 하지만 차라 먼저 다가가지 못했다. 그녀 뒤에서 누군가가 내 허리에 가볍게 손을 대는 것 같아 돌아보니 정말 신기하게도 그가 있었다. 차가운 아이스티를 마시며 가벼운 대화를 나눈 후 같이 춤을 추다 그가 내로 키스를 했다. 클럽 스테이지 한가운데서 말이다. 그렇게 시끄러운 음악은 음수가 처리되고 콩콩거리는 비트만 느껴졌다." J영21세, 대학생

"그와 나란히 누웠다. 그가 한참 망설이더니 내 볼에 뽁뽁을 하고 몸을 옆으로 굴리면서 도망갔다. 그를 다시 내 쪽으로 끌어당겨 키스했다. 그리고 그날 다 해지었다. 난 바쁜 사람이니까." L영27세, 회사원

## GIRLS SAY

요즘은 초등학교도 키스를 한다는데 무슨 어드바이스가 필요한가? 그냥 양치질 잘 하고 다녀라.

## 첫 아종

"대학교 2학년 때 집에서 친구들과 인터넷 아종을 보기로 했다. 근데 검색이 잘 안 되고 자꾸 뭐 인증하라고 했다. (엄마가 클린-이이라는 걸 가입해놨대군.) 결국 뿔 보긴 뿔다. 내용은 기억 안 나지만 제목은 지금도 생생하다. (유진이의 이중생활.)" J영28세, 광고 AE

## GIRLS SAY

여지도 본다. 둘러본다. 취향에 맞게 오기도 한다. 단체 관람도 하지만 대체로 혼자 본다. 하지만 우연 당신보다 더 잘 정리하고 잘 숨긴다.

## 첫 잡

"오래 서다 보면 색스도 안 하고 그냥 잠만 자는 경우도 많잖아. 처음엔 좋았다. 같이 누워서 이야기도 도란도란 나누면서 더 친밀해졌다. 그런데 처음엔 그렇다. 반복되면 짜증난다. 심지어 예가 먼저 잠들까 봐 조바심도 나오니까. 그러다 나중에는 내가 더 낫다. 처음엔 좋다. 처음엔." S영31세, 학원 강사

## GIRLS SAY

모든 여자가 S영처럼 먼저 덮쳐주진 않고, 한다 해도 한두 번뿐이다. 여자는 남자가 늘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해주길 바란다. 색스 대신 스किन과 대화로 당신의 관심사는 현재 오직 그녀라는 것을 표현하라. (이게 완벽해 해결책은 아니다. 단지 그녀가 덜 두려워하게 만드는 방법일 뿐.) 그리고 "피곤하니 다음에" 란 말 이해 못 할 여자 없다. 솔직히 말하라. 음, 근데 이것도 완벽해 건 아니다. 몇 번 반복되면 동

네방네까지 아니어도 그녀 친구 사이에 당신이 고자라는 소문이 난다. "내가 고자, 고자, 고자라니!" 그러나 일단 숙련과 댕을 맞췄군. 그 다음 합공 때 최고의 컨디션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 고자 꼴을 면한다.

## 첫 색스

"아프다는 느낌엔 없었다. 그 뒤로도 몇 번은 아프고 정신도 없었다. 좋아하는 애랑 처음 지던 날은 정말 좋았다. 떨리고 좋았다. 특히 삼입 직전엔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내 생애 진정한 첫 색스는 바로 그때다." P영23세, 유학생

"대학교 1학년 때 첫사랑과 했다. 둘 다 처음이라 입구 찾아 한참 해맸다. 두 번 시도했는데 모두 실패했다. 도대체 어떻게 아프구나 한데 왜 사람들이 여기에 환상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세 번째에 드디어 감이 왔다. 바로 이 미팅구나 내 뒤로 시도 때도 없이 했다." L영26세, 주부

"별로 떠올리고 싶진 않다. 그래도 상대방이 날 소중하게 대해주는 따듯한 느낌만큼은 좋았다. 나는 그 다음 날이 더 기억에 남는다. 웬지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 C영26세, 치과 의사

## GIRLS SAY

첫 경험은 부담과 걱정, 공포와 고통 등의 감정보다 흥분과 기대감, 신뢰가 클 때 가능하다. 여자의 경우 공포와 걱정이 더 크기 때문에 첫할 때는 것이 더딜 수 있다. 피임 준비, 애정 공세 등에서 믿음직하게 굴어서 그녀의 공포와 걱정, 고통을 이해하겠다는 자세로 접근하라. 더 궁극하면 연애, 아빠한테 물어봐라.

## 처음인 척 한 첫 색스

"대학교 2학년 때 사군 애랑 처음 지는데 자기랑 첫 색스를 한 게 아니면 상상할 것 같았다. 그래서 생각이 끝날 즈음 했는데 피가 조금 났다. 그 이가 기뻐했던 기억이 난다." K영29세, 외박비 운영

## GIRLS SAY

처, 처음처럼~ 처, 처음처럼~ 처, 처음처럼, 처럼, 처럼!

## 첫 카섹스

"당시 남자친구는 차가 없었다. 어느 날 예가 얼마 차를 끌고 나왔다. 그래서 걀래 얼마 차 안에서 했다. 굳이 산에서 했는데 차가가는 사람도 없어서 별로 스릴도 없었다. 거기다 왜, 하고 나면 특유의 냄새가 남잖아? 한겨울이었는데 그 냄새 배려고 차 온 열아놓고 땀땀 달려 내려왔다. 마음이 불편했다." M영28세, 교직원

"본 건 있어서 일단 한강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남자친구가 조수석으로 다가왔다. 한창 집중하고 있는데 이상한 시선이 느껴졌다. 앞을 보니 어떤 형인이 차 아래에 몸을 숨기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남자친구가 헤드라이트를 켜니 그 사람이 쏠쏠했다. 우리도 급히 거길 빠져나왔다. 개인적으로 한강은 비추." P영27세, 연기자 지방생

## GIRLS SAY

처음, 시트, 소풍(티슈 등)의 적절한 배치, 좋은 향기와 음악, 당신 키움의 체력과 유연성 등 수많은 요소가 작용하는 게 바로 카섹스다. 하지만 성공의 열쇠는 바로 장소에 있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한적한 곳은 오히려 여자친구에게 불안감을 심어줄 수 있다. 이와 같은 장소로는... 흠, 사랑 많이 몰릴 테니 내 가르쳐준다.



“요즘 과일 값이 금 값이예요.”

#### 첫 자동차 속 서비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여름 오후, 동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차 안에서 내가 그에게 일어로 해했다. 차 유리창에 김이 가득 서렸다. 조금 거부하던 그가 내 머리를 지그시 눌렀고 입 안 가득 사정했다. 나는 문을 열고 머리카락을 적시며 주차장 바닥에 그걸 뱉었다. 그가 입을 닦아주며 미안해했다. 정말 사랑했고 거부감은 없었다. 가끔 근처를 지날 때마다 그날 생각이 난다.”

1983년, 프랑스

“그와 스키장에 다녀오는 길이었다. 운전 중에 즐리다며 연방 짜증을 내던 남자친구를 위해 “해줄까?” 라고 물으며 아래로 내려갔다. 그는 미다하지 않았다. 고속도로를 달리면서도 멈추라고 하지 않았다. 위험할까 봐 일단 내가 멈췄고 서울에 도착했다. 그의 집은 합정동이었었는데 우리 둘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을 지나 한강 난지지구를 거쳐 이름 모를 동네까지 가서야 겨우 돌아올 수 있었다.”

1982년, 대학생

#### GIRLS SAY

안전 제일! 목숨 걸고 하지 마라. 후분미끈한 예로영화가 여친 목구멍 찌르는 호러영화로 바뀌는 건 한순간이다.

#### 첫 하루 열 번

“남친이랑 200일 기념으로 서해안 여행을 갔다. 돈 없어서 버스 타고 가서 리먼 풀이 먹었지만 행복했다. 다만 열기만은 왕성했던 우리는 도착하지마자 하고, 밥 먹다

기도 하고, 바다에서 놀다가 돌아와서 모래 묻은 채로 하고, 샤워하면서 하고, TV 보다가 하고. 나이가 먹을수록 하루에 열 번 할 수 있는 남자가 자주 없어지는 것 같아 슬프다.”

K영27세, 자영업

#### GIRLS SAY

자랑하나?

#### 첫 본디지

“내 손을 스타킹으로 칭대 기둥에 묶은 채 한 적이 있다. 그런데 왜 영화에서 보면 그거 절대 안 풀어지지 않나? 피가 겨우 통할 정도로만 묶었는데도 자꾸 풀리더라. 그래서 하다가 계속 멈추고 다시 묶기도 위해서 그냥 묶인 시늉만 했다. 나는 별 재미를 못 느꼈는데 남자만 신났었다. 또 남 좋은 일만 했어!”

K영29세, 영화 홍보

#### GIRLS SAY

처음이라 어색하고, 어색하니까 더 어렵고, 어려우니까 더 버둥대는 게 당연지사. 하지만 소름과 플레이를 잘 활용하면 그보다 재미있는 놀이는 지구 상에 없다. 처음부터 너무 능숙하게 하려고 애쓰지 말고 천천히 가라. 처음부터 묶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되면 정상 위에서 그녀의 두 손목을 한 손으로 강하게 누르거나 양손으로 양팔을 단단히 붙잡는 것부터 해보라. 그녀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미리 “오늘은 내가 묶인 모습이 보고 싶다”는 부드러운 선전 포고를 함께 보드러운 스키프로 시켜해보자. 초장부터 징 박힌 가죽벨트나 수갑 나오면 좀 그렇잖아?



### 첫 69

"누군지 몰라도 두 사람이 동시에 서로에게 서비스하는 걸 발명한 사람은 정말 천재라고 생각했다. 서로 얼굴 안 봐도 되고 그래서 해봤는데 숨 막혀 죽는 줄 알았다. 예는 신나서 핼핼질을 해대는데 너무 깊게 들어오니까 목구멍이 아팠다. 그게 신경 쓰여서 애가 워하는지 느껴지지도 않았다. 나중에는 요령이 생기니까 괜찮더라. 69는 첫 시도보다 갈수록 좋아지는 것 같다."

SEX7세 유지선

### GIRLS SAY

어쩜 누가 이렇게 이름을 잘 지었을까

### 첫 낙타털

"남자친구와 호기심에 모델 자판기에 따는 인조 낙타털을 사용해봤다. 빠질까 봐 그 위에 콘돔을 씌웠는데 느낌이 없어서 콘돔을 빼고 사용했다. 한참 하고 있는데 이상했다. 얼른 빼서 봤는데 인조 낙타털이 없었대! 응급실 갈 생각하며 울먹하고 있으니 남자친구가 미안+인망해하며 손가락을 넣어 그걸 찾기 시작했다. 그러기를 5분 정도? '뿅' 소리와 함께 인조 낙타털이 빠졌다. 안도의 웃음이 나왔다. 뒤부터 낙타탄 봐도 식겁한다."

이끼 그 K강29세, 영화 홍보

### GIRLS SAY

남자친구가 너무 가느다란 건 아니고?

# 처음처럼 vs. 처음처럼

드디어 자유를 가릴 때가 왔다.



VS.



IMAGES: LEFT/SHO; RIGHT/SHO, SOJU/SHO/SHO

### 1 ROUND 증독성

티아라 - 우릴 기쁘게 하고, 느끼게 하고, 미치게 하고, 자꾸 원하게 한다.

소주 - 역시 우릴 기쁘게 하고, 느끼게 하고, 미치게 하고, 자꾸 원하게 한다.

결과: 비교 불가! 무승부!

### 2 ROUND 공격성

티아라 - 노골적으로 엉덩이를 흔드는 안무와 묘한 가사로 TV를 보던 부모님이 채널을 돌리게 만드는 초능력.

소주 - 연료이 끊어지는 색시함의 대명사 이효리와 유이의 육탄공격 작렬! 구관이 명관이요, 박지는 역시 꿀벅지라.

결과: 소주 승!

### 3 ROUND 지속성

티아라 - MAXM 화보에 한 번 등장하면

소주 - 술매와 더불어 흡물스런 유방이 꼭 연예계를 평정할 텐데. (연락 주세요)

결과: 소주 승!



'처음처럼' 은 역시 소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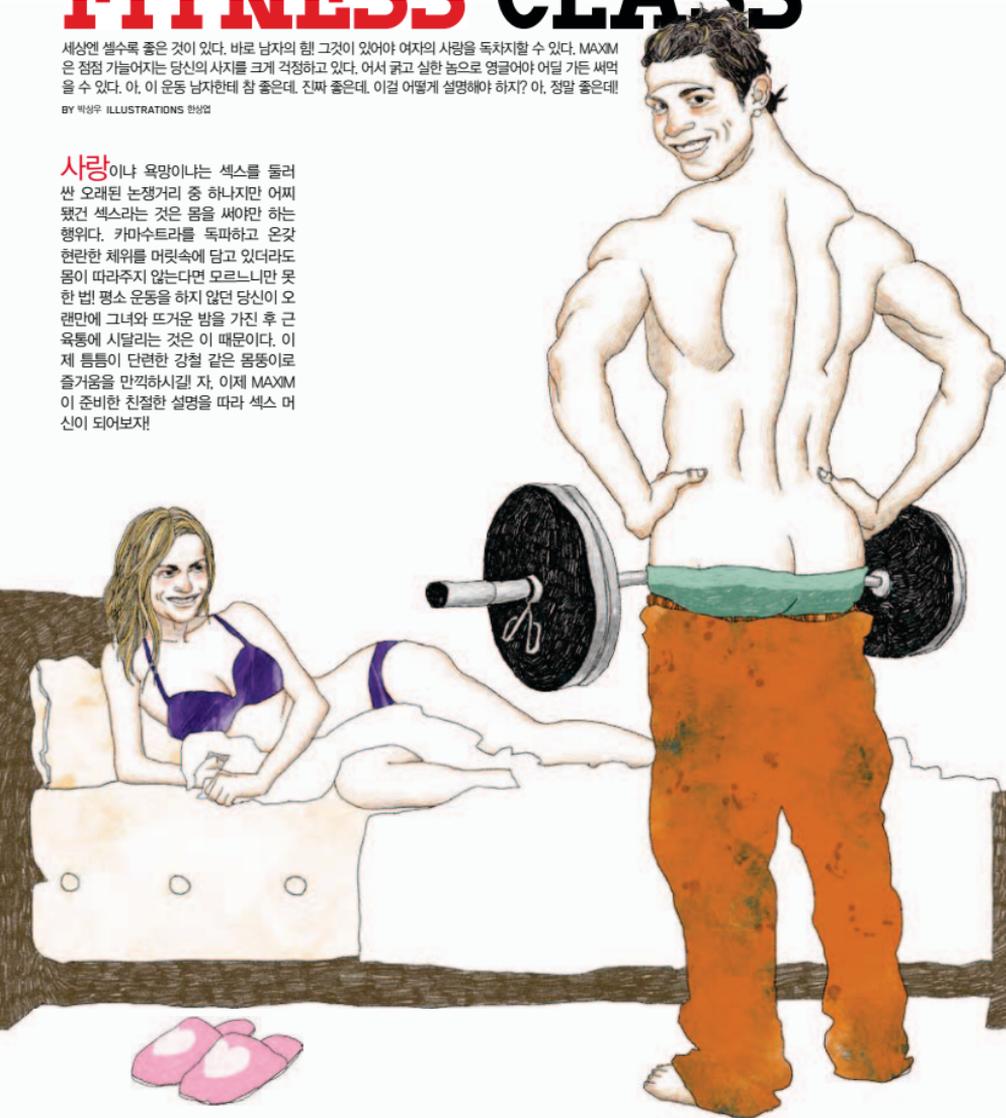
"우리 사랑 영원히."

## FITNESS CLASS

세상엔 셀수록 좋은 것이 있다. 바로 남자의 험 그 것이 있어야 여자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다. MAXIM 은 점점 늘어지는 당신의 사지를 크게 걱정하고 있다. 어서 굵고 실한 몸으로 영글어야 어딜 가든 씨덕 을 수 있다. 아. 이 운동 남자한테 참 좋은데. 진짜 좋은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아. 정말 좋은데!

BY 박성우 ILLUSTRATIONS 한영민

**사랑**이나 욕망이라는 섹스를 둘러싼 오래된 논쟁거리 중 하나지만 어찌 됐건 섹스라는 것은 몸을 써야만 하는 행위다. 카마수트라를 독파하고 온갖 현란한 체위를 머릿속에 담고 있더라도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모르니만 못한 벌 평소 운동을 하지 않던 당신이 오랜만에 그녀와 뜨거운 밤을 가진 후 근 육통에 시달리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제 틈틈이 단련한 강철 같은 몸통이로 즐거움을 만끽하시길! 자, 이제 MAXIM 이 준비한 친절할 설명을 따라 섹스 머신이 되어보자!



## 킹이 되기 위한 6가지 운동



몸에서 단단한 부위가 그거 하나뿐이라면 당신은 이미 골라먹었다. 후들거리는 앙상한 팔다리와 줄렁거리는 뺨살은 그녀와 당신 사이를 멀어지게 할 뿐이다. 그녀와의 달밤 체조를 더 만족스럽게 하고 싶다면 실행하라래 콧이 나우!

### 유산소 운동

모든 맘 흘리는 행위의 기본은 기초 체력이다. 유산소 운동을 통해 심해 지구력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자. 힘세고 오래가는 남자가 되기 위해선 강력한 심해 지구력이 필요하다. 아직 시동도 안 걸린 그녀보다 먼저 퍼져버리는 것은 최악이다! 또한 당신의 그것이 코든 단단해지기 위해선 원활한 혈액 공급도 필수적이다.

**How to** ▶ 강신은 이미 뭘 해야 할지 알고 있다. 지금 당장 운동화 끈을 조이고 밖으로 나가자. 유산소 운동의 종류는 다양하다. 빠르게 걷기, 달리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 흥미와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바로 얼마만큼의 부하를 당신의 몸에 걸 것인가다. 무조건 개처럼 헐떡거리며 뛰 어다닌다고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최대 심박 수의 65~75% 정도로 운동을 하는 것이 적정선. 심박 측정기가 없다고? 간단하게 대화로 테스트해보자. 당신이 운동 중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운동 강도를 높여야 한다. 반면 전혀 말을 하지 못하고 숨만 헐떡거리고 있다면 운동 강도를 낮추자. 적당한 강도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약간 고된 정도. 침대 위의 그녀에게 수다만 지껄이고 있는 병신과 말장난 개마냥 피스톤 운동만 하고 있는 짐승 막 중간을 상상하면 된다. 이제 일주일여 6번, 최소 30분 이상 꾸준해 해야 한다는 말은 입만 아프니 패스!



### 스쿼트

남자의 스타미너는 단단한 허체에서 나온다. 사실은 아름다운 축구 선수 부인들이 증명하고 있다. 남자들이 가장 쉽게 병하는 실수는 죽어라고 상체만 키운다는 것이다. 허나 상체가 아무리 튼튼한들 그녀와 상체로 결합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수많은 여자가 호날두에 열광하는 것은 그의 헬스 같은 상체를 떠받치고 있는 든든한 허체란 사실! 남자들이여, 이제 당신의 허체는 엉덩이를 밑그레이드 하자!

**How to** ▶ 다리를 어깨너비여 조금 못 미치게 벌리고 선다. 이때 발 방향은 약간 바깥쪽을 향해야 한다. 바벨을 어깨에 걸치거나 덤벨을 양손에 쥔다. 허리는 곧추(세운 상태로 무릎을 천천히 굽혀 내려간다. 그냥 주저앉으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발가락을 볼 수 있는 상태로 그대로 허강하는 것이다. 너무 많이 내려가면 다시 일어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길! 이를 10회 1세트로 3세트 반복한다. 헬스장을 갈 시간이 없거나 집에 덤벨 하나 없는 당신을 위한 방법도 있다. 똑같은 자세에서 양발을 앞으로 내린 상태에서 그대로 교차한다. 목 앞 태우는 자세를 상상하면 이해하기 쉽다. 그 상태로 스쿼트를 시행하면 된다. 처음엔 올바른 자세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어렵지만 곧 익숙해진다. 이 운동의 장점은 합법된 당신의 손 막하는 뒤태로 더 많은 골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 케겔 운동

원활한 섹스를 위해 당신이 조여야 할 것은 운동화 끈만이 아니다. 꾸준히 항문을 조이는 연습을 해둘 것! 우리에게 익숙한 바나나 그 '뒹고, 칠하고, 조이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 물론 그곳을 직접적으로 쓰는 것은 아니니 이상한 상상은 하지 마시라! 아직도 비누 줄기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건 아니겠지?

**How to:** 똑똑한 독자라면 이미 눈치챘겠지만 케겔 운동의 목적은 발사 시점을 늦추는 데 있다. 뜻하지 않은 순간, 우리의 아이들이 나로오처럼 험차게 날아간다면 당신과 그녀는 나라 잃은 백성처럼 황당함을 감추지 못할 것이다. 이 운동은 단순하고 명쾌하다. 우리의 목표는 하루에 100번 오물거리는 것! 일단 아침, 점심, 저녁에 1세트(10회)를 수행하는 것으로 시작하자. 운동에 익숙해지면 3세트씩으로 늘려나가고, 지하철에서나(무한도전) 분방, 재방을 보는 중에도, 심지어 하이컬러 남성 교양지(MAXIM)를 탐독할 때도 틈틈이 수행하자. 이 운동의 가장 큰 장점은 당신이 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눈치챌 수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뺨가 나거나 근육이 뭉칠 염려도 없다! 엉덩이에 쥐가 나면 무약을 바르면 된다. 아미도.



## 골반 리프트

당신이 위에서 몸을 뒹뒹 흘리며 노력하고 있을 때조차 무심한 듯 시크한 표정으로 사체처럼 누워 있는 그녀를 보는 것만큼 기운 빠지는 일이 또 있을까? 그녀 또한 마찬가지로 목석처럼 뻘뻘한 당신을 본 그녀는 어렵게 낸 한 줌의 용기마저 재가 돼버릴 것이다. 여성에게 주도권을 쥐어주었다고 해서 마인드조차 수동적으로 변하지 말 것. 강력한 허리의 반동을 이용한 적극적 리액션으로 그녀가 적토미를 탄 권우가 됐다는 착각에 빠지게 만들자!

**How to:** 바닥에 등을 대고 눕는다. 다리는 살짝 벌린 채로 무릎을 굽히고 발바닥이 지면에 닿게 한다. 양팔은 옆구리에서 약간 떨어뜨려 쪽 편 상태로 손바닥을 바닥에 댈다. 이제 똥고에 힘을 팍 주고 엉덩이를 이륙시켜보자! 등이 일지가 된 상태까지 올라간 후 멈춰야 한다. 이 때 무게는 당신의 양팔, 양다리에 고르게 분배해야 한다. 양팔은 어깨에서 손바닥까지 지면에 접촉하고 있어야 제대로 된 자세다. 정지 상태를 유지한 후 서서히 고도를 낮춰 안전하게 착륙한다. 10번씩 3세트로 당신의 가시기를 하늘로 쏘아올리자!





## 버터플라이 / 힙 스트레칭

강력한 파워만이 남자의 무기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이미 총명형 익스프레스를 놓쳤다! 하늘하늘한 수반뱀 같은 유연함을 겸비해야 진정한 공수경쟁의 수컷이 될 수 있다. 반복적인 스트레칭은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근육 경련을 예방해주는 효과도 있으니 결코 가벼이 여겨선 안 된다. 결합 중에 쥐가 나다니! (용지왕 가오기이아)의 합체 실패와 맞먹는 충격과 공포가 아닌가!

**How to:** 버터플라이의 목적은 반복된 사용에 지친 사타구니 근육을 풀어주는 데 있다. 등을 대고 바닥에 눕자. 무릎을 벌려 양 발바닥을 박수치듯 마주친다. 상방한 발뒤꿈치를 물긴 쪽으로 당겨준다. 무릎은 당연히 바깥쪽을 향해야 한다. 그 다음 내색들을 사사히 바닥에 누여보자. 갑자기 힘을 가하거나 빠르게 시행한다면 어린 시절 당신의 가랑이를 무지막되하게 찢던 태권도 사범님의 얼굴이 떠오를 게다. 손은 허벅지 안쪽에 살며시 올려 다리를 눌러준다. 30까지 셉 후 푼다. 이것을 7회에서 5번 반복한다. 쟁쟁, 근력 운동보다 힘들다.

다음은 힙 스트레칭! 당신의 뱃뱀해진 근육을 풀어줄 것이다. 골반 리프트처럼 무릎을 굽히고 발바닥을 접지한 자세로 놓는다. 두 손으로 한쪽 넓적다리 뒤를 잡고 무릎이 가슴께에 달도록 당겨준다. 30초를 세고 푼다. 각각 3 내지 5회 반복해준다. 이제 근육을 풀어줬으니 다시 쓸 각오는 됐겠지?



## 푸시-업

“교과서에만 충실했어요” 라는 모범생의 말은 괜한 소리가 아니다. 당신이 거처는 12년간의 교육과정과 2년 여의 자육과도 같은 시간을 돌이켜보라! 국가가 남자에게 끊임없이 요구했던 운동이 있으니, 바로 푸시-업이다! 이 운동이야말로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는 것을 막고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핵심이다. 자고로 기본에 충실한 남자가 응용도 잘하는 법, 앞으로의 다양한 포지셔닝을 위해 기본기를 잡고 뒤자.

**How to:** 누구에게나 친숙하면서도 정확한 동작을 하기 가장 까다로운 운동 중 하나가 바로 푸시-업이다. 제대로 하면 허벅지 비싼 돈 들여 헬스장에 가서 이상한 신음 소리를 내는 아저씨들에게 주눅들 필요가 없다. 전발 말고 일단 바닥에 엎드려자. 손바닥을 어깨너비 정도로 짚는다. 손바닥에 힘을 주고 몸이 지면에서 떨어져 팔이 거의 완전히 펴질 때까지 올라간다. 지나치게 떠먼 팔꿈치가 최고 지점에서 버틸 수 없으니 주의할 것! 이때 몸은 곧게 펴야 한다. 푸시-업 시 엉덩이를 들고 넘실대는 것만큼 흉한 꼴이 없다는 것은 거울을 보면 잘 알게 될 것이다. 이제 가슴이 지면에 거의 닿을 만큼 내려간다. 이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반복하면 된다. 참 쉽지? 초심자는 10번을 목표로 하자. 이 운동 또한 10번씩 3세트를 수행하고, 그게 쉽게 느껴지면 팔이 후들거릴 때까지 세트를 반복한다. 가슴에 부하를 주고 싶다면 팔을 더 넓게 벌리고, 삼두근과 등근육에 집중하고 싶으면 손을 좁게 모아 양 엄지와 검지로 다이아몬드 모양을 만들어서 수행하면 된다. 물론 처음엔 자이로드롭처럼 자유낙하한 후 못 올리울 것이다. 아, 많이 조심!



# 편의점 음식으로 한 달 나기

아무리 먹어도 늘 배가 고프고 88만원 세대를 위해 MAXI이 편의점 음식으로 한 달 식단을 짜냈다.

BY 양기봉 PHOTOGRAPHS BY 박성우, 조가영, 김희성  
COOPERATION 보령 테리야마, GS 24레일, 세븐일레븐

## 편의점 도시락 영양 매치!

**세븐일레븐** 제육볶음 도시락  
세븐일레븐의 스테이크, 세 상종 밥이 가장 많고 달걀, 어묵, 고추, 호박 등을 함유. 3대 영양소의 밸런스를 맞췄다. 가격 2천5백원.

**해미리마트** 뉴 본격 소불고기  
가난한 당신을 위한 최고의 초이스. 가격 대비 알짜다. 주식인 밥의 양은 적으나 타사 불고기도시락보다 쇠고기가 5%가량 많다. 가격 2천원.



결과 **세븐일레븐** 제육볶음 도시락 승  
식성이유를 더 많이 섭취할 수 있다.  
코코콜라 통과 치약 통, 바이버이!

### 식사 스케줄에 간격을 두어라

PC방비에 돈을 탕진해 하루 세끼가 너무나도 사치인 상황에 처했다. 일단 아침, 점심을 한데 묶고(아침) 저녁에 허기를 달래자. (아침 결식으로 당신 뇌에 포도당 결핍 현상이 올 수도 있음을 미리 말해둬다.) 아침의 최적 시간은 12시~2시 사이. 아침 후 낮잠은 뇌 속의 산소를 공급하고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한 뒤, 오후 8시 이후 몽그적몽그적 저녁밥을 먹으면 된다. 약 8시간 정

### 길고 오래 씹어라

음식을 오래 씹으면 마치 식사를 길게 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들고 동시에 뇌가 '이 녀석은 지금 평가를 무시하고 먹고 있구나' 하는 착각에 빠져 식욕도 준다. 또한 잘게 분해된 음식물은 위장을 편안하게 한다. 그러나 갑자기 등 쪽에서 나타난 은인인 공파 고기 파티를 열어주어도 마칠 줄은 가지처럼 급하게 삼키지 말고 여유 있게 씹으며 고기의 단맛을 즐기라.



## 2010년 6월 식단표 호국 보훈의 달

일	화	수	목	금	토	일
1 [7] 불고기버거 ₩1,500 [25] 켈리노아 연어밥 ₩2,000	2 [7] 베이컨포테이토 샌드위치 ₩1,600 [25] 차리시스사우추담밥 ₩2,200	3 [7] 제육볶음 김밥 ₩1,200 [7] 불고기 도시락 ₩2,500	4 [7] 라면샐러드는 달걀 1개 ₩2,000 [25] 실속세리야마 치킨도사락 ₩1,800	5 [7] 닭고지탕 삼각김밥 +우유 ₩1,450 [25] 제육볶음 도사락 ₩2,500	6 <b>현충일</b>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선열을 떠올리며 하루 금식한다. ₩0	
7 [25] 통 큰 갈릭 치즈 스테이크 ₩900 [25] 한나콜리비빔밥 ₩2,000	8 [7] 불타는 맥갈비 삼각김밥 ₩700 [25] 옛날 소시지 볶음밥 ₩2,000	9 [25] 속이 알찬 치킨 커튼 핫 샌드위치 ₩2,500 [25] 정성 참치 미요도시락 ₩2,800	10 [25] 피갈비버거 ₩1,000 [25] 정성 참치 김치도시락 ₩2,800	11 <b>일드림 개막</b> [25] 4가지성 알함치마요&볶음고추장 삼각김밥 ₩1,200 [25] 매콤 고기산척 도시락 ₩2,500	12 <b>vs. 나이지리아</b> [25] 제육볶음 도사락 ₩2,500	13 [25] 중화 매콤치킨 샌드위치 ₩2,000 [25] 뉴 본격 소불고기 도시락 ₩2,000
14 [25] 크림치즈쉬림프&맛상 샌드위치 ₩2,000 [25] 뉴 본격 폰카소 도시락 ₩2,500	15 [25] 통 큰 골 소스 해물완자 ₩900 [25] 해나치킨 도시락 ₩2,500	16 [25] 본격 통근잔주비빔주먹밥 ₩1,500 [25] 화끈 불닭 도시락 ₩2,800	17 <b>vs. 아르헨티나</b> [25] 피자성 불고기치즈도사락 ₩2,000 [25] 유부초밥 도시락+맥주 1캔 ₩3,950	18 [25] 맥갈비버거 ₩1,600 [25] 뉴 본격 제육볶음 도시락 ₩2,500	19 [25] 본격 쟁쟁참치 김밥 ₩1,200 [25] 네비버너 도시락 ₩2,500	20 [25] 본격 통근치마요주먹밥 ₩1,500 [25] 양념 치킨 도시락 ₩2,500
21 [25] 본격 쟁쟁소고기 김밥 ₩1,500 [25] 스텝구이 도시락 ₩2,500	22 [25] 치즈불닭 주먹밥+우유 ₩1,450 [25] BG제육볶음 도시락 ₩2,500	23 <b>vs. 그리스</b> [25] 피자성갈릭치킨도사락 주먹밥 ₩900 [25] 추위의 도시락+맥주 1캔 ₩3,650	24 [25] 더 큰 알함치마요&볶음고추장 삼각김밥 ₩1,000 [25] 양구산척비빔밥 ₩2,500	25 [25] 고추장 불고기&직화 불고기 삼각김밥 ₩1,200 [25] 한복선 비빔밥 ₩2,500	26 [7] 피자성 올리버거 ₩1,000 [25] 실속 제육김치볶음 도시락 ₩2,000	27 [25] 본격 스텝구이 김밥 ₩1,000 [25] 실속 소고기장정볶음 도시락 ₩1,800
28 [25] 맥아머는 당면참치 김밥 ₩1,500 [25] 감자볶음밥 오모리이스 ₩2,800	29 [25] 본격 통근김치볶음주먹밥 ₩1,500 [25] 실속 삼선명황국밥 ₩2,200	30 [25] 전주 비빔8장참치킨 ₩1,200 [25] 실속 불닭도시락 ₩1,800	- 편의점 음식으로 계산한 한 달 식대: 112,150원 - 가니당 평균 가격: 1,930원 평균 한 끼 가격을 5,000원으로 잡았을 때 우리 같이 먹으면 한 달 식비를 61.3%나 절약할 수 있다. 단, 당신의 건강은 책임 못 진다.			

# eMAXIM OPEN!



- 5,400원 짜리 MAXIM의 모든 콘텐츠를 1,500원에 보고싶은 자
- 정자된 사진이 아닌 움직이는 MAXIM을 보고싶은 자
- 책보다 PC가 더 친근한 자
- 서점에서 MAXIM을 사는 것이 민망했던 자
- MAXIM을 침대 밑에 숨겨왔던 자

모두 e매거진으로 달려오라!

[www.maximkorea.net](http://www.maximkorea.net)

**e매거진 1개월(30일) 자유이용권 : 1,500원**

**e매거진 6개월(180일) 자유이용권 : 8,100원 (10% 할인)**

**e매거진 12개월(360일) 자유이용권 : 15,300원 (15% 할인) + 1000씩 적립  
사은품 : 타이거맥주 12캔(3만원)**

**e매거진 24개월(720일) 자유이용권 : 28,800원 (20% 할인) + 2000씩 적립  
사은품 : 타이거맥주 24캔(6만원) / 이승철 25주년 콘서트 A석 티켓 1장(7만 7천원) 중 택1**

- ※ 사은품은 소진 시까지 (소진 시 변경 공지)
- ※ 편의상 1개월은 30일로 계산합니다.



# 도마 따윈 필요 없는 요리 교실

남자라면 자위(自爲), 스스로 위하는 요리 정도는 할 줄 알아야겠지?  
파스타 면발 같은 재료도 필요 없다. 5분 만에 완성할 수 있는 간단 요리를 공개한다.

BY 김경애 PHOTOGRAPHS BY 박동 MODEL 에디터 장기환



## 참치찌개

재료 : 참치, 김치, 스템, 맛살, 콩이 버섯



1. 냄비와 참치 캔을 준비한다.

2. 가스레인지 정도는 켜 줄 알지?

3. 참치 캔을 뜯 뒤 기름만 쪽 짜서 식용유 대용으로 쓴다.

4. 남자가 김치를 자르는 방법은 두 가지다. 도마를 쓰면 고추가 떨어진다. 김치 통에 가위를 넣고 자르거나 김치를 손에 들고 아래쪽부터 자르거나.

5. 김치를 좀 볶다가 참치를 투하하고 볶는다.



6. 1분 정도 다가 참치 캔에 물을 받는다. 세 번 정도 받아서 냄비에 넣고 슉술 저어준다.

7. 스템을 반토막 낸다. 역시 도마는 필요 없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칼로 잘라라. 고기가 부죽하면 손을 같이 썰어 넣을 수도 있다.

8. 게맛살을 잘라서 넣어 준다. 아. 이날 밤 동해안에서 갓 잡아 올린 싱싱한 대게를 통째로 찌개에 넣는 촉촉한 꿈을 꾸어보았어.

9. 콩자른 가위로 자른 콩이 버섯을 찌개에 투하.

10. 팔팔 끓이면 요리 완성! 더럽게 쉽다.



## 김치 볶음밥

재료: 김치, 밥, 계란



1. 팬에 식용유, 올리브유, 포도씨유, 버터, 마가린 등 집에 있는 기름을 두른다. 팬에 당산 알균을 한번 비벼도 좋겠다.



2. 김치 지르는 방법은 아까와 동일하다.



3. 김치를 팬에서 볶는다.



4. 먹고 싶은 만큼 밥을 퍼서 김치 볶음에 투하.



5. 꼭꼭 눌러서 밥과 김치의 뜨거운 합일을 이뤄낸다.



6. 계란을 넣는다. 오, 생란이 대 남자라면 역시 생방울.



7. 계란과 밥과 김치를 미친듯이 섞어 볶는다. 이날을 위해 당신은 그토록 오랜필을 단련해 왔다.



8. 불을 약간 줄이고 간장을 두 숟갈 넣는다.



9. 이 볶음밥을 완성하는 것만이 유일한 삶의 목표이자 당신이 지구에 존재하는 이유라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볶아라.



10. 불을 끄고 참기름을 한 숟갈 넣고 골고루 섞어준다. 완성.

# 여자 사진 예쁘게 찍어주는 법

예쁜 여자 많이 아는 은혜로운 준환이 형 미니홈피에는 예쁜 여자 사진이 참 많다. 이 형에게 어떻게 해야 여자 사진을 예쁘게 찍을 수 있는지 배워서 여친을 감동시키자.

BY 권기영 IMAGES 모든 사진 김준환 본인 제공 MODELS 김준환의 일촌들





미니홈피에 예쁜 여자들이 득실글글하다. 예쁜 여자랑 친해지는 비법 같은 게 있나? 그건 나도 진짜 모르겠다. 예쁜 여자들이 나를 좋아한다. 이유는 개똥한테 물어봐라.

#### 예쁜 여자 좋아하나?

난 매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예쁜 사람이 매력도 많다.

당신이 사진을 예쁘게 찍어주니 그녀들의 미모가 더 돋보인다. 사진을 찍는 데 카메라의 기능과 찍는 사람의 감각 중 뭐가 더 중요할까?

내 생각엔 카메라 대 감각은 4 대 6이다. 이 시대 자체가 감각이 중요한 시대다. 기계 탓 하지 말고 감각이나 더 키워기를 권한다. 근데 사실 좋은 카메라를 쓰면 다르긴 하다. 미니홈피용 사진 말고 크게 쓸 사진은 아무래도 다르지.

#### 여자를 볼 때 어디를 제일 많이 보나?

난 다리 예쁜 여자가 좋다. 허벅지는 두껍고 발뭍은 얇아야 sexy하다. 내가 키가 작으니까 아담한 여자를 좋아한다. 근데 키는 작아도 팔다리리는 길어야 하고 엉덩이도 예뻐야 한다. 얼굴은 쌍꺼풀 없는 짙어진 눈에 코는 작고 입 좀 튀어나온 약간 원숭이상에 끌린다.

#### 나이 들어도 철은 안 드는 미중년 사진작가인 당신의 최우명이 궁금하다.

(김준환은 스스로를 사진작가가 아니라 사진작가라고 칭한다)

욕심을 버리면 된다. 갖고 싶은 물건이 많으면 그럴 기지라고 일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철이 든다. 나도 이것저것 일을 안 해본 사람은 아닌데 욕심을 버리니까 자유로워졌다. 내가 자유로우면 하고 싶은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고 많이 못 봐도 행복하다. 아재도 마흔새 실 먹은 형님들랑 술 마셨는데 서른 아홉인 내가 그중 막내다. 얘기하는 거 보면 그냥 중학생 애들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 아직도 "야, 개 예쁘냐?" 이런 얘기한다. 재미있게 사는 게 좋다.

#### 당신의 꿈은?

아렸을 때 꿈이 아니냐 직업에 상관없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였다. 그 꿈은 이제 어느 정도 이룬 것 같다. 지금 꿈은 더 많이 경험하고, 더 경험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는 것이다. 이 얘기 보따리 푸는 아저씨가 되고 싶다.

#### MAXIM에 바라는 사진이 있다면?

말고 싶 수 있는 MAXIM이 되기를! 더 이상은 말이 필요 없겠지.

#### 이왕 이렇게 만난 김에 sexy한 여자 사진 많은 사이트 좀 공유하자.

www.egotastic.com 여기 추천한다. 예쁜 여자가 많다. 하드코어한 건 더 친해지고 나서 알려주겠다.

# WHO IS HE?



김준환. 39세 자유인. 여행 다니고 사진 찍는 거 좋아한다. 무렵게도 취미 생활로 돈도 번다. 최근 태국 뚜렛으로 수영복 화보 촬영을 다녀왔고, 조만간 발간될 책을 준비하고 있다. <화선인 비리러스>에 '미녀와 야수 커플'로 출연했지만 지금은 솔로다. 특이사항은 가수 싸이의 사촌이란 것. 준환이 형 미니홈피에 가서 예쁜 여자도 보고 일촌 신청도 하자. (남자 일촌 신청은 잘 안 받아주니 여자 이름으로 바꿔 신청하라.)

## KIM-CHI

### 그가 말하는 적절한 촬영 자세



#### 기타 자세

기타 자세는 태권도를 사범하거나 발 뺀을 때만 쓰는 자세가 아니다. 원래라 남자는 다리 뻗는다. 사진도 찍고 다리 힘도 줄이는데 팔 뻗아서나 그-왜-해-진-보-데-좋-고-병-도-중-은-남-자-가-되는-거-다.



#### 싸구려 무릎

자존심 따위는 과감히 버려라. 한때 내 별명이 '싸구려 무릎' 이었다. 두 무릎의 각은 90도. 그녀는 당신의 사진에 한 번 정성채 두 번 감동할 거다.



#### 맨티 보일라

누워라. 당신이 낮아질수록 그녀는 높아진다. 어깨와 등을 땅에 대고 카메라 렌즈로 그녀를 훑어보는 거다. 온 줄으면 맨티도 볼 수 있다.



### 속궁합 잘 맞는 카메라+렌즈의 조합

BEST: Canon EOS 5D Mark II 보디 + Canon EF 24-70mm f/2.8L USM 렌즈  
그가 주로 쓰는 조합: Canon EOS 500D 보디 + Canon EF-S 18-22mm f/3.5-4.5 USM 렌즈

# QnA About 하우스 맥주

안주사 정영식의 입에서는 명쾌한 답변이 탕에서 발사되는 맥주처럼 팔팔할 쏟아졌다.



## 하우스 맥주

아이스크림처럼 붓긋 솟은 부드럽고 풍부한 맥주 거품 속에서 살고 싶어요.

BY 0201 PHOTOGRAPHS BY ARC STUDIO  
COOPERATION 하우스 맥주 전문점 배르텐  
강남점(www.herzen.co.kr) 영주소장 정영식

### ○ 하우스 맥주란?

스규모 영조장이란 뜻의 마이크로브루어리라고도 한다. 보통 대규모 맥주 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영조장에서 만드는 맥주를 일한다. 마이크로브루어리에서는 긴 세월 동안 맥아, 호프, 효모 등의 원료 조합법이나 고유의 제조법을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있어 온 곳이 많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규모의 하우스 맥주 펍을 만날 수 있다.

### ○ 하우스 맥주가 일반 호프집 생맥주, 병입 맥주 등과 다른 무엇인가?

A: 맥주는 영조장이 아니라 효모가 만든다. 하지만 호프집 생맥주나 병맥주엔 실어 있는 효모가 없다. '병' 맥주의 '병' 은 안에 효모가 실어 있다는 뜻인데도 말이다. 있다고 해도 유통 과정에서 피치 못하게 실균을 하게 되니 생맥주 안에 진짜 효모가 실어 있을 확률은 매우 낮다. 하우스 맥주 숙제 효모가 실어 있다. 효모의 생사태만 알고 맛이지만 일단 향이나 맛이 더 풍부하다.

### ○ 맥주에 가라멜이나 설탕을 첨가한다는 얘길 들었다. 사실인가?

A: 규모가 작다는 편입은 하우스 맥주 펍에서 파는 맥주엔 보리, 호프, 효모, 물 이외에는 첨가물을 쓰지 않는다고 알고 있다. 간혹 스규모 영세한 곳에서 당화, 즉 탄수화물을 당으로 분해해 효모의 먹이가 되는 당을 첨가하는 공정 과정 중 당을 더 첨가하기 위해 설탕을 넣는다는 얘길 들은 적은 있다. 확연히 맥아보리가 비싸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다.

### ○ 맥이를 당화해 쓴은 맥즙, 즉 맥주 전 단계의 어떤 것인가?

A: 효모 발효 전의 맥즙은 그냥 보리 다량과 약간 설탕이 들어 있다. 식해 만들 때 당기름을 띄워 나오는 단짠과 맛이 유사하다.

### ○ 하우스 맥주를 상업적으로 판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일단 국가에서 주는 스규모 맥주 제조권만 면허증이 필요하고, 가계마다 유통계를 달아서 주간적으로 국제권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맥주를 판는지 신고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병입 판매를 하려면 따로 신고해야 하는데 서울 삼성역의 오름스가 현재 그렇게 병입 판매를 하고 있다고 들었다.

### ○ 숙성을 안 한 맥주는 어떤 것인가?

A: 그것을 '영비어Young Beer' 라고 부른다. 맥아와 호프 향이 더 강하고 깔끔한 맛은 달한다. 이것을 숙성하면 맛이 깔끔해지고 부드럽게 조화를 이룬다.

### ○ 가장 인기 좋은 하우스 맥주는 어떤 것인가?

A: 우리 가계에선 바이켄빌 맥주(가장 많이 팔린다. 부드럽고 향이 좋아 여자 손님이 특히 좋아한다. 헬레스체코에서는 필스라고 부르는 보리맥주는 깔끔하고 날카로운 맛 때문에 젊은 남성이 자주 찾고 토크톡맥주는 흑맥이 특유의 구수함이 주는 맛 때문에 어른부터 젊은 남자까지 고루 좋아한다.

## BEER PARTY

### 맛있는 하우스 맥주 즐기기 다 방법이 있다.

#### 1 너무 차가운 온도는 금물

하우스 맥주를 즐기는 최적의 온도는 4~6 ℃ 향이 가장 적절하고 맛도 편하다. 일반 호프집 생맥주나 병·캔맥주는 2~3 ℃로 차갑게 즐기는 것과 사뭇 다르다. 정영식은 "너무 낮은 온도에서는 효모가 살 수 없고, 맥주가 0 ℃로 온도가 떨어지면 아무 맛도 느낄 수가 없다" 고 덧붙였다.

#### 2 과포화 탄산은 금물

맥주를 아주 차갑고 탄산이 독특한 맛에 즐기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탄산이 너무 많고 온도가 차면 미각이 오히려 떨어진다. 하우스 맥주처럼 특히 향과 맛이 풍부한 주류일수록 자극적인 조건을 피하는 것이 좋다.

#### 3 목민주는 금물

하우스 맥주로 소맥을 만들어내는 질문에 정영식은 이렇게 대답했다. "특히 바이켄빌 소주가 최상의 조합이다. 안 그래도 불리는데 특유의 바이켄 향과 소주 향이 섞여 코로 풍어오면 바로 술된다. 근데 아무리 맛있는 하우스 맥주도 소주 섞으면 다 똑같다. 말이 없겠다." 하지 말고 하니 더 하고 싶잖아

### 보리에서 뱃속까지 이제 마실 일만 남았다!

1 당화 전분을 당으로 분해해 효모가 남는 맥을 수 있도록 꼭꼭 맥을 끓인다.

2 맥즙 여과 맥여찌꺼기를 거르고 남은 당화된 맥즙을 다시 여과한다.

3 호프 투여 및 끓이기 맥즙에 호프를 넣고 끓이는 동시에 살균도 한다.

4 여과와 냉각 알콜에 들어간 맥즙이 여과되고 알콜이 증발한다. 쉬웠던 가는 고미로군.

5 발효 맥즙과 효모가 드디어 조우한다. 보통 위가 오른편 발효실에서 상면발효가 일어난 동시에 하면발효가 진행된다. 맥주가 반건대

6 후발효와 숙성 이제 알콜을 조금씩 숙 맥 탄산을 건어준다. 저장기에 모인 맥주는 바로 배에 실려진 맥주 탱크로 발사, 그리고 당산 뱃속으로 굴린다

## Grooming Tip #1

나의 피부는 어떤 상태인가?

귀찮다고 스킨 로션도 안 바르고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거나  
혹은 번들번들 기름기, 검고 까칠까칠한 피부 톤으로 유지하고 있는가?

얼굴은 늘 번들거리는데 왜 수분 공급이 필요한 건가요? 유분과 수분은 50:50으로 피부에 존재  
해야하는데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수분의 빈 자리를 유분이 채우려 함으로 피부는 지성처럼  
보이면서 모공은 점차 넓어지게 되는 것 입니다 번들거리는 피부, 개기름 줄출 끼는 피부!  
아자로 그린 클레이로 팩으로 관리해보자

아자로의 성분인 프랑스산 카올린그린클레이는  
진흙성분중 최상급으로 꼽힌다. 아자로를 통해  
기름기 많은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 줌니다  
피부속 넓어진 모공을 타이트하게 조여주고  
유분의 자리를 수분으로 메꾸면서 피지의 분비가  
자연히 줄어들게 되는 눈에 띄는 효과를 볼수있다  
아자로 그린클레이로 번들거리는 피부를 해결하자

제품구입처 [WWW.AZAMISAPPE.CO.KR](http://WWW.AZAMISAPPE.CO.KR)

**ARGILE**  
GREEN CLAY PASTE  
&  
**ISSEO** HOMME  
맨즈그루밍족의  
여름필수아이템

제품구입처 [WWW.MANQ.CO.KR](http://WWW.MANQ.CO.KR)

시원한 쿨링감과 함께 고농축의 리퀴드한 비타민이  
피부에 흡수되어 촉촉한 수분을 깊이 전달하고 생  
기있는 피부로 바꾸어준다 스킨+로션+에센스 3in1  
제품으로 하나로 스킨케어 마무리가 가능한 프랑스  
파리갤러리 라베에트와 브랭당에서 판매되는 이세  
오우사의 토닝젤 비타민 C로 여름을 대비하자



## Grooming Tip #2

- ✓ 피지로 인해 심하게 번들거림을 본 적이 있다
- ✓ 트러블이 현재 있거나 트러블의 흔적이 있다
- ✓ 가까이 다가가지도 않았는데 모공이 보인다
- ✓ 하얗게 일어난 각질로 피부가 푸석해 보인다

위에 3가지 이상이 체크가 된다면 피지와 수분의 밸런스의 불균형이 일어나  
모공이 넓어짐과 함께 겉은 지성이면서 실상은 건성피부로 변화되어 가는 중  
입니다. 이때 충분한 수분 공급과 함께 빠른 모공 축소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부는 점점 노화되어 가면서 거칠어 진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에 적합한 제품인 이세오우드 비타민C 토닝젤로 부드러운 피부로 바꾸어 보자

# RATED

YOUR ULTIMATE ENTERTAINMENT GUIDE

## STARCRRAFT 2 : WINGS OF LIBERTY

〈스타크래프트 2〉 발매일이 7월 27일로 결정됐다.  
월드컵의 여운을 느낄 시간 따윈 없다. 〈스타크래프트 2〉의 따끈따끈한 싱글 캠페인을  
클리어하다 보면 울어름은 당신과 작별을 고할 거다. 그래도 상관없다.  
적어도 당신에게 지금 이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일 테니까 말이다.





# 스타크래프트 스토리 따라잡기

BY 리쌍현 IMAGES BLIZZARD

스타크래프트의 스토리는 어지간한 SF 소설 씬 색깔을 정도로 재미있다.

배틀넷에서 친구들과 불타오르는 것도 좋아한 2탄이 나오기 전 지금까지의 스토리를 훑어보는 것은 어떨까?

걱정하지 마라. MAXIM에서 증폭별로 스토리를 정리했다. 당신은 읽기만 하면 된다.



## 테란

### 테란 연합

테란이 살아 지구 연합군이라 생각한 건 아니겠지? 테란은 지구에서 우주로 떠난 함대가 항로 이탈해서 코프룰루 지역 3개 행성에 정착한 탈거자들이다. 이들이 공친 테란 연합은 지구에서 하던 버릇 못 고치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난리 불루스를 춘다. 이때 멩크스란 녀석으로 대표되는 변역한 세력 '코말의 후예'가 등장한다.

### 치열한 전투

테란 연합과 반군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건 당연지사. 이 와중에 저그라는 외계 생명체가 테란을 습격한다. 연합의 보안관 짐 레이너(네스티크래프트 패키지)에 큼지막하게 알골 나오는 녀석은 외계 생명체에 오염된 테란의 전초기지를 마을대로 날려버렸단 이유로 억울하게 감옥에 차박한다. 반군 지도자 멩크스는 '올가네!' 하고 레이너를 구출해 반군에 포섭한다. 이후 둘은 테란 연합을 박살낼 때까지 공박을

맞추며 파티 플레이를 한다. 레이너는 이곳에서 연합의 고스트(사이오닉 암살 요원)였던 멩크스의 부관 캐리건을 만난다. 이 반복한 여자에 대해서는 저그편에서 길게 풀어주겠다.

### 사이오닉 방출기

저그의 갑작스러운 출몰은 테란 연합이 만든 사이오닉 방출기(저그에게 신호를 겁내 쫓겨 그곳으로 몰려들게 하는 도구. 이름 어쩔) 때문이었다. 테란 연합은 저그를 전쟁에 이용하려고 이런 도구를 만들었다. 이름 알아챈 멩크스는 연합과의 전투에서 사이오닉 방출기를 적극 활용한다. 연합 부대가 위치한 곳에 방출기를 설치한 후 저그를 소환. 연합군 부대를 전멸시켰다. 반군은 그렇게 연합과의 전투에서 우위를 차지했다. 레이너는 멩크스가 돌아있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기 시작한다.

## 캐리건을 행하다

멕시코는 자신의 승리를 위해 방출기를 남겼다. 한때 민중의 지팡이였던 레이나는 동맹을 몰까도 고민한다. 캐리건 역시 멕시코의 행동이 탐탁지 않았지만 정신 지배에서 돌아온 그 다음 때문에 명령에 복종했다. 그렇지만 얼마 후 멕시코는 캐리건의 단물만 쏙 빨아먹고 팽했다. 태란 연합의 수도 타스나스 행성 전투 중에 끼어든 프로토스를 격파하기 위해 저그 소환을 명령한 후 저그 떼가 득실거리는 그곳에 그녀를 버려둔 것이다.

## 나는 그녀를 사랑했네

레이나는 캐리건을 버린 멕시코에게 일말적이다. 그녀가 저그에게 잡힌 후 뒤늦게 자신의 마음을 깨달은 레이나였다. 하지만 캐리건은 저그의 품에 넘어갔고, 멕시코는 연합과의 전쟁에 승리해 대장 자리에 올랐다.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레이나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했다. 캐리건을 잊지 말자고 구시랑거리며 무대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 내가 진짜 지구 사람이야

지구 집정 연합은 지구에서 떠난 망나니들이 어떻게 사는지 유심히 지켜본다. 저그와 프로토스는 외계 생명체까지 날뛰는 꼴을 본 후 집 나간 애들을 손보겠다고 결심한다. 듀갈 제독은 새로운 태란 연합을 향해 출동한다. 그리고 멕시코를 딱살시키고 태란 세력을 절소했다.

## 사이오닉 분열기

태란 연합을 평정한 듀갈 제독은 타스나스 행성에서 저그의 통신을 방해하는 사이오닉 분열기를 발견한다. 지구 집정 연합이 저그를 이용하려면 사이오닉 분열기는 있어서는 안 될 존재다. 듀갈 제독은 사이오닉 분열기를 파괴한 명령을 내리지만 스투코프 부제독은 인류를 저그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파괴한 분열기를 재조립한다. 지구 집정 연합에 붙은 반대편세력 듀란은 둘 사이를 이간질해 듀갈이 스투코프를 제거하게 만든다. 듀갈은 스투코프가 죽고 나서야 진짜 악당이 듀란이고, 그의 목적이 사이오닉 분열기를 파괴하는 데 있다는 걸 깨닫는다.

## 신생 초월체 그리고 캐리건

지구 집정 연합은 저그 신생 초월체(오버마인드)의 방어막을 무너뜨리고 강력한 신경 안정제를 투여한다. 악랄이 먹힐 즈음 듀란과 저그의 여왕으로 거듭난 캐리건이 등장했다. 그러자 듀갈은 사이오닉 분열기를 통해 초월체의 통제권에 들지 않은 저그 군단을 포섭한다. 캐리건은 듀갈 휘하의 저그를 자신의 손에 넣고,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사이오닉 분열기를 파괴한 후 지구 집정 연합의 함대까지 무찌르는 일타삼미를 위해 멕시코에게 동맹을 제의한다. 지구 집정 연합에 사이오닉 방출기 한 번 쏘면 다사금 태란 연합의 대장 자리에 앉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어차피 인생 막장에 다다른 멕시코는 캐리건의 제언에 급세 응했고, 캐리건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모두 이끌어낸다.

## 지구 집정 연합의 괴멸

지구 집정 연합, 태란 연합, 프로토스는 힘을 합쳐 캐리건을 공격한다. 하지만 이미 강성해진 저그 세력을 등에 업은 캐리건은 그들을 손쉽게 물리친다. 태란 연합 및 프로토스 함대는 패색이 짙어지자 자리를 뒤흔들었다. 지구 집정 연합은 도망치지 못했다. 캐리건은 실려주면 항복하겠다는 듀갈에게 "지구로 도망칠 태란 도망치보라" 는 굴욕적인 멘트를 날린 후 그들을 추격해 씨를 말려버린다. 듀갈 제독은 자신의 통고침 때문에 에이스 스투코프가 죽고, 지구 집정 연합이 태란 연합을 신인자로 만들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하며 저서상으로 고고성한다.

## 다사금 멕시코, 그리고 레이너

캐리건의 도움 아닌 도움으로 태란 연합 대장 자리에 복귀한 멕시코. 그는 특유의 정치력으로 연합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다. 레이나는 멕시코는 "돌아오야쁜 놈" 이니 타도해야 한다고 목이 터져라 외치지만 독고다이에게 호응하는 세력은 없다. 결국 레이나는 자포자기하고 술독에 빠진다. 그가 과연 정신을 차리고 2편에서는 주인공다운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지켜볼 대목이다.





## 저그

### 초월체, 정신체 그리고 일반체

저그가 폭우로 일어 붙인다고 무식하다 생각하면 곤란하다. 저그는 중앙 집중형 지배구조를 가졌다. 초월체(오버마인드)라 불리는 입도적인 지성체가 정신체를, 정신체가 돌마니를 지배한다. 특히 대장 격인 초월체는 우주의 강력한 종족을 흡수해 완벽한 생명이 되어야 한다는 의지로 돌돌 뭉친 존재다. 수천 년 전 자신을 창조한 젤-나기마저 제압하고 흡수해버렸을 정도다. 초월체가 호사탐탐 노리고 있는 타깃은 위대한 외계 종족 프로토스다.

### 저그의 테란 침공

저그의 초월체는 테란의 사이오닉 방출기가 보낸 신호를 통해 테란의 존재를 인지한다. 다른 종족을 포식하는 게 존재 의미인 초월체는 테란 연합의 각 행성을 무차별 공격한다. 이와 동시에 프로토스의 거처를 탐색하기 시작한다.

### 캐리건의 포섭, 새로운 중간 지배자의 탄생

테란을 공격하던 저그는 중간에 끼여 든 프로토스 때문에 성가신 상황을 겪게 된다. 초월체는 프로토스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그들이 가진 사이오닉 능력(영적 능력)을 상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사이오닉 능력 자체는 미비하지만 발전 가능성은 중점을 수 없는 테란을 흡수해 프로토스를 상대하기로 결심한다. 때마침 멩크스가 내다버린 캐리건을 타소니스 행성에서 포획했다. 캐리건은 테란 중에서도 사이오닉 파워가 극강인 우성 존재였다. 초월체는 그녀를 '자' 행성으로 보내 저그의 일원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다. 고치 상태의 캐리건은 멩크스와 레이너에게 텔레파시로 헬프 요청을 때리지만 그들은 너무 늦게 도착했다. 고치에서 깨어난 캐리건은 인간의 율리와 도덕에서 벗어나 진정한 저그의 일원으로 거듭난다. 이른바 칼날 여왕의 탄생이다.

### 초월체의 죽음

초월체는 캐리건의 서포트를 등에 업고 테란과 프로토스에 대한 공세를 강화한다. 한층 강성해진 저그 세력에 프로토스는 위기를 맞는다. 하지만 프로토스의 집정관 태사드라가 자신과 암흑 기사단의 예니저를 합선 간트리셔에 모은 후 초월체와 함께 저륙하면서 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그리고 캐리건은 초월체의 정신 지배에서 벗어난다.

### 캐리건의 저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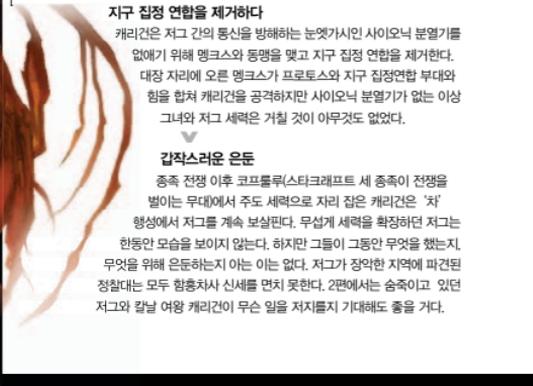
초월체가 죽고 남아 있는 정신체들이 합체해 새로운 초월체를 만들기 시작한다. 새로운 초월체가 등장하면 다시 풀마니 역할을 해야 하는 캐리건은 프로토스와 테란을 적절히 이용해 신생 초월체를 제거한다. 그녀는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는 저그 세력도 프로토스의 손을 빌려 멸망한다. 저그 세력은 온전히 칼날 여왕 캐리건의 손에 들어온다.

### 자구 집정 연합을 제거하다

캐리건은 저그 간의 통신을 방해하는 눈엣가시인 사이오닉 분열기를 없애기 위해 멩크스와 동맹을 맺고 자구 집정 연합을 제거한다. 대장 자리에 오른 멩크스가 프로토스와 자구 집정연합 부대와 힘을 합쳐 캐리건을 공격하지만 사이오닉 분열기가 없는 이상 그녀와 저그 세력은 거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 갑작스러운 은둔

종족 전쟁 이후 코프룰루스타크레프트 세 종족이 전쟁을 벌이는 무대에서 주도 세력으로 자리 잡은 캐리건은 '자' 행성에서 저그를 계속 보살핀다. 무성계 세력을 확장하던 저그는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위해 은둔하는지 이는 아는 없다. 저그가 장악한 지역에 파견된 정찰대는 모두 합종치사 신세를 면치 못한다. 2편에서는 숨죽이고 있던 저그와 칼날 여왕 캐리건이 무슨 일을 저지르지 기대해도 좋을 거다.





## 프로투스

### 최고의 영적 존재 프로투스

프로투스는 고도의 지성을 가진 외계 생명체다. 그들은 자신을 위협하는 자를 없애기 위해 오묘한 행성을 하나씩 초토화했다. 태만 연합의 행성에 프로투스 함대가 출몰해 급속스럽게 공격한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

### 집행관 테사다르

태만 연합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핵스가 오묘되지 않은 행성 타소니스에 저그 세력을 불러들이자 프로투스의 집행관 테사다르는 행성을 날려버리라는 대의회의 지시를 어기고 행성을 구하기 위해 자살 부대를 투입한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핵스의 방해 공작으로 저그의 손에 행성을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

### 암흑 기사 제라툴

암흑 기사단은 프로투스 종족을 지배하는 칼라의 규율에 종속되기를 거부한 종족이다. 개인의 자유 의지를 중요시하는 그들은 프로투스의 모습 아이어에서 추방당한 상태다. 하지만 저그의 정신체는 일반적인 공격으로 아무리 때려잡아봤자 초월체가 한 큐에 무효시킬 수 있다. 정신체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암흑 기사단의 강력한 워프 블레이드가 반드시 필요했다. 그래서 집행관 테사다르는 암흑 기사 제라툴과 손을 잡는다. 제라툴은 테사다르가 캐리건과 저그 세력의 발을 묶는 틈을 타서 저그의 정신체 중 하나를 암살하는 성과를 올린다. 하지만 암흑 기사와 손을 잡은 것은 이단으로 여긴 아이어 프로투스 대의회는 테사다르를 감옥에 가둔다.

### 저그의 습격

제라툴은 저그의 정신체를 제거하는 데 성공하지만 그 순간 초월체는 제라툴의 정신을 이끌어 프로투스의 모습 아이어의 위치를 확인한다. 초월체는 프로투스를 잡아먹기 위해 총공격을 감행한다. 테사다르의 희생으로 초월체는 제거되지만 남아 있는 저그 무리는 아이어 행성을 떠실신시키기 충분한 숫자였다. 아이어 프로투스는 자신들이 경멸시하던 암흑 기사단의 행성을 정화하기 위해 고대 유산을 작동한다.

### 캐리건의 등장

사쿠라스로 피신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저그 세력도 함께 밀려왔다. 그러나 레이(캐롬 오켄란이다)와 프로투스 부대가 차원 이동문을 막아서 피해를 최소화했다. 그들은 행성 내의 저그 세력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선 프로투스를 창조한 젤-나기의 유산을 이용해야 했다. 적들에 필요한 두 개의 수정 위치를 찾기 위해 고심하던 찰나 칼날 여왕 캐리건이 등장한다. 그녀 입장에서 자신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저그 세력은 없는 게 나았다. 프로투스는 캐리건의 도움으로 수정을 발견했고, 자신의 행성이 캐리건을 도와주는 알임을 알면서도 행성을 정화하기 위해 고대 유산을 작동한다.

### 죽장 라자갈의 죽음

테사다르와 함께 초월체는 제거했지만 저그는 또다시 새로운 초월체를 만들었다. 신성 초월체는 지구 집정 연합이 강력한 신성 인공지능 제위탄 상태였다. 하지만 초월체가 잠서 캐어나 자신을 지배하는 상황을 원치 않던 캐리건은 아이어 프로투스의 죽장

라자갈을 납치해서 제라툴에게 초월체를 제거하라고 협박한다. 초월체는 프로투스 입장에서든 까다로운 적이나 제라툴은 초월체를 제거한 후 라자갈을 구출하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라자갈은 이미 캐리건의 노예가 되어 있었다. 암흑 기사답게 제라툴은 노예로 살 바엔 명예롭게 죽으려라 라자갈에게 칼침을 선물한다. 캐리건은 제라툴과 암흑 기사단을 포위해 일망타진할 수 있었지만 제라툴을 일무려 놓아준다. 평생 저존삼이 상한 상태로 괴로워하며 지내라고 말한다.

### 프로투스 재통합, 그리고 제라툴

아이어 프로투스의 생존자와 암흑 기사단은 서로 협력하며 젤-나기의 기술을 연구하면서 저그 전쟁에 필요한 기술 진보를 이룩한다. 그리고 제라툴은 지도에도 잡히지 않는 위성에서 우연히 저그와 프로투스의 변종을 발견하고 혼란스러워한다. 이 변종 앞에 나타난 시미르 듀란은 제라툴에게 1천여 개의 다른 행성에 이들 변종이 흩어져 있고, 자신은 캐리건 따윈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력한 존재를 섬기고 있다고 자랑한다. 오지랖 넓은 제라툴은 곤혹스러워하며 이 상황이 초래할 결과를 조사하기 위해 우주를 떠돌아다닌다. 과연 제라툴은 이 기괴한 생명체를 창조한 이들에 대한 심마리를 찾고 비밀을 풀 수 있을까? 2편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 SUPER HOLIC

## 직업 체험 3종 세트

현실에서 못다 이룬 꿈을 게임에서도 이루길 바란다. BY 김광현

### I WANT YOU 필수 게임 리스트

내 게임기가 널 원하고 있다. 하이하이랑



로켓 나이트  
PS3  
발매일 5월

메가 드라이브, 슈퍼패미콤 시절의 추억을 되살려주는 게임이다. 이런 게임을 볼 때면 게이머가 원하는 건 순수한 재미지. 출제에는 결미가 아니라 사상을 새삼 깨닫게 된다. 하지만 난이도는 만만치 않은 편이나 선부르게 겁먹지 말고 넘어가라.



상황 파악을 프로야구 2010  
PS3/XBOX  
발매일 7월

아구를 좋아하는 게이머라면 이는 때문에 일본 오덕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다. <상황 파악을 프로야구 2010>는 일본 현역 야구 선수의 기록을 바탕으로 능력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실감 나는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자빠 붓대 마린스의 김광영이 내린 연거푸 홈런을 획득할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거다.



슈퍼마리오 갤럭시 2  
Wii  
발매일 미정

Wii를 사서 <슈퍼마리오 갤럭시 2>를 즐긴다면 기기 값 한번은 뽑은 거다. 이런 나이지 절반까지 떨어 막을 쳐라. <슈퍼마리오 갤럭시 2>가 발매되면 절로. 줄거리, 그리고 각종하러. 그러면 충분하다.



아이언맨 2  
NDS  
발매일 미정

어린 시절 우리를 불타오르게 만들었던 게임 <운두라>를 떠올리게 한다. 콘솔용으로 나와 향연했다는 점수는 높은 (아이언맨 2) 게임보단 닌텐도 DS 쪽이 훨씬 기대된다. 그래서 작은 NDS가 먼저 큰 콘솔 게임보다 낫다고 말하는 거다.



### 1 심즈 3 : 달콤살벌 커리어

취미가 자유로운 심즈 세상

2009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PC 게임 <심즈 3>의 두 번째 확장팩이 발매된다. 첫 번째 확장팩이 프랑스, 이집트 등 세계 여행을 즐기는 데 초점을 맞췄던 이번엔 심(캐릭터)들

의 직장 생활을 체험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당선이 현실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직선별레라도 <심즈 3: 달콤살벌 커리어>에서는 의사, 소방관, 탐정도 될 수 있다. 막이 같은 의사가 되어 환자를 살릴지처럼 사용해도, 소방관이 되어 피해자의 집을 박살내도 괜찮다. 게임에서도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나! 스타일리스트, 탐정, 타투 기술자, 피아니스트, 발명가, 조각가 등 다양한 직업이 추가됐다. 요즘 세상에서 직장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고 이직하기만 코끼리가 바늘구멍에 들어갈 만큼 힘들다. 이번 생에서 당신과 연이 닿지 않을 직업을 <심즈 3: 달콤살벌 커리어>에서도 살짝 경험해보자. 한 줄 요약 <심즈 3>가 있다면 이 확장팩은 필수! 구(매다).

기준	PC
제작사	EA 코리아
장르	시뮬레이션
발매일	6월 예정
가격	미정



### 2 레드 레드 리뎀션

<GTA>를 좋아하는 사람을 위한 게임

도상에서 난장을 끼는 <GTA>와 달리 <레드 레드 리뎀션>의 무대는 서부시대다. 무법자 출신의 주인공이 마음을 고쳐먹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정부 요원이 가족을 인질로 잡고 도망

니로 부러 먹는다. 그놈의 가족이 편지 주인공은 어쩔 수 없이 한술밥 먹던 캠프도 냉큼 접어들고는 그나마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게임 구성은 <GTA>와 크게 다르지 않다. 굵직한 메인 미션과 자유로 높은 서브 미션을 골라서 즐기면 된다. 데드아이 시스템이 인상적인데 주인공은 시간을 일시적으로 늦게 만들어 상대방을 해두거나 연속 공격을 시도할 수 있다. <메트릭스>에서 주인공 리오가 총알을 피하는 모습을 연상하면 이해가 쉽다. 주인공의 행동은 <GTA> 랍치게 과격한데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 아마 석양을 담은 황야의 풍경에 남자의 로망이 담겨있기 때문이겠지. 땀!

기준	MULTI
제작사	락스타 게임즈
장르	심리 액션 스릴러
발매일	5월 21일
가격	59555 원



### 3 앨런 웨이크

사람의 '심리'를 건드리는 액션 스릴러

콘솔 게임에서 뽑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그래픽을 무가심! 심리 액션 스릴러라는 새로운 장르에 도전했다. 앨런 웨이크는 당시의 분신이 어둠 속에서 '플래시' 하나 들고 용을 쓰

며 위기를 헤쳐나가는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다. 어드벤처 게임이지만 한글화된 작품이라 스토리에 감성 이입하기는 수월하다. 게임 속 미션은 미드 에피소드처럼 꾸밈기 때문에 게임 자체가 한 편의 시리즈 드라마를 보는 착각이 들기도 한다. <로스트>나 <피델> 스타일링의 미드를 좋아하는 게이머라면 플레이해볼 만한 게임이다. 한 줄 요약 미드가 게임 속에 들어있는데 반값에도 한몫까지 되었다.

기준	PS3
제작사	스퀘어 에닉스
장르	RPG
발매일	5월 예정
가격	미정



# 프로야구 매니저 강상용 개발팀장

월드컵? 프로야구가 그 공놀이보다 훨씬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었다.  
 by 김성현 IMAGES NTRTEV

## BASEBALL ONLINE

프로야구 매니저  
 당산도 프로야구단의 구단주가 될 수 있다.

매 경기 열을 올리는 야구 게임과 달리 구단주 입장에서 팀을 관리하는 프로 야구 구단 시뮬레이션 게임. 비록 직장도 하루에 10분 정도만 구단 관리에 두자면 나머지는 훌륭한 컴퓨터가 알아서 시뮬레이션을 돌린다. KBO에 등록된 2000년대 선수 정보를 제공하니 야구 팬이라면 감성 이입도 쉽다. 열혈 야구 팬이라면 한 번 도전해볼 적이다.

야구 게임을 만든 사람인데, 설마 야구를 싫어하는 건 아니겠지?

불사조 박철순 선수의 열혈 팬이다. OB 베이스(현 두산 베이스) 유니폼을 입고 등교할 정도로 야구러인 한창했다. 하지만 야구 게임을 만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세가의 비디오 게임 <구단주가 되자>를 기본으로 만들었다. 오리지널 게임인 줄 알았는데 살짝 실망이다. 세가의 시뮬레이션 도너우와 엔트리브 소프트의 온라인 개발력을 합친 결과물이다. 두 게임은 리그 진행 방식, 도전자제, 유저 편의 기능에서 차이가 난다. 컴퓨터 우측 하단 단축 버튼으로 게임을 내려둘 수 있는 트릭이 기능은 만들었더니 직장인 유저들이 크게 기뻐했다(웃음).

<프로야구 매니저>의 승급 제도도 인상적이다. 각 리그의 1~4위 팀만 상위 리그로 승격하는 피드 눈물도 없는 제도다.

정통 야구의 풀을 그대로 따르려 한다. 승부의 세계에서 모두가 늘 질할 순 없는 법이다. 승격을 위해 팀 역량을 눈앞의 승리에 올린할 수도 있지만 장기 레이스를 고려해 승급을 포기하고 선수를 육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선수의 능력치를 높이는 아이템은 게임의 재미를 반감시킨다. 이런 아이템을 남발한 게임치고 질되는 꼴을 못 봤다.

능력치를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는 스킬 아이템은 존재한다. 하지만 현실(현금질)이 아니라 게임 머니로도 습득 가능하다. 스킬이 많아도 선수를 꾸준히 출전시키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 앞으로 다양한 아이템이 등장하겠지만 게임에 재미를 더하는 수준이지, 밸런스를 망가뜨리는 건 없을 거다.

자신만의 캐릭터를 육성하는 시스템을 추가할 생각은 없나?

같이 쓴 선수 1~2명을 육성하면 좋은 속성을 갖게 해주거나 본인의 캐릭터를 직접 육성하는 시스템을 고려 중이다. 아니면 코치를 기용해 지정한 선수를 육성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아이패드도 게임을 구동하는 모습이 화제가 됐다. <프로야구 매니저> 유저가 아이패드의 원격 제어 프로그램으로 집에 있는 컴퓨터를 조종해 게임을 즐긴 영상이었다. 아쉽지만 아이폰, 아이패드용 응용 프로그램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게임을 시작하는 유저에게 팁을 하나 준다든? 참고로 MAXIM 독자는 현실과 거리가 없다는 사실을 미리 밝혀둔다.

승부를 빨리 하기 위해 초반부터 작전 카드를 사용하는 유저가 많다. 정식 리그는 108경기를 치러야 한다. 길게 보고 투자하기 바란다.

MAXIM에서 만나고 싶은 선수와 치어리더를 말해달라. 치어리더는 중북 답변해도 이해하겠다.

이대호 선수. 등직한 채에서 나오는 홈런이 인상적이다. 투수에서 타자로 전환한 이유도 궁금하다. 치어리더는 당연히 롯데의 그녀들이 최고!



강상용 개발팀장이 말한다!

vs 풋볼 매니저  
 유럽에서 과부 제조라고 불리는 약의 게임이다. <프로야구 매니저>는 그만큼은 아니지만 일반 유저도 시군에 한번 접속해서 팀 성적을 확인해야 직성이 풀릴 정도의 중독성은 가지고 있다.

vs 도걸  
 우리 유저가 대결에 초점을 맞췄다. <오군>과 달리 커뮤니티도 잘 갖춰져서 리그에 참여하지 않아도 지루하지 않다. <오군>은 매니저가 생애 가장 선수에 대한 정보량이 풍부하다. <프로야구 매니저>는 일반 야구 팬을 상대로 한 게임이라 그만큼 자세한 건 없다.



#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영화들

올여름 당신의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할 영화들을 모았다.

물론 그녀만 옆에 있으면 심장이 터져나와 하늘로 솟구치는 호러를 연출할 수도 있지만 말이다.

## 악마를 보았다

감독 김지운

출연 이병헌, 최민식

심장 반응 이병헌 목소리에 정신이 팔린 그녀 모습에 당시 얼굴이 벌겍게 또는 허영게 질릴 것이 예상 된다. 하지만 카는 그보다 당신이 클 가능성이 높으니 곧 심장이 안정을 찾는다.

일단 김지운+최민식+이병헌의 이름값에 확실히 믿음이 간다. 근데 우리만 믿는 게 아닌가 보다. <놈놈놈>을 배급했던 ARPG가 지난 5월 13일 칸 영화제 마켓에서 프로모션 영상도 안 보고 판권을 구매했다. ARPG 대표는 "김지운 감독이 만든 스릴러라면 뭔가 다른 거라 기대한다" 고 말했다. 살인을 즐기는 연쇄살인마(최민식 분)와 그에게 악몬녀를 읽고 복수하려는 남자(이병헌 분)의 광기어린 대결이 줄거리다.

올여름 개봉 예정



## 여대생 기숙사

감독 스튜어트 헨들러

출연 브리나 에비건, 레이 파이피스, 루머 윌리스, 제이미 정

심장 반응 뻘뻘한 스토리에 놓여진 심장박동이 비명을 질러대는 미녀들의 모습에 격한 컴프질을 시작한다.

"친구 매간이 실종된 후 1년 만에 열린 졸업 파티 날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다섯 명의 친구들. 우정의 이름으로 숨겨온 그녀의 비밀은 이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데... 1년 전 사건의 비밀은 무엇인가!" 라고 적힌 영화 시놉시스는 진부하기 짝이 없다. 하지만 그녀들의 핫 보디는 진보했으니 걱정하지 마라.

6월 24일 개봉



## 고死 두 번째 이야기: 교생실습

감독 유선동

출연 김수로, 황정음, 윤시운, 티아라 지연, 박은빈 외

심장 반응 교복을 입은 지연의 모습에 심장이 두근두근. 누구 죽이려고 작정했나! 2008년의 <고死: 피의 중간고사>의 후속작이 개봉을 앞두고 있다. 과거 선생에서 진짜 선생님이므로, 게다가 주연까지 쾌한 황정음의 연기가 기대되면서도 불안하다. 하지만 우리 지연이가 나오니 닥치고 개봉관 사수!

7월 말 개봉 예정



## 축구의 신: 마라도나

감독 에밀 쿠스트리차

출연 디에고 마라도나, 에밀 쿠스트리차

**심장 반을 잃다** 축구다. 그리고 영웅이다. 심장이 별명별명하지 않나

2010년 한국인에게 마라도나는 월드컵 본선 경기에서 맞붙을 적군의 수장이다. 하지만 그 이전에 마라도나는 진짜 '신의 손'이 달린 축구의 신이자 천재였다. 이 영화는 국가적 영웅이자 전 세계의 미움과 사랑을 동시에 받은 축구 스타 마라도나에 대한 다큐멘터리다.

6월 3일 개봉



## 유형 작가

감독 로만 폴란스키

출연 이완 맥그리거, 피아스 브로스넌, 킴 캐트럴, 올리비아 윌리엄스

**심장 반을 관철**은 스릴러 영화를 만난 즐거움에 심장이 팍팍팍.

이 작품에서 유형 작가란 유명인의 자서전을 대패하는 작가다. 전 영국 수상의 자서전을 쓰게 된 유형 작가가 우연히 수상의 예전 대패 작가가 사망했음을 알게 되고 그 몸 둘러싼 국가적 음모에 다가간다는 내용의 정통 스릴러.

6월 3일 개봉



## WORLD OF WAR MOVIES

### 진짜 전쟁 같은 전쟁 영화

호국 보훈의 달이니까

자유의 목소리(1999)

필리핀에서의 활동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 지면서 감독은 전 재산을 담보로 잡아야 했고 천재적인 달인이 넘는 맞을 떠난게 되었다. 날마다 그의 편은 아니었다. 허리 케인이 갠다란 세트장은 초조화됐고, 놀이지는 영화 스케줄 때문에 마약에 빠진 사람도 생겼다.

플래툰(1996)

촬영 하하를 번기 전까지 모든 출연 배우는 14일간 필리핀의 군용 캠프에 갇혀서 군인처럼 머리를 깎고 군용 음식을 먹으며 하하 정에서는 샤워도 할 수 없었다. 심지어 정글에서 쉬침하고 들어가면서 야간 경계 근무까지 했다. 감독은 그 상황을 안락했겠지

아버지의 거짓말(2006)

이 영화 감독인 플레트 아스트우드를 향해 스파이 리 감독은 "저 대담해 티 오지마에서 전사한 흑인은 그리지 말라"며 강한 비난을 날렸다. 아스트우드 감독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이 스타우드 음에게 '생난 훈은이'라고 고수했다.

포화소(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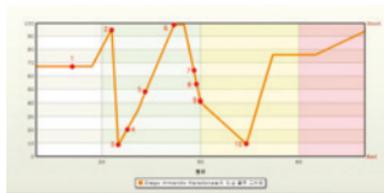
한국전쟁의 학도병은 그린 영화 카리스마와 완벽함 몸의 곁합체 차승연. 몸 하연 안 해지는 권상우, 교복 입고 흥든 아이들 최승현(백명 팀) 나온다. 그녀가 이들을 극찬하며 힘을 질질 흘리는 순간 당시 마음 속에 (사랑과 전쟁)급 생자유의 전장이 펼쳐진다.



## SOCCER HERO

### 마라도나의 인생 그래프

적을 알고 나을 알아야 백년백상 2010년 월드컵 16강 진출을 영웅하며 그의 최근 인생 그래프가 막강이길 기대해본다. 영화 개봉과 겸사겸사.



1. 5세에 대표팀 합류, 19세에 세계 청소년 선수권에서 6선 진출으로 우승.
2. 1982년 아시모 신기록을 세우며 FC 바르셀로나로 이적.
3. 코파인 시제 스페인 월드컵 알아내기 부상 집단 난투극 등으로 추락해 퇴장.
4. 1986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신의 손' 드림과 함께 경기 5골 작성. 전설을 새로 쓰며 바르셀로나를 치고 올림피아. 다음 해 소속팀 나폴리가 클럽 역사상 최초로 리그 우승.
5. 1994년 월드컵 악몽 피동. 인생 그래프에 하이라이프가 찾아왔다. 어쨌든 이상하게 본인 마음은 편했음지도.
6. 2000년, 2004년 심장 때문에 죽을 뻔 한. 2005년과 2006년과 2007년과 2008년과 2009년과 2010년과 2011년과 2012년과 2013년과 2014년과 2015년과 2016년과 2017년과 2018년과 2019년과 2020년과 2021년과 2022년과 2023년과 2024년과 2025년과 2026년과 2027년과 2028년과 2029년과 2030년과 2031년과 2032년과 2033년과 2034년과 2035년과 2036년과 2037년과 2038년과 2039년과 2040년과 2041년과 2042년과 2043년과 2044년과 2045년과 2046년과 2047년과 2048년과 2049년과 2050년과 2051년과 2052년과 2053년과 2054년과 2055년과 2056년과 2057년과 2058년과 2059년과 2060년과 2061년과 2062년과 2063년과 2064년과 2065년과 2066년과 2067년과 2068년과 2069년과 2070년과 2071년과 2072년과 2073년과 2074년과 2075년과 2076년과 2077년과 2078년과 2079년과 2080년과 2081년과 2082년과 2083년과 2084년과 2085년과 2086년과 2087년과 2088년과 2089년과 2090년과 2091년과 2092년과 2093년과 2094년과 2095년과 2096년과 2097년과 2098년과 2099년과 2100년과 2101년과 2102년과 2103년과 2104년과 2105년과 2106년과 2107년과 2108년과 2109년과 2110년과 2111년과 2112년과 2113년과 2114년과 2115년과 2116년과 2117년과 2118년과 2119년과 2120년과 2121년과 2122년과 2123년과 2124년과 2125년과 2126년과 2127년과 2128년과 2129년과 2130년과 2131년과 2132년과 2133년과 2134년과 2135년과 2136년과 2137년과 2138년과 2139년과 2140년과 2141년과 2142년과 2143년과 2144년과 2145년과 2146년과 2147년과 2148년과 2149년과 2150년과 2151년과 2152년과 2153년과 2154년과 2155년과 2156년과 2157년과 2158년과 2159년과 2160년과 2161년과 2162년과 2163년과 2164년과 2165년과 2166년과 2167년과 2168년과 2169년과 2170년과 2171년과 2172년과 2173년과 2174년과 2175년과 2176년과 2177년과 2178년과 2179년과 2180년과 2181년과 2182년과 2183년과 2184년과 2185년과 2186년과 2187년과 2188년과 2189년과 2190년과 2191년과 2192년과 2193년과 2194년과 2195년과 2196년과 2197년과 2198년과 2199년과 2200년과 2201년과 2202년과 2203년과 2204년과 2205년과 2206년과 2207년과 2208년과 2209년과 2210년과 2211년과 2212년과 2213년과 2214년과 2215년과 2216년과 2217년과 2218년과 2219년과 2220년과 2221년과 2222년과 2223년과 2224년과 2225년과 2226년과 2227년과 2228년과 2229년과 2230년과 2231년과 2232년과 2233년과 2234년과 2235년과 2236년과 2237년과 2238년과 2239년과 2240년과 2241년과 2242년과 2243년과 2244년과 2245년과 2246년과 2247년과 2248년과 2249년과 2250년과 2251년과 2252년과 2253년과 2254년과 2255년과 2256년과 2257년과 2258년과 2259년과 2260년과 2261년과 2262년과 2263년과 2264년과 2265년과 2266년과 2267년과 2268년과 2269년과 2270년과 2271년과 2272년과 2273년과 2274년과 2275년과 2276년과 2277년과 2278년과 2279년과 2280년과 2281년과 2282년과 2283년과 2284년과 2285년과 2286년과 2287년과 2288년과 2289년과 2290년과 2291년과 2292년과 2293년과 2294년과 2295년과 2296년과 2297년과 2298년과 2299년과 2300년과 2301년과 2302년과 2303년과 2304년과 2305년과 2306년과 2307년과 2308년과 2309년과 2310년과 2311년과 2312년과 2313년과 2314년과 2315년과 2316년과 2317년과 2318년과 2319년과 2320년과 2321년과 2322년과 2323년과 2324년과 2325년과 2326년과 2327년과 2328년과 2329년과 2330년과 2331년과 2332년과 2333년과 2334년과 2335년과 2336년과 2337년과 2338년과 2339년과 2340년과 2341년과 2342년과 2343년과 2344년과 2345년과 2346년과 2347년과 2348년과 2349년과 2350년과 2351년과 2352년과 2353년과 2354년과 2355년과 2356년과 2357년과 2358년과 2359년과 2360년과 2361년과 2362년과 2363년과 2364년과 2365년과 2366년과 2367년과 2368년과 2369년과 2370년과 2371년과 2372년과 2373년과 2374년과 2375년과 2376년과 2377년과 2378년과 2379년과 2380년과 2381년과 2382년과 2383년과 2384년과 2385년과 2386년과 2387년과 2388년과 2389년과 2390년과 2391년과 2392년과 2393년과 2394년과 2395년과 2396년과 2397년과 2398년과 2399년과 2400년과 2401년과 2402년과 2403년과 2404년과 2405년과 2406년과 2407년과 2408년과 2409년과 2410년과 2411년과 2412년과 2413년과 2414년과 2415년과 2416년과 2417년과 2418년과 2419년과 2420년과 2421년과 2422년과 2423년과 2424년과 2425년과 2426년과 2427년과 2428년과 2429년과 2430년과 2431년과 2432년과 2433년과 2434년과 2435년과 2436년과 2437년과 2438년과 2439년과 2440년과 2441년과 2442년과 2443년과 2444년과 2445년과 2446년과 2447년과 2448년과 2449년과 2450년과 2451년과 2452년과 2453년과 2454년과 2455년과 2456년과 2457년과 2458년과 2459년과 2460년과 2461년과 2462년과 2463년과 2464년과 2465년과 2466년과 2467년과 2468년과 2469년과 2470년과 2471년과 2472년과 2473년과 2474년과 2475년과 2476년과 2477년과 2478년과 2479년과 2480년과 2481년과 2482년과 2483년과 2484년과 2485년과 2486년과 2487년과 2488년과 2489년과 2490년과 2491년과 2492년과 2493년과 2494년과 2495년과 2496년과 2497년과 2498년과 2499년과 2500년과 2501년과 2502년과 2503년과 2504년과 2505년과 2506년과 2507년과 2508년과 2509년과 2510년과 2511년과 2512년과 2513년과 2514년과 2515년과 2516년과 2517년과 2518년과 2519년과 2520년과 2521년과 2522년과 2523년과 2524년과 2525년과 2526년과 2527년과 2528년과 2529년과 2530년과 2531년과 2532년과 2533년과 2534년과 2535년과 2536년과 2537년과 2538년과 2539년과 2540년과 2541년과 2542년과 2543년과 2544년과 2545년과 2546년과 2547년과 2548년과 2549년과 2550년과 2551년과 2552년과 2553년과 2554년과 2555년과 2556년과 2557년과 2558년과 2559년과 2560년과 2561년과 2562년과 2563년과 2564년과 2565년과 2566년과 2567년과 2568년과 2569년과 2570년과 2571년과 2572년과 2573년과 2574년과 2575년과 2576년과 2577년과 2578년과 2579년과 2580년과 2581년과 2582년과 2583년과 2584년과 2585년과 2586년과 2587년과 2588년과 2589년과 2590년과 2591년과 2592년과 2593년과 2594년과 2595년과 2596년과 2597년과 2598년과 2599년과 2600년과 2601년과 2602년과 2603년과 2604년과 2605년과 2606년과 2607년과 2608년과 2609년과 2610년과 2611년과 2612년과 2613년과 2614년과 2615년과 2616년과 2617년과 2618년과 2619년과 2620년과 2621년과 2622년과 2623년과 2624년과 2625년과 2626년과 2627년과 2628년과 2629년과 2630년과 2631년과 2632년과 2633년과 2634년과 2635년과 2636년과 2637년과 2638년과 2639년과 2640년과 2641년과 2642년과 2643년과 2644년과 2645년과 2646년과 2647년과 2648년과 2649년과 2650년과 2651년과 2652년과 2653년과 2654년과 2655년과 2656년과 2657년과 2658년과 2659년과 2660년과 2661년과 2662년과 2663년과 2664년과 2665년과 2666년과 2667년과 2668년과 2669년과 2670년과 2671년과 2672년과 2673년과 2674년과 2675년과 2676년과 2677년과 2678년과 2679년과 2680년과 2681년과 2682년과 2683년과 2684년과 2685년과 2686년과 2687년과 2688년과 2689년과 2690년과 2691년과 2692년과 2693년과 2694년과 2695년과 2696년과 2697년과 2698년과 2699년과 2700년과 2701년과 2702년과 2703년과 2704년과 2705년과 2706년과 2707년과 2708년과 2709년과 2710년과 2711년과 2712년과 2713년과 2714년과 2715년과 2716년과 2717년과 2718년과 2719년과 2720년과 2721년과 2722년과 2723년과 2724년과 2725년과 2726년과 2727년과 2728년과 2729년과 2730년과 2731년과 2732년과 2733년과 2734년과 2735년과 2736년과 2737년과 2738년과 2739년과 2740년과 2741년과 2742년과 2743년과 2744년과 2745년과 2746년과 2747년과 2748년과 2749년과 2750년과 2751년과 2752년과 2753년과 2754년과 2755년과 2756년과 2757년과 2758년과 2759년과 2760년과 2761년과 2762년과 2763년과 2764년과 2765년과 2766년과 2767년과 2768년과 2769년과 2770년과 2771년과 2772년과 2773년과 2774년과 2775년과 2776년과 2777년과 2778년과 2779년과 2780년과 2781년과 2782년과 2783년과 2784년과 2785년과 2786년과 2787년과 2788년과 2789년과 2790년과 2791년과 2792년과 2793년과 2794년과 2795년과 2796년과 2797년과 2798년과 2799년과 2800년과 2801년과 2802년과 2803년과 2804년과 2805년과 2806년과 2807년과 2808년과 2809년과 2810년과 2811년과 2812년과 2813년과 2814년과 2815년과 2816년과 2817년과 2818년과 2819년과 2820년과 2821년과 2822년과 2823년과 2824년과 2825년과 2826년과 2827년과 2828년과 2829년과 2830년과 2831년과 2832년과 2833년과 2834년과 2835년과 2836년과 2837년과 2838년과 2839년과 2840년과 2841년과 2842년과 2843년과 2844년과 2845년과 2846년과 2847년과 2848년과 2849년과 2850년과 2851년과 2852년과 2853년과 2854년과 2855년과 2856년과 2857년과 2858년과 2859년과 2860년과 2861년과 2862년과 2863년과 2864년과 2865년과 2866년과 2867년과 2868년과 2869년과 2870년과 2871년과 2872년과 2873년과 2874년과 2875년과 2876년과 2877년과 2878년과 2879년과 2880년과 2881년과 2882년과 2883년과 2884년과 2885년과 2886년과 2887년과 2888년과 2889년과 2890년과 2891년과 2892년과 2893년과 2894년과 2895년과 2896년과 2897년과 2898년과 2899년과 2900년과 2901년과 2902년과 2903년과 2904년과 2905년과 2906년과 2907년과 2908년과 2909년과 2910년과 2911년과 2912년과 2913년과 2914년과 2915년과 2916년과 2917년과 2918년과 2919년과 2920년과 2921년과 2922년과 2923년과 2924년과 2925년과 2926년과 2927년과 2928년과 2929년과 2930년과 2931년과 2932년과 2933년과 2934년과 2935년과 2936년과 2937년과 2938년과 2939년과 2940년과 2941년과 2942년과 2943년과 2944년과 2945년과 2946년과 2947년과 2948년과 2949년과 2950년과 2951년과 2952년과 2953년과 2954년과 2955년과 2956년과 2957년과 2958년과 2959년과 2960년과 2961년과 2962년과 2963년과 2964년과 2965년과 2966년과 2967년과 2968년과 2969년과 2970년과 2971년과 2972년과 2973년과 2974년과 2975년과 2976년과 2977년과 2978년과 2979년과 2980년과 2981년과 2982년과 2983년과 2984년과 2985년과 2986년과 2987년과 2988년과 2989년과 2990년과 2991년과 2992년과 2993년과 2994년과 2995년과 2996년과 2997년과 2998년과 2999년과 3000년과 3001년과 3002년과 3003년과 3004년과 3005년과 3006년과 3007년과 3008년과 3009년과 3010년과 3011년과 3012년과 3013년과 3014년과 3015년과 3016년과 3017년과 3018년과 3019년과 3020년과 3021년과 3022년과 3023년과 3024년과 3025년과 3026년과 3027년과 3028년과 3029년과 3030년과 3031년과 3032년과 3033년과 3034년과 3035년과 3036년과 3037년과 3038년과 3039년과 3040년과 3041년과 3042년과 3043년과 3044년과 3045년과 3046년과 3047년과 3048년과 3049년과 3050년과 3051년과 3052년과 3053년과 3054년과 3055년과 3056년과 3057년과 3058년과 3059년과 3060년과 3061년과 3062년과 3063년과 3064년과 3065년과 3066년과 3067년과 3068년과 3069년과 3070년과 3071년과 3072년과 3073년과 3074년과 3075년과 3076년과 3077년과 3078년과 3079년과 3080년과 3081년과 3082년과 3083년과 3084년과 3085년과 3086년과 3087년과 3088년과 3089년과 3090년과 3091년과 3092년과 3093년과 3094년과 3095년과 3096년과 3097년과 3098년과 3099년과 3100년과 3101년과 3102년과 3103년과 3104년과 3105년과 3106년과 3107년과 3108년과 3109년과 3110년과 3111년과 3112년과 3113년과 3114년과 3115년과 3116년과 3117년과 3118년과 3119년과 3120년과 3121년과 3122년과 3123년과 3124년과 3125년과 3126년과 3127년과 3128년과 3129년과 3130년과 3131년과 3132년과 3133년과 3134년과 3135년과 3136년과 3137년과 3138년과 3139년과 3140년과 3141년과 3142년과 3143년과 3144년과 3145년과 3146년과 3147년과 3148년과 3149년과 3150년과 3151년과 3152년과 3153년과 3154년과 3155년과 3156년과 3157년과 3158년과 3159년과 3160년과 3161년과 3162년과 3163년과 3164년과 3165년과 3166년과 3167년과 3168년과 3169년과 3170년과 3171년과 3172년과 3173년과 3174년과 3175년과 3176년과 3177년과 3178년과 3179년과 3180년과 3181년과 3182년과 3183년과 3184년과 3185년과 3186년과 3187년과 3188년과 3189년과 3190년과 3191년과 3192년과 3193년과 3194년과 3195년과 3196년과 3197년과 3198년과 3199년과 3200년과 3201년과 3202년과 3203년과 3204년과 3205년과 3206년과 3207년과 3208년과 3209년과 3210년과 3211년과 3212년과 3213년과 3214년과 3215년과 3216년과 3217년과 3218년과 3219년과 3220년과 3221년과 3222년과 3223년과 3224년과 3225년과 3226년과 3227년과 3228년과 3229년과 3230년과 3231년과 3232년과 3233년과 3234년과 3235년과 3236년과 3237년과 3238년과 3239년과 3240년과 3241년과 3242년과 3243년과 3244년과 3245년과 3246년과 3247년과 3248년과 3249년과 3250년과 3251년과 3252년과 3253년과 3254년과 3255년과 3256년과 3257년과 3258년과 3259년과 3260년과 3261년과 3262년과 3263년과 3264년과 3265년과 3266년과 3267년과 3268년과 3269년과 3270년과 3271년과 3272년과 3273년과 3274년과 3275년과 3276년과 3277년과 3278년과 3279년과 3280년과 3281년과 3282년과 3283년과 3284년과 3285년과 3286년과 3287년과 3288년과 3289년과 3290년과 3291년과 3292년과 3293년과 3294년과 3295년과 3296년과 3297년과 3298년과 3299년과 3300년과 3301년과 3302년과 3303년과 3304년과 3305년과 3306년과 3307년과 3308년과 3309년과 3310년과 3311년과 3312년과 3313년과 3314년과 3315년과 3316년과 3317년과 3318년과 3319년과 3320년과 3321년과 3322년과 3323년과 3324년과 3325년과 3326년과 3327년과 3328년과 3329년과 3330년과 3331년과 3332년과 3333년과 3334년과 3335년과 3336년과 3337년과 3338년과 3339년과 3340년과 3341년과 3342년과 3343년과 3344년과 3345년과 3346년과 3347년과 3348년과 3349년과 3350년과 3351년과 3352년과 3353년과 3354년과 3355년과 3356년과 3357년과 3358년과 3359년과 3360년과 3361년과 3362년과 3363년과 3364년과 3365년과 3366년과 3367년과 3368년과 3369년과 3370년과 3371년과 3372년과 3373년과 3374년과 3375년과 3376년과 3377년과 3378년과 3379년과 3380년과 3381년과 3382년과 3383년과 3384년과 3385년과 3386년과 3387년과 3388년과 3389년과 3390년과 3391년과 3392년과 3393년과 3394년과 3395년과 3396년과 3397년과 3398년과 3399년과 3400년과 3401년과 3402년과 3403년과 3404년과 3405년과 3406년과 3407년과 3408년과 3409년과 3410년과 3411년과 3412년과 3413년과 3414년과 3415년과 3416년과 3417년과 3418년과 3419년과 3420년과 3421년과 3422년과 3423년과 3424년과 3425년과 3426년과 3427년과 3428년과 3429년과 3430년과 3431년과 3432년과 3433년과 3434년과 3435년과 3436년과 3437년과 3438년과 3439년과 34

# BIONIC WOMAN

##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아찔한 진화를 꿈꾸는 애기 엄마 BY 김상민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BIONIC>  
SONY MUSIC

### ROCK SPRIT

뮤직 페스티벌  
...이라고 쓰고, 록 페스티벌이라고 읽는다.



아여서 신나게 머리 흔들고 관객끼리 몸통 맞치기를 하며 즐기는 록 음악만 한 게 없다. 대부분 뮤직 페스티벌이 록 음악으로도 베풀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6월 이후 덩실 덩실 만한 뮤직 페스티벌은 MAMMOI 일라주겠다. 눈 크게 뜨고 읽어보도록!

### 2010 대한민국 라이브 뮤직 타임 투 록 페스티벌

날짜 6월 4~5일  
장소 서울 한강 난지 공원  
특징 도심 속에서 록 스파임을 느낄 기회다.  
장점 돈 많은 영적 미디어 주회 유명한 우리 나라 록 밴드 총출동.  
단점 야구 록 밴드 라인업. 이걸 뭐임?

###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

날짜 7월 30일~8월 1일  
장소 지산 프로스트 스키 리조트  
특징 우라노라 록 페스티벌이라고 믿고 싶을 정도로 라인업을 자랑한다.  
장점 해외 유명 록 밴드를 전라지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 우라노라 뮤직시선도 당성과 함께 배운 배미러 편신.  
단점 불의동성과 록 페스티벌의 공통점 중 하나인 열망.

###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날짜 7월 23~25일  
장소 인천 드림타워  
특징 지산 록 페스티벌과 찾아지기 전만 해도 우라노라 최고의 록 페스티벌이었다.  
장점 그동안 쌓아놓은 인지도, 캐주얼한 공연 환경.  
단점 예전만 못했어이라고 쓰고 지산보다 약한 록 페스티벌 라인업.

### LIVE CONCERT

이승철의 오케스트라 콘서트  
라이브 황제의 명품 콘서트  
티켓은 운으로 노겨래  
일시: 2010년 6월 5일  
장소: 잠실 주경기장



그가 옛날 얼굴로 '30대'를 부른 지 벌써 25년이 흘렀다.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대중 앞에서 노래하는 라이브의 황제가 25주년 기념 콘서트로 팬들과 함께할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콘서트는 6012 오케스트라가 무대에 함께하는 그간 전례가 없었던 스페셜한 규모를 자랑한다. 격한 무대에도 응징 없이 놀자라는 라이브 황제의 생애를 감상할 좋은 기회나 그의 팬이라면 이번 콘서트를 놓치지 말자.

지금 팝 음악계에서 가장 핫한 가수를 1명만 고르라면 레디디가 될 거다. 파격적인 무대 의상과 퍼포먼스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역시 만만치 않다. 순진한 소녀였던 그녀가 2002년 내놓은 음반 <Stripped>에서 할렘은 모습으로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받은 충격은 지금의 레디디가기를 가뿐히 뛰어넘을 정도였다. 물론 둘은 공통분모가 적었다. 눈물 낼 수 없는 강렬한 편성과 퍼포먼스. 그보다 더 뛰어난 음악 실력. 차이점이 있다면 첫 아이의 엄마가 된 크리스티나

아길레라는 예전보다 한층 더 성숙해졌고, 정성품 뮤직시선과 음악 작업을 하면서 겪어온 진화를 꿈꾸고 있다는 거다. 그녀가 내놓을 이번 음반 <비오노>에 사람들이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비오노> 우만의 소머스가 과학의 힘을 등에 업고 보다 강력한 존재로 거듭났듯이, 그녀도 뛰어난 뮤직시선의 음악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준비를 마쳤다. 지금까지 그녀에게서 듣지 못했던 새로운 사운드를 기대해도 좋다.



한희정, 데이브레이크, 할라스윗 및 다수 <JIFE>  
해피로보레코드  
이런 게 흥할 선들 세트다.

인디음악은 들어보고 싶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난감해지는 사람이 많다. 그렇다면 인디 페스티벌에서 내놓은 프로젝트 음반 <JIFE>를 찾아보자. 요즘 잘나가는 인디밴드의 음악을 한 장에 담았다. 인디 페스티벌의 정규 음반의 인디 스타로 검증받은 밴드의 음악을 모두 모은 것이니 팔리지는 걱정할 필요 없다. 무엇보다 해도 출가운 날의 6월이다. 마음에 든 음반 한 장을 치료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거다.



에이엠 <RECOVERY>  
인티스코프 레코드  
<RELAPSE 2> 아나인 <RECOVERY>로 컴백.

에이엠에 대해 구구절절하게 설명하는 건 곤란하겠다. 그는 지난 10년간 전 세계에 3200만 장의 음반을 판매한 유명한 가수다. 이제는 악동 레퍼 아나인과 연속한 뮤직시선의 권력자 문이라는 그가 내놓은 음반은 <RECOVERY>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작년 발매한 음반 <RELAPSE>의 속편이 되어야겠지만 새로운 프로젝트와 함께 작업하면서 음반을 새로 만들겠다는 그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우리가 그저 감상할 따름이다.



바이브 <VIBE IN PRAHA>  
멜로디 미디어  
군 복무를 끝내고 우리가 왔다.

2009년 3집 음반 <FE-HEEL> 이후 4년 만에 4집 <VIBE IN PRAHA>로 바이브가 돌아왔다. 타이틀곡 '다시 와우리'는 전형적인 바이브로 발라다. 군복무 시절 내용을 영성으로 깊고 담담하게 버릴 것 하나 없는 일러스트가 음악으로 가득 채웠다. 빅미미 이자영과 이영현, 포미, 포미가 피쳐링에 참여해 지원 사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동안 '그 날'과 '여차'를 반복 청취하던 바이브 팬이라면 쌍수 들고 맞이하자.



# JAZZ DNA : 웅산

우리나라 재즈 보컬계의 에이스는 2PM의 택연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BY 김현민  
IMAGES PONYCANYON KOREA

**재즈 뮤지션이 아닌 인간 '웅산'이 궁금하다.**  
십 년이 넘도록 스펀들 한 번 못 만든 바보 같은 여자, 무대 위에서는 섹시하지만 무대 밖에서는 소박한 여자다.

우리나라에서 재즈 뮤지션으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아이들이 정량한 주류 음악계에 대한 불만은 없나?

재즈 뮤지션이라는 꿈을 이룬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주류 음악에 불만은 없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음악이기에 도전 정신이 생길 때도 있다. 그런데 내가 주류 음악에 도전하는 것보다 나중에 내가 낳은 아이를 아이들로 만드는 게 더 바보같지도 모르겠다(웃음).

**재즈 보컬로서는 독보적인 위치에 올라섰다.** 당신의 목소리로 들려주는 재즈가 매력적인 이유가 무엇이 라 생각하니?

정직하면서 울림이 깊은 목소리 때문이 아닐까? 내가 부르는 재즈는 허스키한 음색에 애잔함이 더해져서 매력적이라고 말하는 팬들도 있다.

**재즈 뮤지션과 대중가요는 '가까이하기엔 너무 먼 당신' 이다.** 트로트나 아이돌 가수의 음악도 즐겨 들는 편인가?

물론이다. 음악을 가려 듣다 보면 편견해질 수밖에 없다. 평소 듣다가 챙겨 듣는다. 아이돌 중에서는 2PM의

택연이 가장 마음에 든다. 내 남자였으면 좋겠다 싶은 정도로 매력이 넘치는 친구다.

뮤지션이 재즈를 비롯해 외국 음악을 소화할 때 가장 어려운 게 언어의 장벽이다. 하지만 당신은 영어 발음이 정확한데다가 심지어 감정 표현도 뛰어나다. 우리는 그 노하우가 격하게 궁금하다.

실망스럽게 들릴지 모르지만 평소 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한 덕분이다.

**정말 실망스러운 대답이다!**

일상 대화라면 지금도 4개 국어를 무리 없이 구사할 수 있다. 일본에서 활동할 때도 통역을 쓰지 않았다. 음악을 좋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나라의 언어에도 관심이 생긴다. 최근에는 스페인과 이탈리아 음악에 관심이 많아서 이 나라 언어도 배워볼 생각이다.

**이번 음반 <Close your Eyes>를 누군가 "오리자벌 재즈에 스타레이트로 접근했다"고 평했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팝음악처럼 예쁘게 포장하지 않고 정통 재즈에 가깝

게 부르는 데 중점을 뒀다. 기교를 뺀 자연스러운 목소리에 리듬을 입혔다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눈을 깊게 만드느(Close your Eyes)' 소중한 것들은 무엇인가?**

부모님과 팬들의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나의 영원한 동반자인 재즈다.

**편한 대답이지만 너무 멋지다!**



JAZZ BAR

**재즈와 베프 되기!**

웅산이 알려주는 재즈와 친해지는 요령 3가지

**1. 영화 속 재즈를 즐겨라**

<리모>에서 아원용)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인투리커> 재즈를 배경음악으로 쓴 영화들 통해 재즈에 익숙해지는 것도 방법이다.

**2. 살아 있는 공연장을 찾아라**

재즈는 음반을 듣는 것보다 라이브 공연에서 함께 호흡하는 게 재즈이다. 살아 있는 공연장 문턱이 닿을 정도로 다가가라. 어느새 재즈와 한 뼘이 되어 있을 거다.

**3. 취향에 맞는 뮤지션을 찾아라**

스윙 라인, 펌키, 블루스, 보사노바 등 재즈의 장르는 다양하다. 그중 소향재즈가 마음에 든다면 엘라 피츠제럴드, 보사노바러만 엔토니오 카를로스 조빈, 로버트앤 음악취향이라고 해서 런던의 음반을 추천한다.

# Fresh Soccer Comics

월드컵 시즌에 슬램덩크를 볼 수 없잖아?

BY 박성우 COOPERATION 대원미디어, 한신문화사 IMAGES 골다, 양재(Dreamstime.com)

## 에어리어의 기사 (THE KNIGHT IN THE AREA)



줄거리

장차 일본 대표팀의 10번을 짊어질 것으로 촉망받는 미드필더형 스구루. 그리고 골 냄새를 맡는 능력을 타고난 스트라이커지만 트라우마로 인해 매니저로 일하는 동생 카케루. 둘은 자전거를 타고 함께 등교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다. 깨어난 카케루의 가슴속에는 스구루의 심장이 뛰고 있다! 카케루는 자신의 패스를 받아줄 '기사'를 기다리던 '왕'이었던 형의 신세를 계승해 '에어리어의 기사'가 될 수 있을까?



일본뿐 아니라 한국도 고대하는 내추럴 본 스트라이커라는 흥미로운 소재 친해형의 설정을 이색적인 노력때라고 쓰고 사실은 천재라고 읽는다! 동생이라는 색다른 설정 덕분에 축구까지 잘하는 이색적 캐릭터!



포로꾸급 황금세대를 능가하는 천재들의 변칙 브라질 축구의 화제가 일본을 경계 파괴하고 온다는 과대망상. 월드컵도 재빨리 가세. 생략!는 만화 숲

한신문화사 / 양재출판 (중)

숫	에어리어의 기사	비교
구분	아이자와 스구루	모두의 가슴에 남은 명 짧은 천재
전종	아이자와 카케루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스트라이커
독시	아라키 류이치	플레이 스타일은 다르지만 과거 천재의 파트너이자 현재 주인공의 정신적 지주

## SOCCER CLASSICS

### 축구 만화의 바이블

왜? 왜? 왜? 아직도 이 작품들을 안 읽은 건대?

#### 캡틴 초바사

한때는 신이라 찬탄받던 것은 제목으로 출간됐다. 축구 만화계로 한 획을 그은 저명 애니메이션 개성으로도 만들어져 큰 인기를 끌었다. 플라잉 드리브, 쇼 타이거 태클 등의 기술은 우리 기억 속 여전히 남아 있다.

#### 웃

데미트리프지 절찬된 친구인 전종, 풍송, 건이의 우정과 축구에 대한 열정을 그린 작품. 정신적 지주인 주장을 잃고 이름을 치우해-기하는 사람들의 아이기를 담은 명작. '전종, 축구 좋아하-기?' 라는 명대사는 아직도 회자된다.

#### 우리들의 필드

가진 그림체만큼이나 남성이기 물론 풍기고 주인공이 처절한 인생을 매력적으로 풀어낸 작품. 월드컵에 대한 일본인들의 열정을 담은 이 작품은 다른 작품에 비해 스펀지인 큰 면이다. 거기에 필생의 역할 한국이 몹시 강하게 묘사되어 안 볼 끈 게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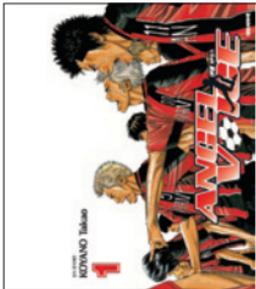
#### 취술

축구 만화의 주인공은 크게 두 타입으로 나눌 수 있다. 타고난 재능과 체력을 가진 천재형과 자신의 열정을 극복하기 위해 부두하는 노력형. 주인공 스우라는 후자에 속한다. 열정과 파는 노력으로 꿈을 성취해-기하는 모습에 공감할 수밖에 없는 수작.

#### 한타지스타

공을 잡으면 땀이 날 일을 해줄 것라고 기대하게 만드는 선수를 한타지스타라 칭한다. 이 작품은 한타지스타의 재능을 가진 주인공이 함께 하는 축구의 즐거움을 알려 주고, 치욕 상해해 나가는 이 아이를 그리고 있다. 평범한 우리는 비범한 그의 열정에 열광할 수밖에

## 엔젤 보이스 (ANGEL VOICE)



줄거리

싸움 실력으로는 레일 마드리드 안 부리를 란진 고등학교 축구부! 새로 부임한 테츠오 감독은 '경매 군단' 축구부를 재건하기 위해 '1학년 '최강 4인'을 선수로 데려온다. 축구는 초보나 다름없지만 발굴의 운동 신경을 자랑하는 이들은 빠르게 성장한다. 축구부를 눈엣가시로 여기고 해체하려는 사람들에게 맞서 존속하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한다! 땀 냄새 그득한 진정한 사니이의 만화!



문제가 아이의 진정한 매력을 알아가며 성장해-나가는 설정. 강적에 고전하지만 결국은 승리하고 마는 만화들과는 다른 현실감. 싸움도 잘하고 운동신경도 좋은 캐릭터들에 대한 대리 만족



재력과 재치까지 어려운 내용. 자꾸만 슬럼프가 떠오르는 스토리. 1학년까지 아직 두 축구부 존속 이야기로 전하는 지루한 무명보다는 이색적 캐릭터들의 부재. 생략!는 만화 슬럼프

대원미디어 / 양재출판 (중)

슬램덩크	엔젤 보이스	비교
강박호	나리타 신고	놀라운 운동신경의 원초보. 앞만 보고 달리는 무대보 주인공!
장대만	아누이 키요하루	방향을 끝내고 돌아온 실력자! 폭귀 후 체력 저하도 고전.
관준호	모모세 코이치	은화한 성품으로 팀원들을 다독이는 선배. 은근 감투 욕심 있는 듯?

## CUTE GIRLS

### 축구 만화의 예쁜이들

당신이 축구 만화를 봐야 하는 이유!



에어리어의 기사! 내나 / 우리들의 필드! 야야고 / 캡틴 초바사! 나카가와 사에 / 한타지스타! 코베레 / 취술! 사쿠라기 미유기 / 취술! 스즈키 미에 / 취술! 카토리 유코 / 취술! 코야마 유키



## 유상무상무상무상

'살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면?'이라는 질문에 인터뷰 내내 투정을 부리던 개그맨 유상무를 간신히 달랬다.

BY 김민혜 ILLUSTRATION 장영민

자. 당신 인생은 이제 24시간 남았다. 뭐? 난 오래 살 거다. 죽으면 예뼌이 내 죽음을 개고 소재로 써 먹을 것 같다. 먼저 안 죽든대 난 오래 살 거다.

당신이 죽으면 누가 가장 신날까? 매니저 할 일 없어서서 신다고 좋아하겠지. 데이트도 하고, 놀러 다니고. (매니저에게) 그럴 거지? 나~쁜 놈.

요즘 하는 프로그램은 정리해야겠지? 그렇다. 일 안 하고 여자 만나야지. 시간에 한 명씩 마지막 1시간은 영마랑, 영마 포함해서 여자를 24명이나 만날 수 있다. 야남 다 귀찮으니 강원도로 혼자 자전거 여행을 간다. 도착하지마자 죽겠지?

유서와 유산은 누구 앞으로 남길 건가? 동민이 형은 24시간 동안 같이 있고 유세윤은 만나기 싫으니까 글을 남겨야지. '모든 게 유세윤 때문이다. 그동안 유세

윤 때문에 너무 불행했고 죽고 싶은 날도 많았는데 '처리라 잘 됐다'라고 유산도 유세윤한테 줄 거다. 유산은 내 빚이다. 동민이 형한테는 빌려준 돈 받아내야 한다. 그거 받고 죽을 거다. 밝힐 순 없지만 액수가 좀 많다. 유세윤한테는 주고 동민이 형한테는 받고 가야지.

어떻게 죽고 싶나? 무대 위에서, 야남 쓰레기차 피하다 통차에 깔려 죽든지. 아. 유세윤네 집 침실에서 죽고 싶다. 신혼 생활 망쳐 놓을 거다. 죽으면 사람 모양으로 스프레이 뿌리잖나. 그거 유세윤네 침실에 남기고 싶다. 볼 때마다 찡찡하게.

죽기 전에 때려보고 싶은 사람은? 때리진 않고 죽일 거다. 유세윤, 장동민, 혼자 죽을 순 없잖나. 그리고 성호 형(윤성호) 머리도 때려보고 싶다.

죽기 전에 매력 발산을 해보라. 여자들은 내 목소리 좋아한다. 자신감도 남긴다. 마음만 먹으면 다 시킨다. 허우데가 멀쩡하잖아. 개고 아이템도 일주일에 7~8개씩 뽑았다. 쓸쓸한 인생 '내 야남'이라고 했는데 '개곤 아이디야 전부다 내 거야!'라고 죽기 전에 말하고 싶다. 음. 비건 농담이다.

죽기 전 마지막 할 말이 그건가? 아니다. '사람 실려'라고 할 거다.

묘비명은 10자로 요약해서 새긴다면? 유상무상무상무상무상.

여자친구는 자주 만나나? 비해서 잘 못 만난다. 여자친구 보고 싶다. 이럴 땐 여자친구와 비슷한 여자를 마구 몰색한다. 근데 없애(그는 이 말을 꼭 넣어서 말했다). 다른 여자는 진짜 안 만난다. 예전엔 여자 만날 때 유세윤이랑

동민이 형이랑 같이 나갔는데. 지금 유세윤은 신혼이라 안 되고, 동민이 형을 만나면 내가 돈을 다 내야 하니깐 만나기 싫다.

유세윤이 부럽나? 배 아파서 죽겠다. 유세윤 개고 표절 논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예계를 은퇴하는 거다. 유세윤 말하라고 매일 기도하고 있다. 개는 신혼인데도 집에 들어가기 싫어한다. 그래서 일을 많이 한다.

일 많이 하는 유세윤한테 MAXIMIZER 일 같이 해보고 해야겠다. 유세윤은 돈 안 주면 절대 일 안 한다. 돌릴 만능주위의 아이리이다.

만약 1만 년을 살 수 있다면? 그 사실을 안 순간 바로 자살할 거다. 1만 년 살 수 있는 약이 나오면 그거 30일 먹고 죽겠다. 지금까 어떻게 1만년을 사나?



# Clean 주민하 and Clear!

MAXIM에서 영화 <월 또 그렇게까지>의 신인 배우 주민하를 만났다.  
될성부른 떡잎인 그녀의 함박웃음에 편집부(라고 쓰고 남자 에디터라고 읽는다)는  
홀딱 넘어갔다. 두 눈의 동공을 최대한 팽창시킨 후 그녀의 사진에 집중하라!  
MAXIM에서 그녀를 '이렇게까지' 소개하는 이유를 곧 알게 될 거다.

BY 김성현 WORDS BY 권가영 PHOTOGRAPHS BY ARC STUDIO STYLING 권혜진 조정민  
COOPERATIONS PAFRA, SODA, AIGNER by MOSCINO 546-7764 ORSA, SHANE02-3446-9949 A. File Story02-514-0939

“그녀는 지금 슬로만이 느낄 수 있는  
오뉴월의 맹추위를 연기하고 있다.”



(피)  
진주 이어링 165,000원, 실버 목걸이 545,000원  
모투 AIGNER by MOSAIC  
듀브를 드레스 79,000원 PAPER  
오른쪽 손목에 찬 알미 에디터 소장  
왼쪽 손목에 찬 들고래 영규 가격 미정 ORSA

(우)  
일침 레드라 49,000원 A.Pole Story  
하피 코린트 등 가격 미정 PAPER  
대님 스카프 69,000원 SHAWNE  
왼쪽 손목에 찬 실버 알미 에디터 소장  
오른쪽 손목에 찬 골드 알미 가격 미정 ORSA  
웨지힐 가격 미정 SODA

드라마 <내조의 여왕>에 출연했을 때보다 훨씬 예뻐졌다.

본인의 외모에 등급을 매긴다면?

외모로 승부하는 배우가 아니라서 등급을 스스로 매긴다 힘들다.

선수끼리 이리저리 곤란하다.

마음속으로 '등급이라고 생각하는 거 다 안다.

1등급이라고 해주면 나아 좋아(웃음) 그보다는 아래일 거다.

경제학과 출신이니 생을 잘하겠다. 남자를 보는 눈도 까다롭겠지?

그렇지 않다. 남자의 스펙보다는 눈빛을 먼저 본다.

밝은 눈빛의 남자가 좋다. 여기에 유머 감각까지 있다면 금상첨화다.

영화 (뭘 또 그렇게까지)에서 처음으로 주연을 맡았다.

촬영을 3일 앞두고 깜짝 캐스팅됐다. 시나리오를 받고 인사동 카메라에서 감독님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바로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다. 그날 화장기 없는 얼굴에 웃도 평범한 캐주얼이었는데 그게 먹혔다.

감독은 당신이 주변배우로 손색이 없다고 판단했던 건가?

촬영이 끝난 후 감독님께 "연기도 안 보고 캐스팅한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다. 그랬더니 "음, 너만 시간이 됐어" 라고 말했다(웃음).

영화에서는 전형적인 여우 캐릭터로 등장한다. 실제 성격도 그러한가?

거리가 멀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물불 안 가리고 잘해준다. 지금이야 많이 여성스러워(자만(웃음) 중 · 고등학교 시절엔 윗가닥이었다.

남자친구가 있는지 궁금하다.

없다. 일단 말이네! 6월의 솔로가 어떤 기분이지는 당신도 잘 알 거다.

자구에 영화 속 인호처럼 지고지순한 남자와 조화백처럼

능글능글하고 능숙한 남자 둘만 남았다면 누구를 고를 건가?

조화백! 난 뒤에서 바라보기만 하는 사람은 싫다.

남자라면 자신의 감정을 단도직입적으로 말할 줄 알아야 한다.

영화에서 "당신은 내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는 대사가 나온다. 그럼 이곳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남자(포토그래퍼, 에디터 등)' 도 사랑할 수 있던 건가?

No(웃음) 큰일 날 소리다. 아무것도 아닌 남자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남자지만 사랑한다는 의미일 거다.

<하나>의 전도연 같은 역할에 도전하고픈 마음은 없나?

블러컨 줄다면 기꺼이! 대놓고 색안경 쓴 여자보단 청순한데 색안경 느낌이 배어있는 여자가 훨씬 매력적이다. (황후화)의 공리, <개이사의 추억>의 장쑤아가 맡은 배역도 한 번쯤은 도전해보고 싶다.

감독 입장에서 당신의 청순한 이미지가 부담스러울지도 모른다.

입을 안 열면 청순하다(웃음). 하나의 이미지로 고정되고 싶진 않다.

난 욕심이 많은 연기자다. 가리는 역할은 없다.

본받고 싶은 연기자가 있다면?

외국 배우는 조디 포스터,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과 스크린을 압도하는 존재감이 매력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김혜수 선배님. 굳이 언급이라고 불릴 정도로 엄마 역할을 많이 맡으셨지만 한 번도 같은 캐릭터를 보여준 적이 없다. 눈빛과 스타일만 바뀌어도 다른 분위기를 연출한다.

당신을 캐스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담당 실장님에게 연락하라(웃음). 시간만 허락하면 저예산 영화에도 출연할 의사가 있다. 배우에게 자급이 아니냐고 소화할 수 없는 배역이 있다.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봉준호 같은 명감독이 될 수도 있다.

물론이다. 그때는 내가 좋은 작품에 출연시켜달라고 조를 거다(웃음).



# I'm a Good Downloader



COPYRIGHT 2010 GOOD DOWNLOADER. ALL RIGHTS RESERVED.

당당하고 매너있게 즐기는 당신  
당신의 올바른 다운로드가 한국 영화를 키웁니다.



I'm a Good Downloader





# MAXIM 남아공 월드컵

## B조 SWOT 분석

2010 남아공 월드컵을 더 재미있게 즐기 위해 기업 경영에 필수인 SWOT 분석 틀을 축구에 적용했다. 뭔가 그럴싸하지 않나?

BY 임기범 IMAGES 퍼지션 매세/Getty Images/앨리버라

SWOT이란?

기업환경분석을 통해 강점(Strength)과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와 위협(Threat) 요인을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전략을 수립하는 기법. MAXIM은 이렇게 경부도 시켜준다. 친절하지 않나?



### 아르헨티나

**S 리오넬 메시** : 메시는 현존하는 지구 최강의 공격수다. 무게중심이 낮아 속도를 유지한 채 자유자재로 방향을 전환 할 뿐 아니라 화려한 드리블로 상대 수비수를 갖고 논다. 얼마나 잘하면 예수와 공비명을 한다는 소릴 들겠나? 골 결정력도 흠잡을 데 없이 이번 시즌에도 라리가와 챔피언스 리그를 통틀어 득점 선두에 있다. 예수의 드리블을 막기 위해 부디라도 영입해야 하나?

**W 상대적으로 불안한 수비** : 공격의 파괴력은 흠잡을 데 없으나 강팀의 전제 조건인 수비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 지역 예선에서 한 수 아래의 팀들을 상대로 6골을 기록했으며 최악체로 평가받던 볼리비아에는 무려 6골을 내렸다. 마라도나 감독은 친선 공격수였던 거다.

**O 골 같은 조 편성** : 월드컵을 받은 본선 진출국 중 가장 수월한 조 편성이다. 발메 수비의 그리스는 피곤하겠지만 기억 없는 오버래핑을 즐기는 나이지리아와 중국에도 게 떨리는 대한민국의 자못된 지킴이들은 "아서 오십시오" 하며 친절히 맞아 주니 어찌 반갑지 아니한가.

**T 캄비아스의 부재** : 마라도나 감독은 올 시즌 인터밀란의 챔스 결승행에 공을 세운 캄비아스를 엔트리에서 제외했다. 노련함과 활동력을 바탕으로 허리에서 팀 밸런스를 잡아줄 수 있는 캄비아스의 엔트리 탈락이 아르헨티나에는 위험한 모험이 될 거다. 맛써 가요리.

### 나이지리아

**S 라가백 감독의 전술** : 나이지리아 기아에 허락하는 슈퍼이글스(나이지리아 대표님의 별칭)를 되살리기 위해 5개월 단기 조련사 라가백 감독을 영입했다. 전술적으로 뛰어난 라가백 감독의 디펜스비 4-4-2 포메이션이 성공적으로 정착한다면 나이지리아의 모래알 수비는 마치 물먹은 시멘트처럼 단단해질지도 모른다. 라가백 감독이 짧은 시일 내 친방지축 독수리들을 잘 조련해낼 수 있을지가 관건.

**W 모래알 같은 수비 조직력** : 나이지리아의 수비도 우리 못지않은 자동문이다. 중앙 수비 호흡이 잘 맞지 않고 측면 수비수들도 공격 성향이 강해 상대 공격진에 뒷공간을 자주 노출시킨다. 당신도 이미 말했지만 남자는 뒤를 잘 지켜야 한 단 말이다.

**O 아프리카 대륙 개최** : 사실 별 도움이 안 된다. 남반구의 남아공은 적도 부근의 나이지리아와 달리 출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깝잖아? 확고든 회식든 집 가까운 게 최고지.

**T 미겔의 부상 회복 여부** : 나이지리아의 16강 여부는 최근 부상으로 무릎 수술을 받은 '전술의 핵' 미겔의 회복에 달렸다. 주장인 미겔이 회복한다면 나이지리아는 공수에서 안정감을 찾게 되어 다른 선수들의 공격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하지 만 무리해낸 지단의 다리동맹자를 부르려면 '메이스 쿨라' 남일 칸이 있다!



## 그리스

**S 예선에서 보여준 수비력** : 그리스는 월드컵 지역 예선 12경기에 10골 밖에 내주지 않는 끈물 수비를 펼쳤다.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는 이테네 선수들은 힘과 높이를 내세워 상대의 공격을 틀어막았다. 하지만 레하겐 감독은 이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이번 엔트리 선발에서 그리스 명문 팀 파나시나이크로스 수비진을 대거 불러들이며 뒷문을 강화했다. 고미라레, 마이 잠갔다 아이가.

**W 단조로운 공격 패턴** : 그리스는 아르헨티나와 달리 슛패싱 플레이보다는 선 수비에 이은 카운터어택을 주로 펼쳤다. 또 세트 피스에 이은 해당 공격으로 상대편을 공략한다. 하지만 역습에 의존한 공격 형태는 상대가 작정하고 잠금 경우 답이 안 보인다. 단조로운 공격을 반복하다 되려 역습에 저열할 공신이크다.

**O 대한민국과의 첫 경기** : 그리스로서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그리스 입장에서도 16강 진출을 위해서 패스가 필요하다 때문이다. 피찌봉 델레파시.

**T 주축들의 컨디션 난조** : 핵심 멤버들이 컨디션 난조를 보이고 있다. 에이 스인 사미라스는 셀틱에서 늘날룩한 플레이를 펼치고 있고 리버풀의 센터백 기르기아코스토 기록 있는 모습으로 감독의 신임을 얻지 못하고 있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 대한민국

**S 다양한 전술 옵션** : 기존 멤버에 구자철, 김재성, 김보경 등 실력 있는 영건들이 중원에 가세하면서 쓸 수 있는 패가 다양해졌다. 전술 핵심은 단연 지성 표. 박지성의 멀티 능력은 유동적인 상대 전술에 대항할 수 있는 마법 카드다. 공격력을 강화하려면 박지성을 중앙에 배치하고 '한국의 리스' 염기훈을 왼쪽으로 돌려 대표팀을 뒤편 모두로 바꿀 수 있다. 수비에 비중을 두려면 박주영을 왼쪽에 세운 뒤 조원희, 김경우를 더블볼란체(최종 수비진 앞에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배치해서 수비를 강화하는 전술)로 두는 4-2-3-1로 변형이 가능하다. 허 감독도 FM(Football Manager)을 쫓겨나 보.

**W 자동문 골키퍼 & 수비** : K리그 실점을 1위의 이유는 지난 FC서울과의 리그전에서 6분 만에 3골을 허용하는 등 11경기에서 22실점으로 마네임 플레이를 펼쳤다. 조용형-이정수 콤비는 영리하고 빠르지만 피치같이 약해 알아당까지 나가 스트라이커 손쉽게 찬탈히 문을 열어준다. 오. 암사내!

**O 산소상방** : 고지대에 적응하기 위해 파주NFC에 산소방(해발고도에 맞춘 산소량 조절 설비)을 마련했다. 우리도 한 달만 하면 고지대에서 아르헨티나를 1대 6로 발라버린 볼리비아처럼 될 수 있을지도. 설마.

**T 주전과 비주전의 격차 & 무더진 한 골** : 해외파가 나오면 득표라도 설 설 기지만 없으면 중국도 버겁다. 녹스 창 골은 더욱 무더진다. 박주영은 부상으로 페이스가 급격히 떨어졌고 예선 초반 날카롭던 이근호는 언제 마지막으로 골을 넣었는지 기억이 가물거물하다. 게다가 라이언 킹 이동국은 대표팀에서 이렇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처리리 늙은 사자 이하늘이 낫겠다.

**차방전** : 슛패스가 강한 아르헨티나의 빠른 공격에 밀리지 않으려면 강한 전방위 압박으로 불을 달취한 후 볼 점유율을 높이면서 전개해나가야 한다. 공격적인 나이지리아를 상대로는 뒷 골문 패스에 이은 침투로 찬스를 만들어야 하며 수비 축구를 구사하는 그리스를 상대로는 2선을 총총히 구축해 허리 싸움의 주도권을 잡고 창조적인 패스로 발이 느린 그리스의 중앙 수비를 무너뜨려야 한다. 승부의 분수선은 그리스전. 오오, 다시 한번 그때처럼!



**자블라니(Jabulani)**  
자블라니를 잡을라?  
2010 남아공월드컵에서 쓰이는 FIFA 공인구의 이름이다. 남아공 공평이 가운데 하나인 줄무리로 '축하하다'는 뜻이다. 3차원 곡선 형태의 가죽 조각 8개를 붙여 만들었으며, 역대 공인구 중 가장 원형이 가깝다. 정말 자블라니를 잡고 싶다면 p.102 돌아가라!

# STUFF

FILL YOUR INNER EMPTINESS WITH MATERIAL GOODS

## WHAT A MAN WANT!

삶이란 선택의 연속이다. 이들 중 당신이 선택할 제품은 무엇인가?

### 아이패드

그래, 당신이 원하던 바로 그 아이패드다. 애플 제품은 1세대를 피해야 한다는 격언이 있지만 아이패드라면 기꺼이 베타 테스터 역할을 감수할 만큼 매력적인 녀석이다. 아이폰의 애플이 아이패드의 공작한 화면에 돌아간다고 상상해봐라. 모든 애플이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애플의 승인을 받은 애플민으로도 차고 넘친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나온 태블릿 PC 중 이만큼 손맛이 좋은 녀석은 없었다. 아이패드의 U(유저 인터페이스)는 쾌적함 그 자체다. 9.7인치 LED 백라이트 컬러 액정은 장시간 사용할 시 전자 링크보다 눈이 피곤하지만 MAXIM처럼 때깔 나는 장치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이북 스토어에서 전자책을 구매할 수 있으며 아마존의 이북리더 킨들의 EPUB 포맷도 지원한다. 킨들을 사용한 유저라면 구미가 당길 거다. 아쉬운 점이라면 43의 화면 비율이다. 전자책을 보기엔 적절하지만 와이드 비율(16:9)이 아니기에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을 볼 땐 불편하면 위아래에 등장하는 블랙 바(바)다. 맥을 자주 사용하는 직장인이려면 업무용으로도 적절하며 아이패드용 아이워크로 밖에서도 편하게 키노트, 워드 등의 업무를 볼 수 있다. 애플의 블루투스 키보드 장착이 필수지만 노트북보다 휴대성이 훨씬 뛰어나니 외근이 잦다면 구매를 고려해볼 직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선구자 '유악점' 덕분에 개인 용도로 1대는 반입이 가능해졌다. 공식 출시 일정은 미정이다. 가격 미정 문의 [www.apple.com/kr](http://www.apple.com/kr) 060-330-8877



iPad

3:48

Not Charging



Sudoku Tablet



COMICS



WTD



Our Browser



Pod Info



Notes Pro



The Weather Channel



Lalypop Live



Coke



iStock by Getty Images



iFC 42



App Store



Messages



Safari



Mail



Photos



App Store



Settings



iTunes

PANASONIC \_ LUMIX FP1

모든 제품은 용도에 맞게 쓰는 게 제일이다. 그녀와 후끈 달아오른 순간을 담고 싶은데 DSLR을 찾다고 신통을 결 순 없는 노릇 아닌가! 이럴 때를 대비해 비싼 DSLR 대신 루믹스 FP1을 장만해두자. 렌즈 커버를 내리자마자 0.96초 만에 잠에서 깨어난다. 초점을 맞추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0.33초. 똑딱이 카메라 중에서는 최고의 반응 속도다. 당신과 그녀의 격정적인 사랑을 초당 5.5장의 고속 연사로 촬영할 수 있으니 사진을 찍기 위해 동작을 멈출 필요도 없다. 똑딱이 주제에 HD급 화질의 동영상 촬영도 가능하다. 월드컵을 보다가 박자성의 발길질에 영감을 받아 떠오른 창의적이고 다이내믹한 체위를 영상으로 남길 때 매우 유용할 거다.

가격 20만 원대 중반 문의 [www.panasonic.co.kr](http://www.panasonic.co.kr) 02-533-8452



A woman in a black bikini is shown from the waist down, holding a silver Sanyo camera. The background is dark, and the lighting highlights her skin and the camera. A large, stylized pink 'S' logo is on the left side of the page.

# S

## SANYO \_ XACTI VPC-CG100

요즘 캠코더는 영리하다 못해 천재적이다. 산요의 작티 VPC-CG100은 삼겹살 1인분(200g)보다 가볍지만 풀 HD(1920x1080) 영상 촬영은 기본이고, 캠코더 주제에 1600만 화소의 고해상도 사진 촬영도 가능하다. 특히 VPC-CG100은 동영상 촬영 중에도 버튼 하나만 누르면 별도의 메뉴 변경 없이 원하는 사진을 간편하게 찍는다. HDMI도 지원하니 집에 풀 HD 영상기기가 있다면 촬영 영상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극적인 승리를 거둔 기쁨에 취한 그녀가 지던 그대로의 모습으로 당신을 덮치는 꿈같은 순간도 한 손만 자유롭다면 손쉽게 촬영할 수 있던 소리다. 아예 갑자기 금뿔뿔가 오지 않나? 가격 50만 원대 문의 [www.sanyokorea.co.kr](http://www.sanyokorea.co.kr) 1644-3423

## ASUS \_ EeePC T101MT

태블릿 PC를 사용하곤 싶지만 키보드가 없어서 망설여진다는 중자들이 있다. 그렇다고 태블릿 PC+넷북을 사기엔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다면 이 제품이 적절하다. 아수스에서 내놓은 T101MT는 태블릿 넷북이다. 회전형 멀티터치 LCD를 탑재했기 때문에 태블릿 PC처럼 사용하기가 문서 작업을 해야 할 땐 LCD를 회전해서 넷북처럼 쓰면 된다. 아이패드만큼은 아니지만 기존의 태블릿 PC와 비교하면 터치 감도 많이 향상됐다. 우리나라 대기업과 비교하면 AS가 아쉽지만 가격 대비 성능으로 따져보면 이만한 제품도 없다. 태블릿 PC처럼 화면을 돌려놓고 여지친구와 후끈한 영상을 즐기면서 한층 달아오른 몸과 마음으로 월드컵 응원에 임하자. 가격 60만 원대 후반. 문의 [kr.asus.com](http://kr.asus.com) 1566-68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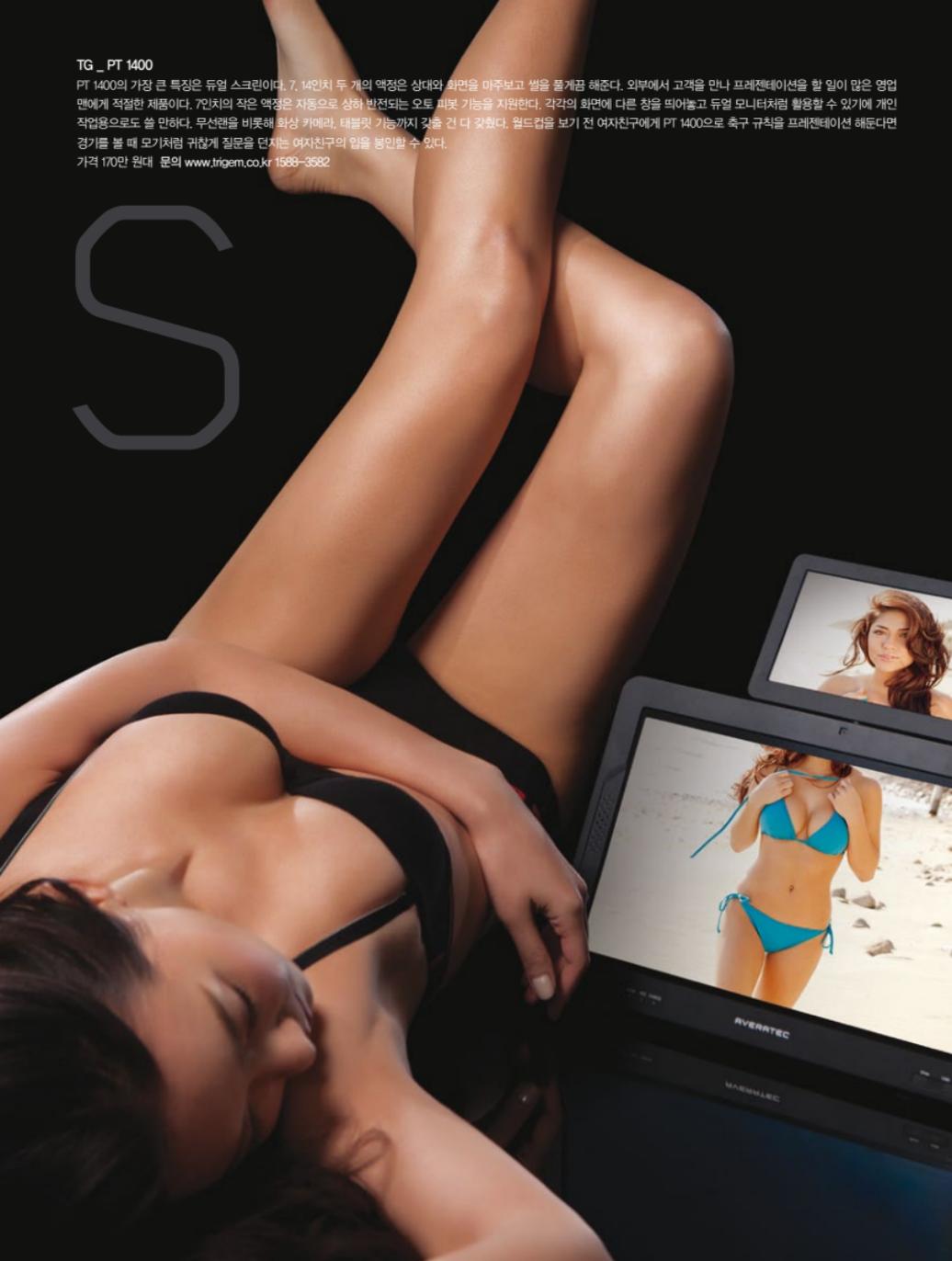


TG\_PT 1400

PT 1400의 가장 큰 특징은 듀얼 스크린이다. 7.14인치 두 개의 액정은 상대와 화면을 마주보고 썸을 풀개꿈 해준다. 외부에서 고객을 만나 프레젠테이션을 할 일이 많은 영업맨에게 적절한 제품이다. 7인치의 작은 액정은 지름으로 상하 반전되는 오토 피벗 기능을 지원한다. 각각의 화면에 다른 청을 띄어놓고 듀얼 모니터처럼 활용할 수 있기에 개인 작업용으로도 쓸 만하다. 무선랜을 비롯해 화상 카메라, 태블릿 기능까지 갖춘 건 다 갖췄다. 월드컵을 보기 전 여자친구에게 PT 1400으로 축구 규칙을 프레젠테이션 해둔다면 경기를 볼 때 모기처럼 귀찮게 질문을 던지는 여자친구의 입을 봉인할 수 있다.

가격 170만 원대 문의 [www.trigem.co.kr](http://www.trigem.co.kr) 1589-3582

S



#### BLACKBERRY \_ BOLD 9700

아내 같은 스마트폰 블랙베리다. 화려하진 않지만 그만큼 본업에 충실한 제품이다. 일의 노예가 되고 싶다면 고민할 것 없이 블랙베리 볼드 9700을 질러라. 푸시 이메일(Push E-mail) 기능은 자비가 없다. 월드컵 응원을 할 때도, 그녀와 질펀하게 뽀글 뽀글 때도 업무 메일이 도착한 걸 실시간으로 알려줄 거다. 새로 나온 볼드 9700은 크기가 한결 작아졌다. 블랙베리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트랙볼도 광센서의 울티컬 트랙패드로 바뀌었다. 마우스로 따지자면 볼마우스에서 광마우스로 갈아탄 거다. 역정은 2.44인치로 다소 작지만 해상도는 480x360으로 상대적으로 높다. 유저의 불만을 샀던 카메라 역시 300만 화소로 업그레이드됐다. 진리의 퀵티 키보드는 건재하니 걱정 붙들어 매라. 가격 80만 원대 문의 [www.bbcafe.co.kr](http://www.bbcafe.co.kr) 1599-7756



## APPLE, IPHONE

에인 같은 스마트폰이다. 4세대를 기다리다간 망부석이 될지도 모른다. 출시된 아이폰을 구매해서 뽀이 빠질 만큼 사용하는 게 남는 거다. 출시되지 않은 전자제품을 기다리다 정작 필용할 때 사용하지 못하는 것만큼 억울한 일도 없다. 앱스토어의 다양한 어플을 하루에 1개씩만 사용해도 2년은 금세 지나갈 거다. 여자친구가 옆도둑 중계를 기다리는 게 지루해 주겠다고 징징거린다면 <식물과 중배> 어플을 설치한 아이폰을 손에 쥐어주자. 그녀는 경기가 끝난 후에도 당신은 뒷전인 채 아이폰만 붙잡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당신이 세운 그날 밤의 야심찬 계획이 풀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다.

가격 130만 원대 문의 [www.apple.com/kr](http://www.apple.com/kr) 080-330-8877

S

STUFF RIDE



# MASERATI GRANCABRIO

황사와 장마 사이. 비야흐로 컨버터블의 계절이 돌아왔다. 답답한 두꺼울 열고 가속페달에 올려놓은 발에 지그시 힘을 가해보자. 신세계보다 좋은 신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BY 박상우 IMAGE FMK



이탈리아 명차 마세라티가 마음먹고 만들었다. 상징차 엠블럼으로 유명한 마세라티가 최초의 4인승 컨버터블 그란카브리오를 선보였다. 마세라티의 럭셔리 오픈톱 전동식 계승차 그란카브리오는 1950년 A6G 프루아 스파이더(Frua Spyder)에서 시작된 오픈 에어 모델의 계보를 잇는다. 이탈리아 모데나 공장에서 디자인 및 제작했다. 4.7L, 7,000RPM, 440마력의 뜨거운 심장인 V8 엔진 중 가장 강력한 파워를 자랑한다. 그뿐 아니라 ZF 6단 자동변속기를 장착해 운전자에게 편안함과 부드러움을 선사한다. 여기에 4가지 작동 모드(자동 노멀 모드, 자동 스포츠 모드, 자동 아이스 모드, 수동 모드)를 갖춰 자신의 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운전 경험을 경험할 수 있다. 눈에 띄는 점은 2,942mm에 달하는 휠베이스 길이로 4인승 컨버터블의 약점인 뒷좌석 승차감까지 개선했다는 것. 현재 시판 중인 컨버터블 가운데 가장 길다. 공간 배분에서도 4개의 좌석이 여유롭게 배치되어 있으니 '두 명 밖에 못 타는 차에 왜 돈지랄이나?'는 가족들의 핏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이다! 역시 마세라티는 마음 씀씀이도 다르다. 이 멋진 차량에는 딱 하나의 흠이 있다. 가격. 우린 못 살 거야. 아, 다.

가격 2억2천대 문의 (주)FMK 02-3433-0888

엔진	4.7L V8, 7,000RPM, 4400마력
변속기	ZF 6단 자동변속기
최대토크	323kW(440CV)
최고속력	283km/h
0-100km/h	5.4초

# SEXY RIDES, SEXY REDS!

빨간색만으로도 이미 당신은 흥분 상태! WORDS BY 김은호 (한국타이어사원)

모터사이클은 달리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불안정한 물체라는 것부터 이미 흥미롭다. 질은 유리로 둘러싸인 자동차와 달리 바깥에 노출되어 있어 시트에 적석한 순간부터 사람들의 시선에 흥분되며, 그 아래에 가깝게 자리한 엔진의 진동이 흥분을 더더욱 고조시킨다. 무엇보다 좌우가 아닌 앞뒤로 철벽 달라붙을 수밖에 없는 일체형 시트는 점잖아질 필요 없이 서로를 과감하게 만든다. 여기에 더욱 흥분하고 싶다면 레드드를 선택하라. 모터사이클의 잘 빠진 외관과 더불어 당신의 동공을 자극하는 가장 정열적인 색상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미 스페인에서 황소를 대상으로 한 수백 년간의 실험을 거쳐 증명된 사실이다. 그에 따른 사실자도 적지 않다.

## HONDA VFR1200F



엔진	수평식 4스트로크 유니클러 V형 47도
배기량(cc)	1,237
실린더 내경×행정(mm)	81 X 60
압축비	12:1
최고출력(ps/rpm)	173/70,000
최대토크(kg-m/rpm)	13.2/8,750
점화 방식	디지털 트랜지스터식 배터리 점화
연료공급 방식	셀 스테어
변속 방식	6단 리테누움
차축(길이×폭×높이)mm	2,250 X 75 X 1,220
축간거리(mm)	1,545
시트 높이(mm)	815
자중(kg)	125
차량 중량(kg)	265
가격	22,900,000원



2008년 10월 독일 아우토모빌(Intermot) 전시회에서 공개한 V4 라인업 모델은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동안 Honda가 보여준 우수한 스타일은 온데간데없고 급진적인 라인업 그려낸 혁신적인 프로젝트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그 디자인을 조망한 답답한 VFR1200F가 세상엔 나올 줄 마. 이름은 상상도 못했다. 일본 대표 모터 브랜드인 Honda는 지금껏 모던 구석 하나 없이 모든 장르의 가운데 도로 표준 모델링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V자형대의 전면 헤드라이트와 표면 굴곡의 절묘한 노크는 레이아웃 패러다임 변동이 아니라 범상치 않다는 게 연이어서 들어왔다. 또한 Honda의 전통 컬러인 레드, 블루, 화이트의 조합을 깨고 한 톤의 와인 레드 컬러로 옷을 입혔다는 것이 새롭음을 더한다. 무엇보다 DCI(디지털 클러스터 미션기) 탑재였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흥분시킨다. 듀얼 클러스터는 클러스터 하나 조작 없이 기어 변속 페달을 조작하는 것만으로 기어 변경이 가능한 세미 오토 방식이다. 최종 구동 도라 이르는 고급형 모델에만 적용되는 사프트드라이브를 채용해 장기간 메인드라이브를 해줄 필요 없어 두어만에 적합하다.

## MV AGUSTA F4



엔진	수평식 4스트로크 90도 V4 47도
배기량(cc)	998
실린더 내경×행정(mm)	76 X 55
압축비	13.1:1
최고출력(ps/rpm)	186/12,900
최대토크(kg-m/rpm)	11.4/9,500
변속 방식	6단 리턴
차축(길이×폭×높이)mm	2,100 X 750 X 860
축간거리(mm)	1,430
시트 높이(mm)	860
자중(kg)	115
차량 중량(kg)	192
가격	미정



시안이 올리드 명품의 가치는 출시 않는다. 이 녀석은 출시한 지 10여 년이 흘렀지만 자그마한 변경만 있었을 뿐 얼굴과 몸매는 태초 모습 그대로를 유지해오고 있다. 이탈리아에 본사가 위치한 MV 어그스타는 자동차의 디자인 센스를 최첨단 발빠른 모터사이클을 만들어내는 메이커로, F4는 그들의 능력을 몸소 증명해줄 모델이다. 여전히 헤드라이트 디자인이여, 손으로 쥘 만한 두터운 핸들 부위 위에서 내려다볼 때의 세련된 외관은 감탄사를 연발게 한다. 스포츠라이크 에어-아이라인 누구나 꿈꾸는, 하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아 쉽게 가질 수 없는 모델이다. '이탈리안 레드' 라는 강렬한 붉은 컬러는 에어커를 막론하고 이탈리아 모터사이클의 상징이기도 하다. 단순히 '빨간' 색깔로 칭찬 걸리는 전차다. 큰 이터다. 오로라 피라피 리피 4-4-1 센터 업 머플러는 F4가 등장한 이후 여러 슈퍼스포츠 바이크에 적용된 스타일이다. 또한 휠은 은색으로만 진행되는 모노 스윙 앵글 장착된 별 모양 단조 휠은 탄생 이래 계속되어온 F4만의 트레이드마크다.





# OH! 류지혜 MY CHUNLI!

그래, 우리가 기다려온 바로 그 춘리다.  
그녀의 꿀벅지가 당신 마음 속으로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나?

▶▶ 레이싱 모델로 데뷔한 계기가 궁금하다.

예쁘고 화려한 모습에 매력을 느꼈다. 요즘이 선배가 연기 지로 성공적으로 전업한 것도 결심을 데 한 함로 거들었다. 주변의 권유로 레이싱 모델 선발대회에 참여해서 상을 받고 자연스럽게 레이싱 걸로 데뷔했다.

▶▶ 이제는 동명의 탁구 국가대표 선수보다 유명해졌다.

걸에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는 게 여전히 신기하다. 내가 국가대표 선수보다 유명해질 일을 하진 않았지만 그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니까 감사할 따름이다. 동안에 성숙한 모습을 짐작해서 인기가 많은 건지도 모르겠다.

▶▶ 레이싱 모델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이다. 본인의 성격은 어떤 편인가?

밝고 긍정적인 성격이라서 스트레스를 크게 받지 않는다. 다만 변덕이 심한 편이라 주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 때는 있다.

▶▶ 가장 자신 있는 신체 부위는 어디인가?

골반이다. SES 다큐멘터리에서 몸을 분석했더니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명품 골반이란 결과가 나왔다. 한 마디로 서양 사람이나 가질 법한 화려한 골반을 가졌다는 말이다.

▶▶ 지금 만나는 사람은 있나?

없다. 대구에서 서울로 올리는 후 남자를 사귀 적이 없다.

▶▶ 관심은 남자를 찾아줄 테니 당신이 원하는 남자 스타일을 말해보라.

이제는 속 편하게 키 큰 남자를 만나고 싶다. 외모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직업상 일정이 들쭉날쭉하다. 내게 시간을 온전히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책임감도 필수다. 여자친구와 한강에 놀러 갔으면 집까지 데려다주는 책임감은 있어야 한다!

▶▶ 그 정도 노력은 기꺼이 감수할 남자가 당신 앞에 있다! 그랬으면 좋겠다. 하지만 주변에는 그런 남자가 한 명도 없다.

▶▶ 레이싱 모델 일임으로도 계속 할 생각인가?

지금 당장 내가 할할 수 있는 일이다. 그만둘 생각은 없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가수나 연기자로 전업도 고려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MAXIM 독자와 팬에게 한 마디 해달라.

이번 촬영에선 <슈퍼 스트리트 파이터 4>의 춘리로 변신했다. 게임 속 춘리만큼 허벅지가 탐스럽진 않지만 싱크로율이 형편없진 않을 거다. 예쁘게 봐주면 좋겠다.



# COSPLAY 한희 QUEEN

코스프레 싱크로를 100% 도전기!



▶ 당신이 의지왕의 삼천궁녀도 아닌데 코스프레에 몸을 던진 이유가 궁금하다.

만화와 게임을 좋아하는 전형적인 오덕이다(웃음).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코스프레에 관심이 생겼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미소녀가 가득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이나 미션(미소녀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 코스프레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미소녀 코스프레에 뛰어들었다. 한마디로 자급자족형 코스프레다.

▶ 데뷔 캐릭터가 격하게 궁금하다. 가장 만족스러웠던 캐릭터도 함께 말해달라. 지금 당장 찾아보겠다.

미션시 게임 (동급생)의 캐릭터 유이다. 가상복을 사용해 의상 제작이 가능했다. 가장 만족스러운 캐릭터는 애니메이션 <일기장친>의 여동자영! 캐릭터도 마음에 들고 싱크로율도 만족스러웠다. 지금까지 네 가지 버전의 여동자영을 소화했다. 모든 버전을 코스프레하는 게 목표다.

▶ 이번엔 MAXIM 화보에서 보여준 캐릭터에 대해 설명해 달라.

대진 레슬링 게임 (렘블로즈)의 캔디캐인이다. 펑크 밴드의 보컬인데 자신을 키워준 고아원을 구하려고 렘블로즈(레슬링 대회)에 출전한다. 거칠어 보이지만 속내는 따뜻한 캐릭터다. 코스프레 싱크로율은 90% 정도, 100%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녀의 가슴이 36인치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차마 그럴 순 없었다.

▶ 노출이 확끈하다. 보는 입장에서 하악하악할 수 있어 찜찜하지만 본인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일본의 그라비아나 코스프레 사진을 보면 노출은 전혀 없는 데 예뻐한 눈빛 하나로 묘한 기분이 들게 한다(이게 바로 묘예한 사진이다). 내가 원하는 건 애를 태워 사람을 불타오르게 만드는 사진이다. 노출보다는 시선 처리나 힙라인을 보일 듯 말 듯 연출해서 사람을 불끈불끈하게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의외로 노출이 많지 않은 편이다. 치마를 입을 땀 속까지도 든든하게 무장(?)하니 사진이 부담스러운 적은 없다.

▶ 활뻗어서 훈훈한 이런 의상은 직접 만드나? 완성도가 상당하다.

직접 만들거나 중고장터에서 구매한다. 의상을 구매하는 게 가장 편하지만 생각했던 모양새와 동떨어진 경우가 많다. 그렇다 보니 직접 제작한 의상이 70% 이상이다. 의상의 완성도는 실제로 보면 형편없다. 사진에 예쁘게 나와서 그럴듯해 보이는 거다.



>>> 이때위로 할 거면 때려치우라고 말하고픈 코스프레도 있겠다.

이건 취미 생활이다. 본인 마음 가는 대로 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이상 코스프레를 할 생각이면 완벽하게 준비해두면 좋겠다. 노란 머리의 미소녀 캐릭터를 코스프레하면 서까래 머리에 화장 안 한 얼굴로 드레스만 덩그러니 입고 있으면 어쩌란 말인가? 의상만 걸치는 게 코스프레는 아니다.

>>> 우리나라도 일본의 '코믹 마켓'처럼 코스어가 따로 모이는 행사가 있나?

서울과 부산에 코믹월드인 이름으로 한두 달 간격으로 개최된다. 행사장에 다른 행사가 겹칠 때도 많아서 일반인과 코스어가 어우러지는 모습도 자주 목격된다. 다만 코스어들의 나이가 어리다 보니 행사장은 다소 무질서한 편이다. 주최 측에서 코스프레 등록제를 비롯해 다양한 규제 방침을 내놓았지만 큰 힘을 발휘하진 못했다. 하지만 코믹월드는 코스프레뿐 아니라 만화 전반에 걸친 행사다. 입장료도 4천 원 정도로 부담스럽지 않으니 시간이 된다면 가볍게 즐겨볼 만하다.

>>> 코스프레(라고 쓰고 코스어)에 관심 있는 이를 위해 사이트 하나 추천해달라. 지금 좀 당시 사진을 보고 불끈불끈하는 독자가 많을 거다.

한글말대([www.kcunion.org](http://www.kcunion.org)). 코스어의 미니홈피처럼 꾸며놓았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코스어가 있으면 한 큐에 모든 코스프레를 감상할 수 있다. 수준 높은 코스어가 대거 포진해 있어 안구 정화에도 그만이다.

>>> 코스어를 업으로 삼을 건가? 우리나라에서 코스로 밥 먹고 살기는 힘들어 보인다. 아직은 우리지만 이루고 싶은 꿈이자 목표다. 일단 코스어로서 많은 콘텐츠를 축적하는 게 우선 과제다.

>>> 지난 5월호에 등장한 당신의 코스프레에 MAXIM 독자는 열광적인 지지를 보냈다. 좋은 잡지. 좋은 독자 앞으로도 열렬한 사랑을 부탁한다.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마지막으로, "여자가 오덕인 게 뭐 어때냐!"



#### COSPLAY INTRO

### 코스프레 입문기

이 정도는 알고 시작하라.

1. 작품과 캐릭터를 사랑하라  
작품과 캐릭터를 사랑해야 분위기가 살릴 소용 하나라도 더 생기게 된다. 이게 바로 싱크로율과 직결한다.
2. 표정과 포즈를 연습하라  
코스어는 예쁘다고 거만 떠는 아이(들)이 아니다. 무묘정한 표정으로 일관할 거면 코스프레는 접어치워라. 코스어에선 연기력이 필수다.
3. 사람들 불편하게 하지 마라  
공공장소에서 과도한 노출 또는 미칠갑 캐릭터의 코스프레는 삼가자. 이런 코스프레가 아니라 공연 음란차원 일이다.



# 피규어, 이 손 안에 있소이다!

슬램덩크, 복두의 권, 베르세르크, 드래곤볼, 나루토 등 멋진 피규어가 가득한 보물 상자 같은 블로그가 MAXIM 눈에 포착됐다. 즐겨 찾지만 할 수가 없지? BY 권기용 IMAGES 모든 피규어는 MAXIM 제공



## WHO IS HE?

ID HANDS, 본명 송준호, 36세, 현재 공공 디자인 관련 일을 하고 있으며 피규어를 만들어 네티즌에게 자랑하는 걸 취미로 삼고 있다. 그의 다른 작품과 제작 과정은 <http://blog.naver.com/sjunho77>에서 볼 수 있다.



헨즈의 첫 작품이다. (드래곤 리자)를 읽고 만들었다고.



만든 것 중 가장 큰 작품인 2캐릭터 마장이다.



헨즈가 가장 애착을 보이는 작품은 (켄피츠)의 에이스.



(베르세르크)의 조드, 수습 못하고 결국 제작 중단한 작품이다.



(헨피츠)의 한수영,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 완성한 작품이다.

어쩌다 피규어 제작이라는, 프로페셔널한 동시에 초 오덕스런 취미를 갖게 되었나?

핀타지 소설 (드래곤 리자)을 읽고 머릿속에 이미지가 맴돌아 시작했다. 드래곤이 첫 작품인 셈이다. 최근엔 나와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을 점점 많이 알아가고 있다.

당신이 그중에서 최고인가?

작품에 대한 평가는 개인의 취향이다(웃음).

작품 만드는 재주는 타고난 것인가?

어릴 때부터 쫓아내는 걸 좋아했다. 타고났다고보다 많이 좋아한다. 그리고 난 미래 나온 남자다.

손재주가 없는 사람도 배우면 피규어를 만들 수 있을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뒀든 처음 시작이 어려운 법이다.

피규어는 무엇으로 만드나?

시바틀과 예복시 파티, 핏자국이나 녹스 자국, 돌 표면 같은 건 킴으로 표현한다. 모형 기법을 따로 배운 적은 없다. 부족한 실력으로 그냥 흉내만 내는 정도다.

만화 캐릭터를 피규어로 재현할 때 비을 계산이 어렵진 않나?

프로그 아니어서 제약받지 않고 자유롭게 작업을 한다. 그래서인지 어렵진 않다.

한 번 시작한 작품은 완성할 때까지 집요하게 작업하는 편인가?

일을 버려놓고 수습을 잘 못하는 성격이다. 의욕이 앞서 너무 크게 만들기 시작해 중간중간 다른 작품을 만지느라 구석에 밀어놓았던 녀석이 있다. 결국 5개월이나 걸려 완성했다.

최근에 만들고 있는 작품은 무엇인가?

<복두의 권> 캐릭터를 다시 작업하고 있다. 얼마 전에 게임이 나왔는데 의상이나 분위기가 흡사 있었는데 바뀐 일러스트를 보고 반해버렸다. 곧 완성될 것 같다.

작품 의뢰도 받나? 실물 사이즈로 가상 예안 하나만 만들어달라.

스스로 실력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때 받을 생각이다.

제작한 피규어를 팔 생각은 있나?

이직은 많이 부족하다. 이것도 실력이 된다고 느껴지면 그때 팔겠다.

전시회를 열며 실물 피규어를 자랑하고 싶지 않나?

항상 생각하고 있다. 다만 전시회를 연다면 만화 캐릭터가 아닌 상상 속 모형 피규어를 창조하고 싶다. 글로 쓰는 핀타지가 아닌 모형으로 보여주는 핀타지일까?

MAXIM에 소개됐으니 블로그 방문자가 텍사스 돌판 스타 매처링 물러들 텐데 기본 익숙하겠나.

인터뷰 요청이 왔을 때 기본이 아주 좋았다. 한편으로는 나보다 잘하는 사람도 많은데 내 실력으로 잡지에 나오도 될까 하는 걱정이 들어 망설이기도 했다. 그러나 나로 인해 많은 사람이 피규어 제작이라는 건전한 취미 생활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더 바랄 게 없다.

얼리어답터와 기기 오덕은 한결 차이다.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얼리어답터가 빠른 정보역으로 유행을 선도하는 사람이라면, 기기 오덕은 제품 그 자체를 좋아하고 잘 다루는 전문가다.

당신을 연예계의 스티브 잡스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다. 스티브 잡스라니! 당치않다. 난 사실 기기에 해박하다기보다 단 맛을 부리리다 보니 얼리어답터가 된 거다. 아이폰을 예쁘게 튜닝하고 싶어 웹사이트를 돌아다니다 적당한 금속 테두리를 발견했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이걸 교체해주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다. 그래서 해외 사이트에서 정보를 수집한 후 직접 교체했다. 분해한 순서와 반대로 조립했는데 그 다음 어렵지 않았다.

말은 쉽지만 그렇게 분해했다가 멸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내가 미래 출신이다. 현금권, 구도 등을 잘 접어먹고 과학적인 사고를 해야 하는데 그게 도움이 많이 됐다. 엄지손가락이 짧고 굵은 나 같은 사람이 손재주가 좋다는 소리로 곧잘 들렸다(웃음).

당신처럼 얼리어답터 성향을 가진 연예인은 없나요?  
후대론에 관해서는 브라이언이 최고다. 우리나라에 블랙베리가 번인용으로 들어왔을 때 개인용으로 쓰려고 알아봤더니 브라이언은 이미 사용 중이었다. 블랙베리를 개인용으로 개통한 건 브라이언에 이어 내가 2 번째일 거다.

아이패드 분해 동영상은 잘 봤다. 이제 튜닝할 일만 남았다.

분해 동영상을 봤다면 이야기가 빠르겠다. 솔직히 아이패드는 디자인이 워낙 잘 나왔다. 튜닝하는 게 오히려 의미가 될까봐 두려워 고민 중이다. 튜닝을 한다면 아이패드의 뒷면을 도색하는 정도에 그칠 거다.

당신이 수시로 둘러거리는 웹사이트는 궁금하다.

블랙베리, 아이폰 튜닝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sw-box.com을 자주 찾는다. 내 블로그를 방문한 사람들이 이곳에서 부품을 많이 구매하다 보니 종류가 다양해졌다.



## KOO MUSTS: 구준엽

야날만큼은 "양 고추 매큐렘"의 DJ 쿠가 아니라 얼리어답터 구준엽이었다. BY 강현 PHOTOGRAPHS BY ARC STUDIO



아이패드를 튜닝하면 작업 동영상은 올릴 거라 믿겠다.

이때 때로. 한때 내 블로그 일일 방문자가 60명도 채 되지 않을 때가 있었다. 영색이 연예인인데 이런 좀 심하다 싶어 2년 만에 블로그를 개편했다. 그리고 아이폰 튜닝 동영상을 올렸다. 그랬더니 3일 만에 6만 명이 블로그를 방문했다. 60명에서 6만 명. 우리 1,000배나 많은 인원이 내 블로그를 찾은 셈이다. 그만큼 이런 정보에 목마른 사람이 많다는 증거다.

아이패드 때문에 네티즌에게 중앙전파관리소에 신고를 당했다.

나에게 직접 연락은 오지 않았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두산 회장(방영)님을 불렀고 놀라질 생각이 있다(웃음). 줄도 베풀 없는 사람은 힘 세 사람 뒤에 붙는 게 정석이다.

양인인 헤디터도 있는데 연예인인 당신이 그렇게 말하곤 편리하다.

나도 일개 시인일 뿐이다. 당신과 다를 바 없다.

야자만큼 소중하게 생각하는 제품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헬멧과 장갑. 그리고 헤드 폰도

두 세상이 하나밖에 없는 제품이다. 그중 헤드폰은 정말 공을 많이 들였다. 소니에서 나온 DJ용 헤드폰인데 감성 색 제품은 없다. 헤드폰을 분해한 후 자동차 도장하는 곳에서 검정으로 도색했다. 큐비드 그냥 붙인 게 아니라 색 세공하듯 드릴로 구멍을 뚫어서 박았다. 여기에만 백 안을 때려박았다. 부르는 게 값일 만큼 뛰어난 퀄리티를 자랑하는 녀석이다.

얼리어답터로 삼가려면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겠다. 튜닝비가 꽤 많이 든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일단 튜닝에 착수하기 때문이다. 아이패드 같은 제품을 지를 때 목돈이 많이 든다. 매달 새로운 제품이 나오지도 않고, 그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제품만 구매하는 편이라서 3~4개월에 평균 1백만 원 정도 쓰는 것 같다.

출시되면 당장 지르겠다고 다짐한 제품이 있다면 살짝 귀찮게 달라.

아이폰 4세대다. 금속 느낌이 물심 통기는 디자인이 무척 마음에 든다. 출시가 되는 순간 3세대에서 바로 갈아탈 예정이다.

● 쿠 형님이 남자의 자질을 돋보이게 하는 3가지 아이템을 추천했다.

아이패드 "삶의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 일단 써봐라."

아이폰 "생활이 윤택해진다. 아이폰이부터 프로까지 모두 만족할 만큼 다양한 애플이 존재한다."

상성 NX00 "꼭꼭처럼 편하게 사용하면서 D3.R 로터는 시간을 얻을 수 있다. 최근 한정판으로 화이트 색상도 출시됐다."



**Don't Be Serious!  
Just Joy this moment!**

아이, 거기 인상 쓰고 있는 당신! 뭐가 그렇게 심각한 건데?  
 그냥 출겨, 여기 나가 왔잖아. 그녀를 보고 나면 이 생각이 들잖?  
**'아, 세상은 아름다워라!'**

BY: JINHEE WORDS BY: HANU PHOTOGRAPHY BY: ARC STUDIO HAIR: (전화번호 02-688-7888)  
 MAKE-UP: HANHEE (전화번호 02-688-7888) STYLING: 김민희 ASSISTANTS: 김민희



**Just Joy!!**

블루 민소매 티셔츠 CLUB MONACO  
형광 옐로 할리 브래지어 GUESS  
레드 워치 D&G watch by GALLERY O' CLOCK  
쇼츠 에디터 소장  
형광 옐로 슈즈 SHOESONE



시스루 반스매 티셔츠 PAPER  
레드 밴드웨어 GUESS  
토키오 모양의 반지 소쉬얼라스트 소장  
빅 사이즈 반지 ORSIA  
방글, 허브 무늬 반지, 소츠 모두 에디터 소장

스튜디오는 오전부터 들떠 있었다. 남자 스태프들은 평소와 달리 서로 촬영을 돕겠다고 다투었다. 그리고 그녀가 스튜디오로 들어왔을 때 촬영장이 완해졌다. 타인의 외모에 매우 아박한 MAXIM 여자 스태프들도 "예쁘다"를 1천 번 이상 연발했다. 전날 지방 공연을 했더니 천사 같은 미소를 날리던 밝고 명랑한 그녀, 요즘 가장 비싼다는 신에 J.U.!

**반갑다. MAXIM 독자들에게 자기소개를 부탁한다.**  
 가수 J.U.입니다! 너무 식상한가요? 가수 J.U. 하면 '아, 그 사람?' 하면서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도대체 지금까지 어디서 뭘 하다 지금 나타났나?**  
 주로 연습했다. 그 사이에 화보도 찍고, 마티티 마우스 피처링도 했다. 영화 <원스>에 꽃혀 기타를 배우기도 했고.

**화보 촬영이 꽤 능숙해 보이더라.**  
 처음 프로필 촬영할 땐 매매고 동작도 못 따라 해서 혼도 많이 났다. 하다 보니 노하우가 쌓이더라. 이런 게 연륜인가?

**키가 아주 그냥 크다. 에디터(키는 183cm이나 장신인 루자)에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하하하. 나로서 영광이다.

**내 남자는 이것 하나만은 갖춰야 한다는 것이 있던가? 예를 들어 나처럼 전뿔하다거나.**  
 성실한 사람,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남자가 좋다.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 몰두하는 남자가 내 스타일이다. 생활의 달인이라는 인상을 주는 남자!

**음, 완전 나군. 그렇다면 좋아하는 남자에게 먼저 고백하는 스타일인가, 아니면 고백하게 만드는 스타일인가?**  
 고백을 해본 적은 없다. 그저 유도만? 하하하

**정우성과 짝은 화보가 화제였다. 에디터 같은 평범한 남자와 정우성을 비교하자면?**  
 나도 가수지만 너무 긴장해서 전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다. 정우성 씨가 노련하게 리드해주고 자상하게 시범도 보여줘서 촬영을 편하게 따라갈 수 있었다.

**이런 쟁쟁, 티가 있었었던 것인가?**  
 티가 같은 건 없었다.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나?**  
 이효리를 정말 좋아한다. '이번에 같은 무대에 서게 돼서 정말 좋았다. 힘을 질질 흘리면서 봤다.'

**우리는 당신을 보며 힘을 질질 흘린다. 궁금한 것은 여자 연예인이 아니라 남자 연예인이다.**  
 남자 연예인들은 다 좋네. 다들 훈훈하. 하하하.

**본명은 김경아다. 아주 흔하지만 예쁜 이름인데 왜 가수 활동할 때 쓰는 이름을 J.U로 정했나?**  
 소속사 사장님이 일을 부딪 갖지 말고 즐기라는 뜻으로 Just Joy, 줄여서 J.U라고 지어졌다.

**소속사는 남남엔터테인먼트인데, 사장님이 원래 그렇게 반복되는 어감을 좋아하나? 남남 팝스...**  
 듣고 보니 그렇네! 까르륵, 가요계를 남남 조금씩 먹어가는 뜻이다.

**'점점 더'로 인지도를 얻고 있다. 점점 더 뭘 어찌겠다는 건가? 우리를 유혹하려고?**  
 사실 뭐 그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지만, 친구님 줄 알았는데 점점 더 너를 좋아하게 됐다는 내용이다. 고백하도록 유도하는? 하하.

**마티티 마우스의 '사랑해' 피처링 때와 다른 점이 있던가?**  
 노래가 사랑받아서 좋지만, 아무래도 내 노래가 아니다 보니 너무 사랑받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지금 내 노래를 사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소중하고 행복하다.

**다른 분야로 진출하려는 계획도 있는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종 목표는?**  
 안 그래도 연기 쪽을 생각하고 있다. 육성은 많은데 그걸 다 해내자면 몸이 열 개라도 모자라다. 시트콤으로 시작했으면 한다.

**쉬는 시간이나 혼자 있을 때는 뭐하나?**  
 중국 진출을 위해 중국어를 배우고 있다. 기타는 요즘 거의 못하고 있고, 필라테스 운동하고, 책 읽고, 춤 연습은 매일 한다.

**미니홈피나 트위터 같은 것은 이용하나?**  
 사실 관망이라 안 했는데 팬들의 권유로 하게 됐다. 팬들이 미니홈피 방문록을 통해 모니터링 많이 해준다. 얼마 전 트위터도 시작했는데 나한테는 너무 어렵다.

**나랑 일촌 맞아, 도토리 줄 테니.**  
 좋다. 팬들의 일촌 신청은 매니저가 아니라 내가 직접 받아준다.

**어떤 남자라면 변호를 찍어줄 수 있겠나?**  
 너무 깔끔결렁한 남자만 아니면 된다.

**그럼 전화번호 좀... 내가 휴대번호 숫자로 사람의 운명을 짐작하는 신기가 있다.**  
 당신은 깔랑대는 것 같은데!





그레이 드 PUMA  
네이버 버가니 TOMMY HILFGER  
반지와 링은 안드레아 파올로 소장  
리드 스포츠 GCPX  
그레이 시즈 SHOESONE

“  
이호리를 정말 좋아한다. 이번에 같은 무대에  
서게 돼서 정말 좋았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봤다.”





“

남자에게 먼저 고백을 해본 적은 없다.

내가 고백을 유도한 적은 있다.”





벨로 드 **REPLAY**  
네이비 바키니 **TOMMY HILFGER**  
두꺼운 벨크 스타일리스트 소장  
니퍼지 벨크 모두 에디터 소장  
반지 **ORSA**  
채크 무늬 쇼츠 **VANS**



“  
얼마 전 트위터도 시작했는데  
나한테는 너무 어렵다.”



“  
지금 내 노래로 사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소중한 행복하다.”



라이프 오피셜 인스피레이션 티셔츠 PAPER  
윙크 안경이 GUESS  
컬러풀한 세간의 핫 시계  
Paul Smith watch by GALLERY O' CLOCK  
큐빅 반지 ORSA  
화이트 슈즈 Domnicchi by Soda  
문구를 세진 막대 사탕 pepabubble

PIMP YOUR GIRL

“ 다 뜯어 고쳐줄게. ”



# 여자친구 개조하는 법

## 스타일 편

구입한 오래된 자동차는 손에 익어 내 몸처럼 편하다. 하지만 미끈한 신차가 옆을 지나가면 눈길을 빼앗긴다. 내 차를 바꿀 여유는 없는데 뭔가 아쉬울 때, 우리 튜닝러일 것 같다. 연애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자친구를 늘 새 차처럼 유지·보수하는 팁을 소개한다. 그녀도 모르게 말이다. BY 어빙에 IMAGE 로트 렌디 엔터테인먼트(Dreamstime.com)

### 주의사항

1. 모든 튜닝이 같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2. 튜닝에 너무 빠지면 밀도 끝도 없이 돈이 나간다. 새 차 비용보다 더.
3. 잘 튜닝된 자동차는 당신 곁을 떠날지도 모르니 죽 써서 개 주지 않도록 관리할 것.
4. 아마 그녀는 당신의 튜닝 전략을 이미 눈치채고 있을 테지만 속아주는 척 할 거다.

### 그녀의 늘어난 몸무게를 줄이려면

그녀들은 종종 “나 요즘 살찌 보이지?” 라고 묻는다. 당신은 속으로 이렇게 외친다. ‘살찌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살이 빠져 그런 거야!’ 겉잡다. 예쁘다. 난 너의 그런 점을 사랑한다... 일단 대답은 그렇게 해냈다. 잘 참았다. 이제 당신의 행동은?

**DON'T** 다른 여자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한다. “자기가, 저거 봐, 새 갈비뼈 튀어나온 거. 유두가 갈비뼈에 걸 정도로 딱딱 파인 갈비뼈가 너무 sexy하지 않아?” 또는 그녀가 먹는 식사에 대해 기생충 일을 섞는다.

**DO** 천하장사 소시지마냥 속이 꽉 찬 그녀, 식단을 바꿔야 한다. 그녀에게 요리를 해줘라. 단, 저칼로리로. 이제 문제는 정보기부터 시작이다. 돌이 깨스금 향 풍기며 마트 안에서 카트를 끌고 다니다 보면 늘 육류 코너와 냉동식품(삼겹살은 안두. 중간은 치킨 나겟. 마무리는 냉면) 앞에서 발을 멈추고 사식을 하게 된다. 장보기는 혼자 가라! 당신이 고를 재료를 연어, 버섯, 샐러드를 만든 토마토와 각종 야채 등이다. 자, 당신은 그녀에게 드레싱이 거의 없는 올리브와 토마토 샐러드, 삶은 연어요리 등을 먹었다. 디저트는 글썽, 여기서 넘어가면 지는 거다! 다른 것으로 그녀의 흥미를 돌리라. 가장 이상적인 흥미거리는 역시 살기... 이 방법의 장점은 그녀가 초감동한다는 것. 단점은 계속 할 수 없다는 점.

또 다른 방법이 있다. 같이 운동을 하라. 당신이 평소에 걷고 달은 근육의 풀개감을 과시할 형편이 된다면 헬스장이 가장 좋겠다. 당신 여인이 평소엔 입에 달고 다니는 ‘왜 나랑 안 놀아주냐’는 징징거림도 함께 운동을 하는 걸로 해소하니 일석이조. 참고로 여자들은 데이트 상대의 몸이 좋을수록 외모에 신경 쓴다. 그러니 당신이 먼저 몸을 만들고 스타일에 신경 쓰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보니 그녀가 몸매에 대실만한 데면 다 이유가 있겠다.

**작전 실패 시** 그녀 주변에 모든 음식을 먹여치우라. “이게 다 널 사랑해서 그런 거야!” 라고 외치며 울면서 최대한 게걸스럽게 먹어야 효과가 있다.

### 그녀의 옷차림을 sexy하게 바꾸려면

다리가 몹시 짧아 보이는 배기팬츠, <소>도 아니면서 늘 고르는 옷은 나이에 안 맞는 티셔츠, 심지어 팬티는 늘 3장에 만 원들이 포장을 구입하는 그녀. 이런 좀 문제 있다. 멀쩡한 강줄기도 바꾸는 세상이다. 스타일 바꾸는 건 식은 죽 먹기다!

**DON'T** 그녀 옷장 속 옷들을 다 고집어낸다. 그중 당신 맘에 드는 것을 발견하면 주저 말고 걸쳐 입은 뒤 허리엔 안 손등을 얹고 한쪽 눈만 애교 있게 찌푸리며 말하라. “봐 이렇게 입으면 말이야!”

**DO** 방법은 하나. 당신 맘에 드는 sexy한 옷과 아이템을 선물한다. 아이템 선정은 전적으로 당신 취향에 달렸지만 다리가 드러나는 미니스커트나 원피스면 거부감이 적다. 원래 sexy한 옷을 잘 입는 여자라면 그 정도가 좋다. 의외로 리안이 작아라 하게 보이는 스카니진이나 레깅스류는 더 부담스러워하는 여자가 적지 않다. 통통 녀가 날씬해 보이는 스타일은 비치기 아니라 짧은 치마라는 것만 명심하면 그리 어렵지 않다. 이제 sexy하게 변신한 여인이 주변의 관심을 받을 수 있게 만든다. 예를 들어 sexy하게 보이는 날은 클럽이나 변화기를 거닐어 시선을 받게 하는 거다. 그리고 당신이 솔직 뿌듯하다는 표현으로 “저 저 남자가 니 다리에서 눈을 못 떼다. 나처럼.” 정도의 멘트를 날려주면 그녀는 이제 주구장창 그 스타일만 입게 될지도 다른 남자들이 치근대기까지 하면 효과는 떠는 당생 (물론 그녀가 당신이라는 게미지육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입구를 잘 봉해놓는 것도 필요하다.) 이 방법은 당신을 아주 후한 남자친구로 보이게 한다. 그녀 친구들 사이에서 당신은 ‘여친에게 선물을 자주 사줘 여친 버릇 맞지는 바람직한?’ 남친’으로 통하게 된다. 아마 여친은 곤란하다는 표정으로 당신이 사준 옷을 입고 “야, 정말 이런 거 부담스러운데. 계속 받기만 해도 될까?” 리며 친구들에게 우물대는 상황을 만끽하게 될 거다.

**작전 실패 시** 함께 쇼핑을 간다. 그리고 당신 맘에 안 드는 옷을 고를 때마다 무조건 “그런 옷 입으면 너 똥통해 보여” 라고 말한다. 진지하게.



# THE HOTTEST UFC OCTAGON GIRL ARIANNY CELESTE UNCAGED

UFC에서 가장 핫한 옥타곤 걸 아리아니 셀레스트가 그라운드 밖으로 뒤흔쳐나왔다. 오직 당신을 위해

BY JESSE BRUKMAN

PHOTOGRAPHS BY JEFF OLSON







“ 난 전갈자리라 ”  
좀 미친 구석이 있다.

## “아니 도대체 재는 누구야!”

(우리를 포함한) 많은 이가 그녀의 탄력 있고 여성스러운 배가 UFC 경기 중간에 등장할 때마다 구굴 앞으로 달려가서 그녀의 정체를 검색했다.

이 사랑스러운 생명체는 2008년 MAXIM USA의 홈타운 핫타운(Hometown Hotties) 톱 10에 선정됐으며, 3년 동안 UFC에서 활약한 옥타곤 걸 아리아니 셀레스트라.

## 자, 드디어 그녀가 왔다:

### 아리아니 셀레스트라

**어쩌다 UFC에 들어왔나?**  
처음에는 내가 어떤 세계에 발을 들였는지 전혀 몰랐다. 에이전트로부터 옥타곤 길을 뚫는다는 연락을 받고 다른 오디션과 마찬가지로 단체 오디션을 봤다. 그쪽에선 섹시하고 탄탄한 체격의 여자를 찾고 있었다. 오디션 장면에는 UFC 대표인 바로 그 그녀가 화이트도 있었다. 몇 가지 질문을 받았고 웃을 걸쳐봤다. 그게 다였다.

**다른 여자들과 싸워보라고 시키던가?**

전혀 그런 건 안 시키더라. 지금은 한 방 먹일 수 있지만(웃음).

**MMA 트레이닝 덕분에?**

맞다. 지금은 킥복싱과 무에타이를 배우고 있다. 체조는 원래 몇 년 동안 계속 했었고, 난 정말 유연하고 워밍업 잘한다.

**와우 예뻐 들먼?**

이공간질을 가지고 있고, 곱파 지도 할 수 있다.

**머리가 이상해질 것 같다. 다른 애기로 넘어가자. 잘못된 일 앞에서 못 끊는 약취미가 있나?**

영화관에서 물레 초콜릿 먹는 거랑 영화관 매두기 뛰는 걸 좋아한다. 티켓 한 장으로 여러 영화를 보는 거다. 고등학교 때는 정말 자주 했었다.

**영화 속 인물이 된다면 하고 싶나?**

가수가 되고 싶다. 사람들이 내 노래를 듣고 즐거워하고 같이 춤추면 좋겠다. 배우도 되고 싶다. 연기할 몇 번 해봤는데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게 내겐 굉장히 자연스럽고 쉬웠다. 타고난 재능이 좀 있나 보다. 어쨌든 연기가 너무 좋다.

**UFC가 변한 게 있다면?**

많이 변했다. 초기에는 작은 무

대에 많이 섰다. 예너하임에서 했던 첫 번째 파티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최근에는 웨딩에서도 종종 활동한다.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호주에서 돌아왔고, 곧 두바이도 방문한다.

**지나 카라노(Gina Carrano) 같은 사람과 링 위에서 한판 붙을 생각이 있나?**

얼굴을 맞을 것 같아서 싫다. 굉장히 한판 붙으려면 나보다 힘이 더 세야 할걸? 난 여자는 여자다워야 한다고 본다.

**그럼 당신은 슈퍼 마초한테 좋아하는 편인가?**

전혀. 사람들은 내가 식스팩 갖춘 남자만 사귀려 생각한다. 생각을 해봐라. 난 언제나 식스팩에 둘러싸여 있다. 식스팩이 싫은 건 아니지만 난 외모는 안 본다. 덕후도 좋고, 날 웃기는 남자도 좋다. 조용하면서도 강한 타입이랄까? 모든 이의 관심을 억지로 받으려고 설치지 않으면서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남자가 좋다. 아쨌거나 난 전갈자 리라 좀 미친 구석이 있다. 날 건들지 않는 게 좋을거다.

**워워, 조심하겠네! 요즘 만나는 사람은 있나?**

내 팬의 졸업 파티 파티너를 하기로 했다.

**진심인가?**

얼굴값 싼짜리 귀여운 남학생인데 유튜브에 졸업 파티 파티너가 되어달라는 동영상 시리즈를 올렸다. 심지어 “내 파티너가 되어주세요” 라는 피켓을 들고 경기장에도 찾아 왔다. 너무 귀여워서 하겠다고 했다. 정성이 가늠하니깐.

**그 행운아는 당신이랑 진도 좀 뵈 수 있을까?**

아니 흠. 아마도? 흠. 모르겠다! 개가 능숙하게 잘한다면...



A woman with long, dark brown hair is lying on her stomach on a lush green lawn. She is propped up on her elbows, looking directly at the camera with a slight smile. Her hair is blowing in the wind. The background is a vast field of green grass under bright, natural light.

“ 난 정말 유연하고  
뭐든지 잘한다. ”





# INDIE NEVER DIE.



## MAXIM

### 인디밴드 습격기!

indie

건공들이 파질러 자고 있던 5월의 어느 날 MAXIM이 인디밴드 공연장을 급습했다. 화장한 날씨 덕분이었을까? 아니면 MAXIM의 출연을 예상한 걸까? 후끈한 열기 때문 찾아볼 수 없는 텅 빈 객석만이 에디터를 반겼다. 하지만 그들 쿨의 프레디 머큐리 형님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공연은 계속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인디밴드들 역시 8명 남짓한 관객 앞에서 단 한 번도 인상을 찌푸리지 않은 채 열정적인 공연을 펼쳤다. 어색해하는 관객들을 격려하며 음악을 즐기는 그들은 '인디정신' 이 끝수까지 박힌 진짜배기 뮤지션이었다.

BY 김성현 PHOTOGRAPHS BY ARC STUDIO



# HLIN



**롤링홀**  
07:30 PM  
(후린)을 위로하다

**5월 9일 롤링홀**  
07:00 PM  
롤링홀 도착



충무로 펍컴 사이터에서 밴드 가음방학과 인터뷰를 끝내고 흥대 롤링홀에 총알 택시를 타고 넘어왔더니 저녁 7시였다. 가음방학과 무슨 이야기로 했는지는 좀 있다 길게 별을 물어주겠다. 조바심 내지 말고 이곳 이야기로 집중하라. 슬직히 인디밴드의 공연을 보면서 마담의 압박 따윈 접어두고 신나게 놀 생각이였다. 그러면 대사의 신이 강림해서 글도 잘 써질 거라고 최민까지 걸었다. 그러나 현실은 대명망 크래! 공연장엔 이수영의 노래 제목처럼 8명의 관객만이 '영그리니' 방치되어 있었다. 다른 팀을 인터뷰하러 대기실에 가는 게 무대 위 뮤지션에게 미안할 정도였다. 지난 기획회의에서 6월을 맞이해 신선훈 인디밴드와 그들에게 열광하는 관객의 액티브한 모습을 담아 오겠노라고 호언장담한 에디터는 멸망. 그것도 대명망했다. 공연이 끝난 후 관객을 인터뷰하겠다는 계획도 우주로 날아갔다.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관객이 없는데 인터뷰는 개뿤. 공연장 바깥 하늘은 맑았으나 에디터의 눈에 비친 하늘은 노랬다. 그것도 아주 섣노랬다. 에디터의 슬픈 운명을 마치 예감이라도 하듯이 말이다.

그렇게 멸망의 기운은 운몽에 휘감고 대기실에 퍼져 있는 그들 후린을 만났다. 그들은 에디터의 등장엔 '이건 뭐야?' 라는 시선을 보냈지만 MAXIMO라고 안심시키니 이내 순순히 말을 열었다. 후린은 위로의 여신이란 의미다. 모르는 게 당연하다. 우리에게 위로의 여신 따윈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멤버 5명의 음악 취향이 제멋대로인데 하나로 합쳤더니 심각하고 우울한 음악이 만들어졌었다. 시꺼먼 남자 5명이 모이면 심각하고 우울할 일밖에 없는 게 사시나! 이해한다. 게다가 음악이 시끄럽기까지 하니 공연을 듣는 관객들이 귀를 막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답답한 공연에서도 귀를 막거나, 자리를 옮기는 관객이 3명 있었다). 그들은 영구처럼 우리나라도 록 밴드의 인기가 많아야 한다고 역설했지만 현실은 시궁창이다. 지금까 지 수차례 공연을 했지만 여자 팬이 데이트하라고 달려든 적은 한 번도 없다. 감정이 복받친 걸까? 리드 김유석은 갑자기 MAXIMO 군바리들이나 특실거리라는 잡지나 잘 보일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이 말을 들은 에디터는 지난 4월 30일 발매된 EP 음반 (33060)의 소개를 접을까도 생각했지만 그들이 MAXIM 편집부처럼 술과 담배를 창작활동의 자양분으로 삼아 자기 골리는 대로 음악활동을 하는 밴드기에 참기로 했다. (33060) 음반에 수록된 '색은나루'.



제길, (스타킹)이다 나랑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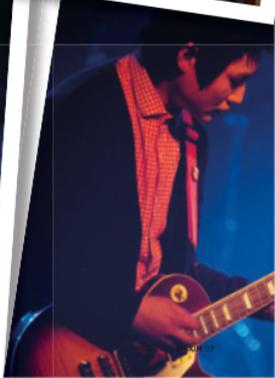
"연가시"는 한 번쯤 쟁겨 들을 직한 잘 빠진 곡이나 기억해두면 좋을 거다. 그들은 대기실 옆 계단에서 담배 연기로 도넛을 만들며 공연 순서를 기다리다 난데없이 고고 보이즈라는 밴드를 추천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친한 밴드인데다가 본인의 음악보다 '좋지 않다'는 거다. 노래와 달리 정말 유쾌한 친구들이었다.



여자 팬의 데이트 신청 따윈 한 번도 없었지.



부우우, 후린이 왔잖아!





말리 찍어라. 뒤에 가야 한다.



좌로부터 정민재, 장정아, 김유석, 위수철, 오혜석



**롤링홀**

08:00 PM

〈얼굴 빨개지는 아이〉의 등장

홀리과의 인터뷰가 끝날 무렵 얼굴 빨개지는 아이가 공연을 끝내고 대기실에 들어섰다. 책 쪽 읽은 사람에게겐 장 지크 상베의 〈얼굴 빨개지는 아이〉가 먼저 떠오르겠지만 여기서 밴드명이다. 홀리과의 미남 보컬이 군대를 간 상황에서 마냥 놀긴 좋아 후신 멤버들이 알고 지내던 여자 보컬 정정아를 영입해 알반을 냈다. 추구하는 음악은 '어쿠스틱+일렉트로나+슈가 팝' 이란다. 에디터의 녹취를 들었더니 웅변 톤으로 말해준 것 고마웠지만 이해 불가였다. 그냥 듣기 편하고 재미있는 음악 정도로 기억해두자. 여자 팬이 많으냐고 물었다니 남자로 점철된 홀리건 시절에는 장난이 아니었다고 뻔뻔하게 답했다. 자신들의 외모가 출중하니 당연한 결과란 거다. 사실 영화에 출연한 훈남 베이스 오혜석 씨야 그걸다손 쳐도 나머지 멤버는 비오형 가수 외 거리가 멀었다. 심지어 여자 팬들이 자신들을 너무 어렵게 생각해 다가오지 않는다고 보자 쉽게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걸 허접무 감동이 무재배로 월드컵 우승을 차지하는 것만큼이나 믿기 힘든 일이다. 난감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월드컵 맥밥을 던졌다. 2006년 월드컵 당시 홀리건은 'We Are One Korea' 라는 응원가로 재미를 봤다. 이번에도 월드컵 승으로 행사를 뒤흔기 때문에 보다 많은 행사 유치를 위해선 우리나라가 반드시 좋은 성적을 거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들은 로로스(Lobs), 소녀시대의 비의 음악이라고 쓰고 몸이라고 읽는다를 추천하며 대가심을 떠났는데 팀 리더 김유석 씨는 "소녀시대의 'Gee' 아발로 최대의 명곡!" 이라고 덧붙였다. 에디터를 비롯한 MAXIM 편집부 역시 크게 공감하는 바다.



타치고 연주나 해라.



소녀시대가 최고지.

**얼굴 빨개지는 아이**



예전에 인기 장난 아니었지, 우리 출중하니까.



여기가 제 매력이지, 팔자주름.



관객 2명 앞에서 공연해왔어!  
최로부터 서상욱, 조은정, 함인휘, 임승기전



우리 해봐!



그나마 그 활동 나가버렸지

**돌링홀**  
08:30 PM  
(제8극장과 조우)

공연이 막바지에 다다를 무렵 제8극장이 범상치 않은 복경을 입고 등장했다. 그들은 대기실에서 추노꾼처럼 머리를 묶은 에디터를 보고 놀랐지만 매니저의 미안. 내가 미처 얘기를 못했었다"는 한미디에 침착함을 되찾았다. 7~80년대 록음악과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가슴에 품은 이 친구들은 쇼 비즈니스가 무엇인지 잘 안다. 돈에 환장한 게 아니다. 임정료 1인5천 원의 가치를 안다는 소리다. 톱 끼놓고 말해서 이 돈이면 PC방 야간 장역을 잡고 라면에 과자를 처먹어먹히거나 롯데월드 자유이용권도 지출 수 있다. 돈을 받은 이상 관객이 본전 생

각 안 나도록 즐거운 공연을 선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뮤지컬은 물론이고 무대에서 언제든지 저글링스 타크레프트의 저글링이 아니더라도 준비가 되어 있다. 에디터가 생명한 공연장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 물으니 8명 정도면 공연하기엔 딱을 차고도 남는다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보컬 서상욱은 "평일 클럽 공연에서 여자 관객 2명을 상대로 공연한 적이 있는데 약속 때문에 2명 모두 급히 빠져나가는 바람에 공연이 중단됐다. 클럽 오디션이나 다름없어서 가지 말라고 불렀었는데 소용없었다. 글로 물론 정말 슬픈 이야기인데 실제 상황에서는 멤버 모두가 대폭소할 만큼 재밌었다"고 말했다. 녀석 좋고 능글능글한 이들이 뭉친 그룹이라 공연이 끝난 후 여자가 먼저 줄서서 데이트하자고 덤지 않게 물어봤지만 그

**제 8극장**

런 경우는 지금까지 3번 정도 밖에 (그래도 홀린보도 3배 앞선 기록이지만) 없었다. 사실 제8극장은 음반보다 무대에서의 라이브가 더욱 빛나는 그룹이다. 세상 살기가 갑갑한 이라면 그들의 공연을 보며 고간 생인 스트레스를 풀어주어 좋을 거다. 다소 뜬금없지만 제8극장도 월드급 공식 응원가 '우리는 이간다'를 내놓았다. 제목은 죽을 만큼 촌스럽지만 70~80년대 포스를 풍기는 제8극장에게는 오히려 적절한 수준의 촌티다.



푸쳐 원샷!



미이크를 뛰어버릴거야.

**NEW STAR**  
학대범  
공연장에서 보석을 건넸다

아리따운 여자 공연 막바지에 세트를 입장하게 제8극장의 팬이 확신하고 말을 건넰다. 그런데 이게 웬걸 그녀는 박새로 천재소녀라는 별명을 가진 뮤지션이었다. 이듬해 따라 인 생이 결정된다는 미신 따윈 믿지 않던 그녀를 보면 살짝 마음이 흔들린다. 루시드 폴, 우희 같은 1세대 뮤지션을 내놓았다. 정식 작곡, 편곡 등 모든 작업은 그녀의 손을 거쳤다. 이렇게 독무대라는 그녀가 직접 '제8극장의 팬이다'라는 말을 내뱉는 순간 에디터는 제8극장의 열혈 안티가 되기로 결심했다.

제가 쿨 귀엽죠?

**롤링홀**  
09:10 PM  
Goodbye~!

5월 9일 롤링홀의 스페셜 라이브 콘서트는 이렇게 막을 내렸다. 공연의 피날레를 장식한 제8극장의 맛깔난 입담과 신나는 음악은 에디터의 마음을 한결 가볍게 해줬지만 밴드와 관객이 하나가 된 시간은 어디로도 구할 길이 없었다. 홀린 리더 한용훈의 말마따나 디디엔드 공연을 찾는 팬이 예전에 비해 확 줄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날 공연한 그들의 실력만큼은 예전 못지않았다. 아이들 음악도 나름의 미덕이 있지만 샌더를 음악이 듣고 싶다면 흥대의 라이브 클럽을 찾아라. 숨은 보석 같은 디디엔드를 찾는 것도 즐거운 일이 될 거다. 흥대의 디디엔드는 아직 죽지 않았다.

# 가을방학

방에서 노래의 역량이 속속



게피



장민비



## 5월 9일 웹캠 피어터

06:00 PM

(가을방학) 인터뷰

당신이 페이지를 잘못 넘긴 게 아니냐 놀라지 마라. 이번 가을방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다. 그들과의 만남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유현담!' 에디터가 인지는 질문에 재기 넘치는 답변으로 돌아치는 그들이 사랑스러웠다. 인터뷰 내용은 다소 길지만 재미는 보장한다. 믿어달라.

### 왜 하필 가을방학인가?

**바비:** 이름 짓는 일을 제일피할 미루다 작년 가을 디지털 싱글 발매를 앞두고 자포자기식으로 정했다. 물론 지금은 꽤 재미 붙었다. 사석에선 '갈뎡', 'Aut(Autumn Vacation)'로 부른다.

**게피:** 때로 녹음은 한 곡 중 제일 마음에 든 게 '가을방학'이었다. 사실 이름도 마음에 있었는데 지인의 격한 반대로 쓰지 못했다.

### 가을방학이 존재해야 할 이유는 뭔가? 가을방학이 있다면 당신들은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 생각인가?

**바비:** 걸 헌팅으로 시간을 보낼 거다. 봄이 아름다움 사랑할 공구는 계절이라면 가을은 그 공이 갠 실연녀를 리우든드러기 안성맞춤인 계절로 예로부터 전해져 왔다.  
**게피:** 학업 보충이 없는 봄방학의 존재 이유와 동일하다. 가을방학에 할 일은 노코멘트.

### 가을방학은 게피와 바비의 프로젝트 그룹이다. 함께 작업하고픈 멤버가 있는지 궁금하다.

**바비:** 가을방학은 내가 쓴 곡, 그리고 그 곡들의 페르소나인 게피의 목소리로 이뤄졌다. 편곡에 다채로움을 더해 해줄 건반 주자가 팀에 있으면 편할 것 같다. 적격한 인물이 있었는데 올해에 딸린 아빠가 되고 말았다.

**게피:** 현재로서는 없다. 향후 계획은 일단 1집 앨범을 무사히 내놓는 것.

### "가을방학 음반이 나오는 걸 기다리는 게 소중한 인생의 즐거움"이라 말하는 팬들도 있다.

**바비:** 옆에 있다면 격하게 안아드리고 싶을 만큼 고맙다. 단, 기다리는 게 즐거움이라면 궁극적으로는 앨범을 내지 말아야 하는 걸까라는 의문도 든다.

**게피:** 헬 나로서는 아해가 잘 가지 않지만 일단 고맙다. 가을방학에 지루함을 느끼지 못한단 뜻은 아니다.

### 둘서 작업한 12곡의 노래 중 세상과 만난 녀석은 단 2곡이다. 정규 음반에서 나머지 노래를 모두 만나볼 수 있나? 정규 음반에서 좋은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할 생각인가?

**바비:** 작업한 곡은 그새 더 늘었다. 모든 곡을 다 넣을 순 없고 선별할 예정이다.  
**게피:** 내가 보겠. 바비는 그 외 음악적인 부분을 모두 건들른다. 음반 커버는 함께 상의한다.

### 가을방학의 음악은 문장의 방침이 아니라 선풍 같다. 지금처럼 바쁘게 돌아가는 시대와 거리를 두는 느낌이 든다.

**게피:** 예전에 바비에게서 '사람들이 바빠서 미처 보지 못하고 지나치는 것들, 이름테면 비닐 정도도 세파만 하늘을 음악으로 밀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우리 음악을 선풍처럼 생각한다면 의도가 제대로 전달된 것 같아 기쁘다.  
**바비:**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다. 작업 초반에 있어 보이려고 한 말 같다. 게피의 목소리와 가사의 내용을 적절하게 전하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 의도적인 여백이나 선풍의 느낌이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이 든다.

### 다른 가수가 자신의 팬이라고 공공연히 말하면 기분 이요하겠나.

**바비:** 내가 그 사람과 음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다를 거다. 예전에 언니네 이발관 2집을 녹음하다 우연히 스튜디오에서 (이편 날)의 조동익 씨를 만났다. 그분이 언니네 이발관의 음악을 좋아한다고 얘기해줬을 때 정말 될 것 같았다. 그날은 밥이 달았다.  
**게피:** 그렇게 말해준 음악인은 클레어의 김경호 씨 한 명뿐이다.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답하려는 참이나 한 명이 더 생겼다. 언니네 이발관의 이석민 씨다. 보통은 내가 누군가의 팬이라고 말하는 편이다. 팀을 결성하기 전에도 인터뷰한 하연 줄리아 하트의 팬이라고 떠들었다. 가을방학은 너름 말이 새기 된 케이스다.

### 당신들이 생각하는 인디음악은 무엇인가?

**바비:** 인디는 좋아하는 바비 하나로 조곤 따지지 않고 사람을 사귀는 열정적인 연애다. 예전에는 인종(혹은 그 이상으로) 궁전적 조건, 가정 배경 등을 '현실적'으로 고려하는 결혼. 인디에서 성공한 다음 메이저로 넘어가는 건 연애 결혼. 데뷔부터 쪽 메이저로만 활동하는 경우는 중에 결혼이다. 메이저에서 저의 또는 타의에 의해 인디로 돌아오는 케이스는 돌싱, 인디만 죽어라 고집하는 건 자연연애로 설명할 수 있다. 뭐, 다 웃고자 하는 소리나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게피:** 인디 뮤지션들이 주류에 저항하는 세력은 아니다. 개개인이 특정한 정치관을 가질 순 있겠지만 인디 뮤지션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다. 그저 메이저 음악 이외의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단순히 모여 자신들의 음악을 발표하는 곳이 인디 씬이다.

### MAXIM 독자에게 하고픈 말이 있다면?

**게피:**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자가 섹스하는 237가지 이유 중엔 '연애'가 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가 한 항목이 있다고 한다. 결혼한 마음으로도 매사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바비:** 모든 멘트도 리플을 다는 친절한 여자의 트위터 twitter.com/gayep.





### 정반반

당신이 속한 또 하나의 그룹 '줄리아 하트'는 어떤 존재인지 10자로 요약해달라.  
사랑스러운 드로이 소녀.

계피가 당신의 팬아트 프로젝트 그룹을 결성한 건 아니겠지?

차분하고 센티멘탈한라고 쓰고 '죽충 처지는' 이라고 읽는다) 노래를 계피에게 맡기니 느낌이 확 살았다. 앞으로도 이런 노래를 지속적으로 만들 거란 판단에 프로젝트 그룹을 결성했다.

### 목소리의 장점은 무엇인가?

균형 감각, 감성적으로 매우 풍성하면서도 어느 순간 반짝하고 명징해지는 순간이 있다. 슬플 때 슬프더라도 이게 왜 가슴이 아파야 하는지 알아야겠다는 느낌이랄까? 기교보다는 타고난 음색의 개성과 매력으로 승부하던 80~90년대 여자 가수를 연상시키는 목소리다.

가을방향을 소개하는 글에서 "더 이상 공연장을 싸하게 만드는 노래는 만들지 않겠다"고 언급한 부분이 있다. 공연장을 싸하게 만드는 음악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처연한 정서를 끌어지 끌어안는 곡이 아닐까? 내 목소리는 표현의 폭이 너무 좁아서 그런 곡들을 소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만들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계피가 있으니까 괜찮다.

정반반. 이름이 독특하다. 바비 인형이 먼저 생각났다.

본명은 정대유이다. 어떤 공연에서 우연히 재미교포 형제를 할 일이 생겨 성격에서 바비(Bobby)라고 소개한 게 굳어졌다.

### 여자 팬이 많다고 들었다. 인기 비결이 무엇인지?

인기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음악 때문일 텐데 노래를 만들 때 화자를 여자로 두고 "그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느꼈을까" 하는 생각을 평소 많이 한다. 수컷들의 감정이 별거 없던 사실은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아니까. 그렇잖아도 여자의 마음을 속속들이 읽고 대변해주는 건 아닐 거다. 여자들이 살면서 느끼는 감정의 폭이 워낙 드넓다 보니 내가 쓴 노래와 공명하는 부분이 생긴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음악을 만들 때 '필요한 음악과 가사'를 20% 더 써 넣는다"라는 평도 있다.

모자라서 후회하는지는 싫어하는 타입이다. 음악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다. 10년 넘게 곡을 쓰니 이제 곡 길

이는 좀 콤팩트하게 다듬을 수 있는데 음(note) 수나 가사 양은 그게 잘 안 된다.

독립영화 사운드트랙을 만들어볼 생각이니? 당신이 만들면 독립영화의 신선한 영상과 잘 맞아떨어지는 음악이 나올 것 같다.

패럴렐 형제의 (덤 앤 더)처럼 드로이 코미디 영화의 주제가라면 작업해보고 싶다.

### 계피

계피 형은 씩씩하다. 당신은 씩씩한 사람 같진 않은데?

누군가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여자'의 이미지더라. 물론 지인이 한 말은 아니다. 인간성을 제외하고 목소리만 가지고 한 소리다. 앞의 표현이 최근 영화 (하녀)의 카미유로 쓰이는 걸 보고 대폭소했다.

본인 목소리의 장점은 무엇인지? 당신 목소리의 인기는 좀 대단하다.

시큰둥한 거? 슬프지 않은 척하는 거? 슬프지 않은 척하는 걸. 황게 열리는 척하는 거? 하지만 목소리만 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서글을 때가 있다.

20대 중반을 넘어서 여자치고 당신 노래를 따라 부르는 분이 얼마나 많아요.

기교를 쓰는 보컬이 아니라서 조언해줄 게 별로 없다. 절대 전 우물쭈물 음반을 녹음하는데 해본 적이 없고 있는 걸 상상하고 부르니 녹음에 진전이 없었다. 그런데 공방에 푸고그고 앉았다고 생각하고 불렀더니 바로 오케 이 시간이 떨어졌다. 이러니 내가 무슨 조언을 하겠니?

노래를 부를 때 '힘과 감정을 20% 정도로 뺀다'는 평이 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힘과 감정을 빼기 위해 80%의 에너지를 쓴다.

좋아하는 남자 아이돌(여자 아이돌) 그룹을 이야기해달라.

소녀시대. 소재지 같은 다리들의 향연이 주는 박력도 매우 강렬했었다. 그녀들의 다리가 전부 모여 하나의 생물체 같더라. 비호는 게 아니라 그녀들을 꽤 좋아한다.

### 당신은 동물, 식물 중 하나로 비교하자면?

동물. 나는 온갖 잡스러운 욕망으로 소용돌이치는 생물이야. '무명부수'라는 노래 목소리로는 전혀 다르다.

### 당신에게 24시간이 남았다면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인터넷에 올린 글을 삭제한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세계의 끝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 마지막 부분을 읽는다.

## BACK ATTACK

타바코 줌스의 역습  
나루토 아저씨와 MAXM 사무실에 나타났다.



BEFORE 여기가 정말 MAXM 사무실이지? 우릴 왜 부르긴 지 모르겠다. 알아야 하지??

AFTER MAXM 편집부의 아리따운 여사들을 보니까 천사로 변신했다.



BEFORE 사무실 안에 야구장이 있다니까 너무 신신하다. 피 야구장이 있네

AFTER 무더운 날씨를 탓하며 욕수를 푹 뚫어뜨렸다.



BEFORE 생략으로 '타바코 굶어오...' '올바가 나타나다'를 모르는 건 어렵다. 이곳엔 마피코도 없다. 그러나 2곡 이상 부르는 건 안 될 거다.

AFTER 야랑 할라코 포함 4곡을 불렀다.



BEFORE 우리 덕분에 사무실에서 공연 보는 거니 고마워해야 한다.

AFTER 다음부터 공연 하러 venue 주인을 먼저 설득하자. 그냥 히어리만 민중의 지팡이로 MAXM 사무실에 출동할 뻔 했다.



BEFORE 네 등쪽에 나의 흔적을 새기겠다.

AFTER 그의 팬이 차근차근 "우린 아바 할 말야?" 라는 열띤스러운 글귀만 남겼다. 우릴 정말 잊고 있었다.

# MAXIM BUYER'S EDGE



## 2010 예거마이스터 풋볼 에디션

독일산 허브 리큐어 예거마이스터가 월드컵의 열기가 가득한 6월 13일엔 독일 월드컵의 공인 구멍엔 엘스타를 그대로 재현한 축구공에 '예거 마이스터' 로고를 새겨 예거마이스터 한병과 세트로 구성된 '2010 예거마이스터 풋볼 에디션'을 선보인다. 한정으로 판매되는 이번 스페셜 에디션은 유희플러스와 코스트코에서 월드컵 기간에 한 판매한다.  
문의 02-2975-0023 [www.jagermeister.co.kr](http://www.jagermeister.co.kr)

## 폴 프랭크

### A FRIEND IN TWEED IS A FRIEND 60

랜드메이트 작업을 기반으로 하는 폴 프랭크 아 이메어에서는 아사테이트 소재를 사용해 가볍고 편안한 착용감을 주는 A FRIEND IN TWEED SA FRIEND 60를 새롭게 선보인다. 이품도 긴 이 제품은 오프부터 캐주얼까지 다양한 컬러의 모델을 보유하고 있다.  
문의 02-364-1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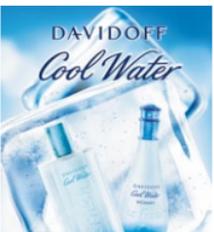


## 지오지아 & 올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실용주의적인 올젠과 유니크한 디자인으로 사랑 받는 지오지아가 국내 패션 브랜드 중 최초로 증강현실을 이용한 애플리케이션을 선보인다. 브랜드 소개와 시즌별 컬렉션 킷, 북과 카탈로그 이 이미지는 물론 브랜드 소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 하며, 두 브랜드의 이미지와 시계를 테마로 바탕 화면 메인 페이지로 설정할 수도 있다.  
[www.dco.kr](http://www.dco.kr)

## Davidoff 쿨 워터 아이스 프레쉬 맨 & 우먼

향수의 대장인 다비도프 쿨 워터가 여름을 맞아 광고 인 아이스로 찾아왔다.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해줄 2010년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선보이는 아이스 프레쉬는 한층 더 상쾌한 향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청량한 느낌을 준다.  
문의 02-3443-1836



## Paul Smith 워치 No.7 크로노그래프 출시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매니아 층을 확보하고 있는 Paul Smith 워치에서 기존의 No.7 크로노그래프 모델을 더욱 업그레이드했다. 새로운 No.7 크로노그래프 제품은 레드와인과 같은 바이올렛의 진한 컬러 감이 매우 인상적이다. 매일 7일 행운의 토크가 당신에게 커다란 행운을 가져다줄 거다.  
문의 02-3281-1000  
[www.gallerydock.co.kr](http://www.gallerydock.co.kr)

## 만다리나 덕 뉴 하드 캐리어 2 TONE 출시

스타일링이신 항상과 가볍고 실용적인 기능성이 잘 조화된 이블리아 착수입 캐리어 브랜드 만다리나 덕에서 특수 폴리카보네이트 소재에 탄성과 견고성을 동시에 유지하도록 고안한 2010 뉴 하드 캐리어 2 TONE을 출시한다. 이번 시즌에 네이비, 블랙, 그레이, 옐로우, 레드의 5가지 컬러로 URBAN 비즈나스 & 패밀리의 트래블러들에게 가장 갖고 싶은 마스트 오브 트래블 백이 될 것이다.  
문의 02-3406-8041



## EVISU의 피케셔츠 인기 물이

오리엔탈 유니크 진 캐주얼 에비스에서 에비스만의 전통을 담은 피케셔츠를 출시해 인기몰이 중이다. 이 피케셔츠는 유노운의 여름 광고 상품으로 주목을 받았고, 에비스만의 유니크한 피케셔츠 스타일이 완성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피케셔츠는 남녀 스타일 모두 블랙, 화이트로 출시되었다.  
가격 54,000원 [www.evisu.co.kr](http://www.evisu.co.kr)





### 평범함 그 이상의 스타일 SPX

최고의 하이탑 운동화 SPX는 영국 브렌디머, 세계적인 합성 신발 브랜드의 신주주자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SPX 운동화는 보다 보다. 깔창 어느 곳 하나 평범함을 거부한 패션 아이템이다. 이미 많은 이들이 그들이 애용하면서 알려진 SPX 하이탑 운동화는 유.넥스 영스트리트 브랜드로 최고 아이템이다.  
문의 02-511-8366



### Jeep 월드컵 기념 티셔츠 발매

스타일리시한 캐주얼 브랜드 American style casual 지프에서 2010년 세계인의 축제 남아공 월드컵을 기념해 Just your instincts라는 슬로건 메시지를 담아 레드 티셔츠를 제작·발매한다. 실용적이고 편안한 착용감의 강렬한 레드 컬러 지프 티셔츠와 함께한다면 월드컵 시즌의 레드 룩을 자랑을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을 것이다. [www.jeep.co.kr](http://www.jeep.co.kr)

### HEAD 봄처럼 가볍게 달린다 버블라이트 초경량 러닝화

초경량 러닝화인 '버블라이트'는 확실한 질러감에 광감각 디자인이 세련미를 더하여 부분 메시 소재를 적용해 통기성을 더욱 강조한 러닝화다. 특히 편안하고 쾌적한 착용감을 강조한다. 발등 스트랩으로 피트 조절이 용이하며 깔리는 퍼플, 화이트, 블루, 핑크 4가지 컬러로 다양하다. 가격 8,000원 [www.headsports.co.kr](http://www.headsports.co.kr)



### TIGER 맥주 마시고 박지성 자서전 발자!

호랑이는 한국에서 멸종하지 않았다. 맥주산 징기를 품은 호랑이 타이가 맥주와 월드컵의 열정을 품은 호랑이 박 지성이 함께 귀환한다. 타이가 맥주 엔조이 워밍 세트들 주문하면 그의 자서전 '연과 타이가' 맥주 로고가 새겨진 스텐 캔들 노트 1권 타이가 맥주 전용 골라스 2개를 1000세트로 증정한다. 이것은 믿어도, 이미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지 않는가.  
[www.tigerbeer.co.kr](http://www.tigerbeer.co.kr)



### 진동 칫솔 소닉케어 플러스케어 플러스 출시

왜 양치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극심한 팔당운동은 근육과 성적 역량을 자극하기 때문이라는 도도한 대답을 하는 이들이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게 하는 제품이 있다. 소닉케어 플러스케어 플러스는 음파 기술로 각각의 치아를 깨끗이 세정하며, 잇몸 마사지 효과까지 제공하는 잇몸 건강 개선 요법을 탑재했다. 치아는 오백5십의 하나니, 젊은이들 더 더 관리하자.  
가격 20,000원 문의 02-709-1200



### 맥캘란 구순구개열 치료 나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는 시대는 끝났다. 술을 마시면서도 내일을 도울 수 있는 기회라면 병방곡곡에 대지남을 붙여도 시원치 않다. 영국의 전통 위스키 맥캘란에서 구순구개열 환자를 위한 행사를 기획했다. 위스키 판매 수익은 전액 이들의 치료에 쓰인다. 이런 취지라면 잠시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도 좋겠다. MVM은 알코올 중독자를 위한 캠페인 예정은 없다. 문의 02-3488-4600



### 타가스 전자제품 시장을 겨냥한 스포츠 백팩 시리즈 출시

이 신상품을 찾아고 전권을 누비면 그곳이 바로 당신의 집이다. 어찌 호연정인 해내고, 25년 전 노트북 가방을 만든 잡화 전문 브랜드 타가스의 개성이나가 '패션(Fashion)', '레퍼트(Reputation)', 'AT'의 새로운 제품들은 노트북, D.P, M.P를 잡아먹고, 보온병, 유류, 운동기구까지 품어갈 겸 애한다. 타가스를 보고 따-자! 휘트 나우! 문의 02-794-573 [www.tbq.com.kr](http://www.tbq.com.kr)

# MAXIM BUYER'S EDGE



## 반짝거리는 슈퍼리 USB 마이 메모리아 LX 시리즈

어린에게 생일 선물로 받고 싶은 게 뭐냐고 물었을 때 "조그맣고 반짝이는 거면 돼" 라고 앙락트 있게 대답한다면, 당신은 그냥 모른 척 이 녀석을 꺼내놓으면 된다. 마이 메모리아 LX 시리즈 6층은 초박형 태블 부도체 오스트리아의 크리스탈 브랜드 스와로브스키의 정품 크리스탈을 부착한 주얼리 LED이다. 4GB부터 32GB의 넉넉한 용량이 충실히 박혀 있어 크리스탈이 더하여 10개가 무렵지 않다. 가격 4GB부터 4만원대 [www.remotocakr](http://www.remotocakr)



## KODAK 하이브리드 카메라 이지슈어 Z981 출시

하이브리드(Hybrid)의 사전적 의미는 잡종이다. 잡종의 어원은 어접지 모르나, 그 생역은 무엇보다 강하다. 이런 잡종과 같은 디카가 출시되었다. 이지슈어 Z981은 28배의 줌오 사진과 동영상 동시제 지원하며, 전천후 디카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재-해 일주일 만에 품질을 기복한 Z980의 후속 모델로, 사물표지 없으면 알려달라든가, 자료를 위함할 수 있다. 가격 390,000원 [www.kodakkr](http://www.kodakkr)

## Calvin Klein ACC 가방 신상품 출시

남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탈빔을 받은 CK 가방이 더욱 미끈하게 돌아왔다. 2010 S/S Collection에서 선보인 백팩 Neo은 생활 방수 기능은 기본이고 미끈한 부도체 가죽으로 마무리함으로써 CK 고유의 품위를 살리고 실용성을 높였다. 색상은 깔끔한 모던 블랙과 상큼한 스텔라비 이지 두 가지. 문의 02-3438-6057



## 르빠 겐조 STEEL CASE 프로모션 개회

여행 중 그리기 기억하는 것이 그 색이 배어있는 입 내 뿐이려면 그에게는 겐조의 향수가 필요하다. 신선한 향기의 향수 브랜드 겐조 퍼퓸에서는 여행자를 위한 가방 프로모션을 펼쳤다. 6월 한 달 간 겐조 온라인에서 로베르 겐조 향수를 구입하면, 퍼퓸 카드와 함께 신상품, 여권, 명함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스틸 케이스를 증정한다. 신선한 향기를 안고 지금 여행을 떠나자. 문의 080-344-9600 [www.enaperfume.co.kr](http://www.enaperfume.co.kr)



## Panasonic 디캠 HDC-TM700 등 2종 출시

그날의 날씨는 무척이나 맑았으나, 동영상에는 빛공만 가득하다면 그 뿐이겠는 아니-리라, 캠프는 다지고, 사살을 사살 그대로 말하는 피노키오 같은 녀석이 좋다. 파나소닉코리아에서는 스틸 사진 촬영 시 140만 화소 촬영이 가능한 HDC-TM700과 광학 25배 줌이 가능한 디캠 HDC-TM600 등 2종을 출시한다. 실물예가 가까운 전리를 재현하는 3MOS 센서를 탑재한 두 녀석이 당신을 사실주의의 대가로 만들어줄 것이다. 가격 90만원대 문의 02-533-8452



## 엘파파 파나마 소재의 여름 셔츠 컬렉션 출시

남아공의 뜨거운 열기를 느끼지 못해 안달이 난 남성이라면, 파나마의 열정을 대신 못보지. 남성 개성부터 브랜드 엘파파(Eppa)에서는 중미의 마이애미라 불리는 파나마 소재로 한 여름 상품 Panama Shirts Collection을 출시했다. 미국적인 셔츠의 품격과 해변 도시의 분위기가 묻어-는 이번 컬렉션으로 월드컵의 아쉬움을 달래보자. [www.eppa.co.kr](http://www.eppa.co.kr)

## 럭스 프리미엄 슈퍼 리치 사인 미스트

푸석해진 피부를 돕고, 어딘가로 향한다면 땀지 미움까지 막아주는 김수성 풍부한 액시안들을 위해 준비했다. 피부 관리를 위해 스킨케어에 공을 들이는 만큼 모발에도 가까운 데일리 케어가 필요하다. 럭스 프리미엄 슈퍼 리치 사인 미스트는 모발부터부터 수분을 공급해 부스스한 머릿결을 매끄럽게 만들어준다. 문의 080-04-7100





### 레벨 스피커 팝아트와 손 잡은 아이폰 케이스 출시

팝아트의 손길에 대담한 아이폰 케이스는 어떤 느낌일까? 레벨 스피커는 아이폰 3G/3GS 전용 프리미엄 케이스 3종 및 디자인 제품용 스피커다. 최상위 프리미엄 제품군인 Rebel ScholnJasper Wang Mystery Mast Collection은 팝아트 일러스트레이션인 자스퍼 왕(Jasper Wong)의 일러스트를 적용해 화려한 컬러와 화풍으로 럭셔리한 이미지를 자랑한다.  
[www.rebelchokor.kr](http://www.rebelchokor.kr)



### ALBA 론칭 10주년 기념 웹 시리즈 출시

이번 웹 시리즈는 일품적인 가로형 시계 구조를 탈피한 세로 배열 문자판과 케이스가 특징이다. 초기형 모델의 디자인에 새로운 소재와 디자인을 더해 젊은 마니아들의 감성을 자극한다. 트렌디함을 강조한 이번 모델은 블랙, 실버, 골드 3가지 컬러. 가격은 39만원. 문의 02-01-382

### 겐조키 보디 트리트먼트 워터 블리스플 진저 피즈



신선하고 푹 쫄는 향인 피즈에는 마비열린 미량 원소, 에센셜 오일 등의 영양 성분이 가득하다. 특히 향신과 상큼은 인타디컬적 적용으로 피부를 탱탱하게 만드는 효과가 탁월하다. 에이치플, C, 플 등에서 구입 가능하다. 90ml 가격 6만 3천원

### LG전자 보더리스 흡시어터 2종 출시



LG전자가 초슬림 디자인을 적용한 울-이 보더리스 흡시어터를 내놓았다. 32mm에 불과한 스피커 두께, 한층 더 가벼운 프리미엄 시몬드, 와이파이와 각종 홈 네트워크 기능이 탑재됐다. 가격 70만원~90만원대까지  
문의 [www.lge.co.kr](http://www.lge.co.kr)



### 헤지스 캠브리지 대학교 로잉 클럽 라인 출시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과 실을 출중 줄이는 여유를 겸비한 남성을 위한 옷이다. 영국 전통 수장스포츠인 로잉을 테마로 영국령이 풍신 배어난다. 정통 프레미 스포츠룩 완성해버리는 남성에게 강력 추천한다. [www.hazys.com](http://www.hazys.com)

### Reebok 한국 최초 NFL 풋볼 라인 출시

리벡이 한국 최초로 선보이는 NFL 라인 출시 기념 이벤트를 열었다. 미국 프로 풋볼팀 유니폼을 기본으로 한 티셔츠와 니트를 중앙대 학교 미식축구팀 선수들의 플레이룸 이벤트를 통해 유쾌하게 선보였다. NFL 라인이 한국인에게 다소 생소하지만, 신선함과 스포티브함을 즐기는 젊은 층이라면 NFL 라인에 도전해볼 만하다.



### AUDI SUV Q5 3.0 TDI 출시

아우디 코리아는 Q5 연인연을 강화한 Q5 3.0 TDI를 선보인다. 기존 Q5 라인보다 강력한 성능, S-line 외장 패키지에 아름답고 다이나믹한 디자인이 강점이다.  
가격은부가에 포함 가격 7,460만원 문의 [www.aud.co.kr](http://www.aud.co.kr)

# MAXIM BUYER'S EDGE



## 미키모토 코스메틱 이너 뷰티 엔자임 출시

아름다운 피부는 걸어도 드러나는 피부만 가꾸어선 안 된다. 몸속 독소를 제거해야 한다. 엔자임은 기원, 보습, 시노, 그루아, 대두 등 평소 잘 섭취하지 못하는 60여 가지의 식품에 장내 독소를 제거한다. 매일 아침 공복에 티스푼을 섭취하면 몸속이 깨끗해진다.  
120g 가격 19,000원

## 커스텀멜로우 스타일리쉬한 월드컵 응원 패션 선보여

월드 컵의 일색인 월드컵 응원복장이 지겨워졌다면 커스텀멜로우의 WinmeSeries 아이템이 주목해 보자. 젊은 신시몬의 디자인을 자랑하는 커스텀멜로우에서 2010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을 맞이해 색다른 응원 복을 선보인 것. 스포츠 경기의 우승자에게 수여되는 위너 트로피와 티셔츠로 구성된 이번 아이템은 월드컵의 열기를 온몸 가득 느껴보자.



www.storebelow.com

## TIMEX 스포츠 마니아를 위한 Sports Series 출시

디자인과 기능성을 모두 갖춘 시계가 올 시즌 당선을 찾아온다. 미국의 대표 시계 브랜드 TIMEX에서 Sports Series(TK25)를 선보인 것이다. 시계 다이얼을 가볍게 터치하는 것만으로 로딩 램프가 기록되는 탑 스크린 기능 등이 탑재돼 있어 당신의 스마트 트레이너 역할을 톡톡히 해줄 것이다.

가격 19만 6천원 www.galaxydock.co.kr



## Espoir 미니미 프린세스 컬렉션 한정 출시

에스포아 핑크 라인이 미니미 프린세스 컬렉션 5종을 한정 출시한다. 기존 미니미 제품과 동일한 형태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스토리와 디자인을 추가해 5만 개를 생산한다. 특히 미스 로레스(Lorely) 제품은 바닐라 향에서 난초 향으로 바뀌어 색다른 향을 즐길 수 있다.



## 월리엄그랜트앤선즈코리아 헨드릭스 진을 즐기는 색다른 방법 제안



월리엄그랜트앤선즈코리아가 헨드릭스 진을 더욱 효과적으로 즐기는 방법을 제안했다. 스코틀랜드산 헨드릭스 진은 네덜란드산 오이와 핑거리안산 장미 꽃잎에서 추출한 오일을 섞어 신선하고 향기로운 맛과 향이 특징이다. 헨드릭스 오이를 토닉을 첨가한 카라멜의 베이스로 활용하면 마시는 즐거움이 배가 된다. 가격은 병 700ml 6만원 문의 02-252-3600



## 브라운브레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 추모 티셔츠

SPREAD THE MESSAGE라는 슬로건으로 자신들의 메시지를 꾸준히 전파해온 브라운브레스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를 맞아 추모 티셔츠를 제작한다. 티셔츠 뒷면에 쓰인 'Do Progress'는 노 전 대통령의 진보된 사상을 계승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문의 02-323-2309

# 2010

## 인생 역전 특별 프로젝트 JOB을 잡자!

젊은이여, 당신이 안고 있는 그 좌절도 지나간다. (좌절이 지나가는 속도에 개인차가 있어서 그렇지 지나가긴 지나간다.) 꼭 돈 많이 벌어서 여러 친구에게 MAXIM 정가구독 선물도 해주고 그러라. 힘내라. 힘내자. BY MAXIM 편집부 IMAGES 모든 이미지(Dreamstime.com)



# 전문가에게 듣는 취업의 기술 9가지

MAXIM이 취업 컨설턴트 회사 '취업다운'을 위하여 실현 성공'의 이희성 대표를 만났다. 그는 구직 활동을 '준비하기'와 '보여주기'로 정의했다.

## JOB WANTED

### 1. 취업은 전략이다. 회사의 채용 목적부터 파악하라.

제대로 취업 준비만 하면 누구나 취업할 수 있다. 우선 회사가 채용을 실시하는 목적부터 알아야 한다. 회사는 일할 사람이 필요해서 채용을 한다. 내일부터 당장 나랑 같이 일할 '내 새끼'를 뽑는 거다. 어떤 새끼가 필요하진지도는 알고 담배자.

### 2. 일을 신나게,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라.

많은 사람들이 회사의 인재상에 맞춰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착각한다. 회사원에게 물어봐라, 자기 회사 인재상 아는 사람 하나도 없다. 쓸데없는 데 힘쓰지 말고, 일을 신나게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줘야 한다. 이게 바로 채용 과정이다.

### 3. 소위 말하는 '스펙'이 부족하다면 자기소개서로 보완하라.

스펙이 중요할 수는 있다. 하지만 스펙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토익 점수를 죽어라 올린다고 후진 스펙이 만회되는 것도 아니다.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만 보여주면 된다. 지금 당장 업무에 투입해도 괜찮겠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 한마디로 보이시킴부터 정선

### 4. 지원동기는 직무에 관련된 내용만 써라.

인사팀장이 자기소개서를 읽는 데는 5~10초밖에 안 걸린다. 주로 지원 동기, 미래 포부를 본다. 지원 동기를 쓸 때 회사에 대한 것 절대 쓰지 마라. 돈에 절대 들어오지 않는다. 당신이 지원한 '직무'의 지원동기를 써라. 당신이 이 일을 잘 할 수 있는 이유, 예를 들어 이 일을 잘하기 위해 이러한 지식과 실무 경험을 쌓았다는 식이다.

### 5. 직무 관련 경험이 없는 사람은 '미래 포부'란을 이용하라.

'미래 포부' 항목은 역전의 장이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세계 최고'가 된다고 쓴다. 실선 뒤 이 회사를 세계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그룹으로 키울 거라는 등... 이런 거 안 본다. 사소한 데라도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한 것만 써라. 이왕 포부를 크게 날릴 바엔 과감하게 시장 면접장에서 "1년 뒤 지금 당신 자리가 바로 제 자리다." 라고 질러라.

### 6. '성격상의 장단점'은 지원 직무를 고려해서 써라.

많은 이가 '성격상 단점'을 쓰기 어려워하는데 그건 직무와 무관한 걸 쓰면 된다. 재무나 회계 팀에 지원하면서 수리 능력이 떨어진다든 단점을 쓰는 건 자살 행위라. 저나친 승부욕, 급한 성격 등이 단점의 좋은 예다. 이를 고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덧붙이면 금성첨화 성격상 장점도 직무와 관련된 걸 쓰자. 금융기관 같은 경우 윤리 의식을 강조하면 무난하다.

### 7. 과장은 관참치만 거짓말은 안 된다.

보수비가 내렸는데 태풍이 왔다고 뻥치는 건 괜찮다. 유명 연합 동아리에 가입한 해보고선 그곳에서 운영진으로 활동했다는 적당히 거짓말도 시도해볼 직하다. 면접 때 사실 검증은 하긴 하지만 정도의 차이를 면접관이 일일이 다 확인할 순 없으니가. 자신을 적당히 포장하는 일은 면접을 보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미덕이다.

### 8. 자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라.

지원할 직무는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다. 우선 가장 하고 싶은 일을 정하라. 이 중 자신이 준비해 왔거나 해보고 싶은 일을 추려내라. 이중에 자신이 진짜 잘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라. 지원직무를 정했으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자. 그 일을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인성, 태도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 9. 몇 번의 불합격도 좋은 경험이다.

몇 번 떨어져 봐야 일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 절대 기죽지 마라. 혼자 끔공 알지 말고 친구들과 술 마시고 소리도 지르며 스트레스를 풀어라. 그리고 다시 시작하라. 면접과 패기를 보여라. 젊은이답게. 당당해져야 한다. 회사는 그런 사람 좋아한다. 방구석에 차박해서 우울해한다고 달라질 건 아무 것도 없다.

## QUICK TIPS

면접 속성반을 위한 특별 교육 다급하지? 이 두 가지만 기억하라.

#### 1. 두괄식으로 직답하기

질의 응답형 면접의 목적은 구직자의 면접관이 대화가 되는 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회사 업무는 대략로 사적해서 대외로 끝나다. 결론부터 일해 이 안 답한다. 오늘 어떤 반한 중 가장 좋은 반한을 물어보는데, 자신이 막연히 모든 반한을 이야기하면 비웃는다. 결론부터 말하고 추가 사항을 덧붙여라. 그게 회사 내 대화법이다. 면접관이 여쭙던거가 아닌 이상 당선의 자부만 이야기해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는 거다.

#### 2. 열정과 패기 보여주기

열정과 패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약간 과한 것 소심한 것 보다 낫다. 눈을 마주치며 대화하고, 말을 흥취지 마라. 한숨을 쉬거나 하늘을 보는 사람은 싫고 싫지 않다. 또 열정과 패기를 높고 노래 등으로 보여주는 건 구직자들이 있다. 요즘엔 안 먹힌다. 진짜 뛰는 건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다. 처분하고 당당하게 정 필리언 우왕왕함 먹고 가라. 5,000원 밖에 안 한다. 1시간 내에 효능이 온다.



WINNER

# 전설처럼 내려오는 취업 합격의 신화

놀랍게도 모두 실화다.



## CASE1. 벨트를 풀었어요

프레젠테이션 면접을 볼 때 이야기다. 주제가 '그린 벨트'였다. 면접을 위해 일정 구역의 개발을 제한한다는 것 외에 도무지 발표할 내용이 생각이 안 났다. 집에 갈까 생각도 했다. 어차피 억지로 짜내도 떨어질 것 같았다. 이왕 떨어질 거 내 발표 실력이나 보여주고 떨어지자고 생각했다. 그래서 면접관 앞에서 벨트를 풀었다. "저는 그린벨트는 잘 모르지만 제 벨트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발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차고 간 벨트에 대해 5분간 발표했다. 그리고 합격.

30세, 대기업 2년차 남성

역시 강박은 부리고, 벨트는 풀어야 맞다.

## CASE2. 나를 설득시켜보세요

모 카드 회사 면접을 봤다. 뭔가 어정쩡하게 면접을 보느니 떨어지자라든가 확실한 인상을 남기고 싶었다. 이렇게 생각하던 차에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라고 면접관이 말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여기 합격을 하고, 또 다른 회사에도 합격을 한다면 저는 어느 회사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할 것입니다. 제가 이 회사를 선택해 주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면접자들은 어색했지만 면접관들은 허허 웃으며 회사의 장점에 대해 설명했다. 합격했다.

28세, 17대 회사 합격남

이마 합격시켜놓고 미친 듯이 땀이 물리려고 했잖아.

## CASE3. 그냥 좀 짜증이 나네요

2차 면접에서 면접비를 못 받았다. 차도 한 잔 안 썼다. 이런 얘기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시험을 해봤는데 사람들은 사소한 요소로 그 회사 이미지를 판단한다. 이런 작은 배려도 없다면 사람들의 불만이 쌓여 회사의 이미지가 깎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3차 최종면접에서 이에 대해 이야기했다. 면접 때 불려놓고 왜 면접비랑 차 한 잔도 안 주냐고, 그리고 말했다. 궁극적 목적이 회사의 발전을 위한 거라면 이런 불평들은 늘어놓을 수 있다. 손 소독기 회사에 약이 될 수 있으니까.

30세, 광고업자 남성

당신도 아까 그 사람이 탄 조병머리는 익스프레스 열차에 탑승한 겁니다.

## CASE4. 난 김태희보다 행복하다

면접관이 나에게 물었다. "왜 당신이 김태희보다 행복한가?" 그리고는 독특한 대답을 원한다고 했다. 막막했다. 내가 어떻게 김태희보다 행복할 수 있단 말인가! 활짝 청문 밖을 봤다. 모델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반짝 손을 들었다. "저는 남자와 모델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습니다! 김태희는 모델 입구에서 방갑 계산할 때의 기분 좋은 어색함과 설렘을 느끼면 적을 것입니다. 모델에서 시켜먹는 보쌈도 들을 것 같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불만 불렀는데 다음에 면접관 얼굴 보기가 민망했다.

27세, 광고회사 합격녀

민망하고도 불인 거야. 몰랐어?

## STUPID ANSWER

킹덤 면접 답변

Careerbuilder.com에서 인사담당자를 상대로 조사한 실제 킹덤 면접 답변을 재구성해봤다.

### 왜 여기에 지원하게 되었나요?

당첨이니까 내야 많이 물리시요. 작업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고요.

### 현재 일하던 직장은 왜 그만 두셨나요?

그만둔 적은 없어요. 질러가면 했어요.

### 실수하면 보통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예전 회사에서 그냥 기계 하나 훔쳐갔어요. 걸러서 돈을 물어줘야 했지요.

### 동료와 불화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해결방법이 없어요. 둘 다 잘렸어요.

### 당신의 자원은 무엇인지 생각하시나요?

자신만큼 제 자진기가 있습니다.

### 리더로서 강점이 있으신가요?

은근히 케겔운동 해요. 배가 케겔을 주도했어요.

### 왜 우리가 당신을 고용해야 하죠?

저는 이벤트 팀의 훌륭한 인턴이 될 거예요. 파티광이니까요. 보사디자이너 친 절고 남성이 가깝지요. 게다가 성급이에요.

### 재용이 된다면 언제부터 일할 수 있으신가요?

언제든 돼 물어보고 당해 두겠습니다요.

### 다른 좋은 직종이 있으신가요?

재용이 된다면, 입사 전 약팔테스트를 하나요? 한다면 테스트 및 주 천에 미리 알라주실 수 있으니까요?

## HOW TO GET FIRED

### 해고 당하는 기술

들어왔으니 나가는 길고 이야기하자?



#### 적당히 하라

일단 당신 일은 완벽히 해준다. 그러나 좀더 더 잘하려고 하지 마라. 퇴근 시간엔 정확히 알람이 울리도록 설정을 하라. 소리는 크면 클수록 좋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너무 쉬워서 알려생도 할 수 있는 일을 시켜도 매년 한숨을 크게 쉬라라.

#### 이른 책하라

너무 건강해서 걸고 한 번 업무도 회사로부터 신뢰를 받게 된다. 결근을 자주 하고 병원을 제診처럼 드루우러라. 진짜 병원을 가든 말든 그런 상연이다. 사람들이 당신을 약한 사람이라 믿기만 하면 된다. 병원에 간다고 했다고 남은 시간엔 집에서 낯님 실력을 쌓아라.

#### 억눌러온 패션 센스를 발휘하라

패션에 대한 당신의 심혈 정성을 발휘할 때가 왔다. 눈을 바로 보이는 변화가 되고다. 신상선서처럼 수염을 최대한으로 길게 기르고, 일본 여자 고등학교 교복을 입하라. 그리고 뽀족한 하이힐로 드러내라든가 아무리들!

#### 마지막으로 효과를 확인하라

회사 메신저로 아무도 믿지 않는 다. 당신 싸움도 회의를 진행한다. 상사 가 눈을 마주치길 꺼낸다. 이 세가 지행하 나타내는가? 그렇다면 당신을 사면과도 해고도 받지 않았다. 축하한다.

# ONE SUIT,

## VARIOUS STYLING

BY 세원형, 조정민 PHOTOGRAPHS BY ARC STUDIO  
MODEL HONG, M.J.W



화이트 셔츠와 화사한 라이트 블루, 라이트 핑크 셔츠로 밝은 이미지를 주자. 무채색 톤의 슈트 안에 또 무채색 셔츠를 입는다면 상갓집 분위기가 날 수 있다. 패턴이 들어간 화려한 셔츠나 카라가 과도하게 크거나 짧은 것은 피하자.

화이트 셔츠 74,000원 & 라이트 핑크 셔츠 & 라이트 블루 셔츠 모두 64,000원 Gothe



슈트와 셔츠에서 큰 변화를 줄 수 없기 때문에 포인트로 타이를 이용해보자. 화이트 셔츠 위엔 어떤 타이를 매쳐해도 어울리지만 컬러감 있는 셔츠엔 톤온톤으로 컬러를 맞추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금 튀고 싶다면 대조되는 컬러를 사용해도 되지만, 셔츠나 타이 둘 중 하나는 재질과 비슷한 컬러 계열이어야 한다. 유행을 쫓느라 슬림 타이 매는 것은 재앙과 같다.

라이트 그린 컬러 타이 & 와인 컬러 타이 모두 49,000원 studio THE SUIT 스카이블루 컬러 타이 136,500원 SYSTEM HOMME 네이비 컬러 타이 48,000원 studio THE SUIT



끈이 있는 블랙, 브라운 레이 스파업 구두는 어떤 슈트와도 잘 어울린다. 구두는 최소한 2형레는 가지고 번갈아 신어야 형태 변형을 막고 오랫동안 신을 수 있다.

블랙 레이스업 슈즈 & 브라운 평굽 모두 150,000원 studio THE SUIT



벨트는 구두 색과 맞추는 것이 좋다. 블랙, 브라운 계열의 가죽 벨트가 무난하다. 너무 넓거나 얇지 않아야 하고 버클이 과도하게 크거나 장식 이 많은 것은 피하자.

블랙 가죽 벨트 98,000원 TOMMY HILFER  
브라운 가죽 벨트 가격 미정 C.P COMPANY



블랙, 브라운 계열의 시각적 브리프케이스를 추천한다. 수납공간이 넉넉한 것이 좋다. 디자인이 너무 심심하다면 손잡이나 프레임에서 변화를 준 것을 고르자. 단, 너무 요란한 것은 곤란하다.

브라운 컬러 브리프케이스 328,000원 Customellow

차콜 그레이 디스크 컬러 계열 슈트는 가장 안전하고 응용하기 쉬운 아이템으로 반드시 갖춰야 한다. 무채색 슈트 안에 화사한 셔츠를 입고 타이로 포인트 주자. 벨트와 구두는 색을 맞추는 것이 좋고 블랙 또는 브라운 컬러가 무난. 가방은 시각적 브리프케이스가 좋다.

그레이 한바탕 슈트 가격 미정 XESS 화이트 셔츠 129,000원 & 네이비 컬러 십자무늬 타이 49,000원 & 블랙 레이스업 슈즈 190,000원 모두 studio THE SUIT 블랙 가죽 벨트 98,000원 TOMMY HILFER 블랙 서류 가방 7만 124,000원 JASPER

생각만해도 땀이 빠질나는 첫 직장 생활에 어색함과 불편함을 가미하는 슈트. 어떤 것을 사야할지, 어떻게 입어야 할지 헤매고 있는 당신을 위해 MAXIMO 이 나섰다. 예의를 갖춰야 할 기업과 창의력을 요구하는 회사에서의 일맞는 유풀차를 보여주고, 몇 가지된 바퀴도 매일 다른 슈트를 내는 스타일링법도 제공한다. 만만치 않은 슈트 값을 절감했으니 MAXIM 정구구이다나 하자. 1년 해뿸자 얼마 안 하잖아?



블루와 화이트셔츠가 밝고 시원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가장 먼저 구입해야 할 아이템이다. 체크 셔츠는 크기와 색상이 다양해 여러 스타일을 연출 할 수 있다. 요즘 유행하는 데님 소재의 셔츠는 빈티지하면서도 청량하다. 깔끔하고 캐주얼한 화이트 피케셔츠도 멋스럽다.

데님 셔츠 64,000원 SAVILE ROW 블루와 브라운 잔 체크 셔츠 82,000원 Takorable 화이트 피케셔츠 10만원대 FRED PERRY



셔츠와 같은 계열의 색상이 좋고, 경쾌해 보이는 머린 패턴의 타이나 니트 타이는 당신을 더욱 센스 있어 보이게 한다. 상황에 따라 보타이와 행커처프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네이버 컬러 타이 45,000원 JASPER 네이비와 그린 스트라이프 니트 타이 2만원 NO.7 와인 컬러 보타이 & 네이비 컬러 보타이 & 화이트 행커처프 모두 28,000원 studio THE SUT

바지단이 짧아 지는 추세로 당신의 센스는 슈트로 판가름난다. 로퍼는 브라운, 화이트 계열도 무난하지만 포인트를 준다면 다른 컬러도 괜찮다. 단, 스니커즈는 화이트 컬러에 장식이 없는 것이 좋다.



연두색 로퍼 56,000원 ShoebyLaunch-ingM 화이트 세우 스니커즈 가격 미정 C.P COMPANY



가방 끈을 달착 가능한 백팩을 추천한다. 토트백, 크로스백으로 활용할 수 있어 어떤 상황에서 도 유용하다. 네이비와 짙은 와인 컬러가 어디든 매치하기 쉽다. 가벼운 재질로 고르자.

브라운 가죽 대립의 네이비 백팩 275,000원 SYSTEM HOMME



과감하게 화이트, 네이비, 그린 컬러의 벨트를 시도해보자. 화이트 셔츠 위에 서스펜더를 착용 하면 센스 있어 보인다.

네이비 가죽 벨트 33,900원 SHANE JEANS  
아이보리 서스펜더 125,000원 Countess Mar



CASUAL

슈트 재킷과 캐주얼한 팬츠의 믹스매치는 당신을 직당케의 패셔니스타로 만들어줄 것이다. 네이비 혹은 허운드투스체크의 피트 감이 좋은 재킷을 고르자. 셔츠는 체크 셔츠나 데님, 피케셔츠가 어울린다. 바지단은 얇게 걸쳐 올리고, 로퍼나 스니커즈로 경쾌하게 마무리하자.

그레이트 잔 체크 재킷 238,000원 TNGT 네이비 보타이 29,000원 studio THE SUT 블루와 화이트 잔 체크 셔츠 가격 미정 XESS 베이직 맨치 89,000원 & 화이트 로퍼 119,000원 모두 ZARA 네이비 가죽 벨트 33,900원 화이트 크로스백 138,000원 SEG



# 7명의 전문가들에게 듣는 그들만의 노하우!

SUIT, SUIT, SUIT!!!

HELP GOSHE(02-541-5849) Tailorable(www.tailorable.co.kr) B&T Tailorshop(www.tailorshop.co.kr)  
studio THE SUIT(www.thesu.it.co.kr) SAVILE ROW(www.savilerow.co.kr) 헤비맨서치(www.hs78.com) No.7(www.no.7.co.kr)

1	고르는 법
2	반드시 필요한 슈트
3	신입사원이 따라하기 쉬운 색상 매치법
4	어울리는 액세서리
5	전문가의 SUIT 입는 노하우
6	보관법

## 해밀턴셔츠(김미연 과정)



1. 체크나 다림질이 용이한지 확인하고 품에 잘 퍼뜨리는지 확인하자.
2. 화이트, 블루 셔츠는 기본으로 갖고 있어야 하며 슈트에서 15센티 정도 나오는 소매길이가 적당하다.
3. 화이트 셔츠에 블루 타이를 매치하면 깔끔한 룩을 완성할 수 있다.
4. 소매 단추가 독특한 셔츠 하나라도 준비한다.
5. 난 여자가.
6. 세탁한 후에 오랜 시간을 방치하지 말고 바로 다림질 해야 한다.

## Tailorable(라호진 이사)



1. 슈트에서 유일하게 수신이 불가능한 곳이 어깨다. 반드시 어깨가 맞는지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체크 무늬의 슈트를 신다면 체크 무늬가 몽땅 몽땅 팔리지 않게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현재 슈트의 재킷 하리선길이를 짧아주는 추세지만 합의 3/4은 남아 있다. 소매길이는 셔츠보다 조금 짧아야 한다. 셔츠를 살 때는 목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셔츠 한 뼘 위 단추를 잠그고 손가락 두 개가 들어갈 정도면 된다. 셔츠가 너무 크면 재킷의 실루엣까지 무너진다.
2. 다크 네이비나 다크 그레이 컬러의 상급 2톤 슈트를 추천한다.
3. 컬러 매치를 쉽게 하려면 색을 두 가지 이상 쓰지 않는 것이 좋다. 블루 셔츠에 네이비 타이를 매치 할 경우는 주거나 셔츠 색조 레드나 버건디 컬러 타이를 매치.
4. 일괄형에 어울리는 안경 시계 넥타이인 모켓 타이에 신경써 보자.
5. 블루 계열 셔츠에 밝은 브라운 컬러 구두를 신는 것.

6. 슈트는 계절마다 한 번 정도 드라이 클리닝 하는 것이 좋고, 구멍이 있다면 목욕 후 유독하게 갈아 두는 스팀 효과로 어느 정도 구멍이 빠진다.

## No.7(지희정 사장)



1. 가장 중요한 것은 슈트의 피트값. 리입먼트이 달린 재킷은 소매 길이를 줄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히 키가 작은 사람은 피하는 것이 좋다.
2. 네이비나 다크그레이 슈트
3. 자유로운 핏이라면 피스탈 컬러의 재킷에 화이트 바지를 꼭대기 보는 것을 추천한다.
4. 화려한 색상의 코하나 셔츠 대신 편한하트 피케 셔츠를 입어보자.
5. 벨트와 구두색상을 통일시키거나 하나로 입는 티셔츠와 운동화 색상을 통일시킨다.
6. 여름에 많이입는 린넨 소재 재킷은 구멍이 많이 가지런 다림질하는 것도 보다는 구겨진 그대로의 멋을 즐기는 게 좋다.

## studio THE SUIT(김은경 이사)



1. 원단을 너무 편 것만 찾지 말고, 핏까지 너무 없으면 빈틈도 보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몸과 핏이 어떤 정도 상관 없이 적당하여 편익의 울과 울이 잘 맞는 사이츠를 고르자.
2. 블랙 네이비 그레이 컬러의 슈트
3. 화이트 셔츠에 네이비나 와인 컬러의 타이, 네이비 슈트에 핑크색 셔츠나 옐로우타이를 매치하는 것도 좋다.
4. 예전에는 타이로 포인트를 줬으나 요즘에는 셔츠를 화려한 색상으로 고치면 후 행커치프, 카프스 링크로 마무리한다.

5. 가장 중요한 것은 소재와 분재다. 이 두 가지가 어우러져야 좋은 슈트가 탄생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제일오직에서 나오는 소재로 된 슈트를 구입하거나 국내에 없는 패턴의 한정판을 구입하는 편이다.
6. 슈트는 보관을 잘 해야 오래 입을 수 있다. 비를 맞았다면 반드시 드라이 클리닝 해야 하고 계절이 지난 슈트는 옷 사이에 신문지를 넣고 슈트용 옷걸이에 걸은 후 비닐을 덮어 보관해야 한다.

## SAVILE ROW(최호성 이사)



1. 제일 중요한 것은 소재 실루엣 그리고 디테일이다. 만약 당시의 옷을 그때 구겨짐을 거침 먼저 고려한다면 굳이 묻혀는 뜻하지 않다.
2. 몇 달만 사야 한다면 다크 네이비, 두 벌을 사야 한다면 다크네이비와 다크그레이를 추천한다.
3. 화이트나 블루셔츠는 기본으로 준비하더라도 컬러 매치할 때 유용하다. 핑크나 그레이도 무난하다. 타이는 화려한 것 보다는 심플한 게 클래식해 보여서 좋다. 슈트 입을 때 유용한 한 가지 팁은 블랙 슈트를 제외한 모든 슈트에는 브라운 컬러의 슈즈를 신는 것이 베스트라고 보인다.
4. 셔츠는 장형크레타 원두유채 패턴을 입으면 색감을 갖는다.
5. 트랜드를 쫓아가는 것은 클래식하게 입려고 한다.
6. 슈트는 너무 자주 세탁하거나 다림질 하지 않는 것이 좋다.

## B&T Tailorshop(박정열 이사)



1. 슈트는 소재가 좋아야 하고 페타나나 디자인도 중요하다. 여름에는 콜로넬은 울소재로 좋은

2. 힐한 것으로, 바림이 잘 통하고 구멍이 적거나 나 오묘하면 신데하면 좀더 시원하게 입을 수 있다. 재킷 길이가 너무 짧으면 캐주얼해 보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며 라벨은 길고 허리는 피트 된 재킷이 좋다.
3. 블랙, 다크네이비, 그레이 슈트를 추천한다.
4. 블루 셔츠나 화이트 셔츠는 기본. 이 두 가지 셔츠는 어느 색상의 슈트와 매치해도 무난하다.
4. 슈트는 클래식하게 가는 것이 제일 멋있다. 클래식함 속에서 타이로 포인트를 주자.
5. 소재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 소재가 좋은수록 신축성이 좋기 때문에 입었을 때 착용감도 좋기 때문이다.
6. 소재에 알맞은 드라이 클리닝이 중요하다. 여러 번을 돌려 갖는 것이 좋다. 계절이 지난 슈트는 안주어에 신문지를 넣어서 슈트케이스에 넣어 두는 것이 좋다.

## Goshe(이희중 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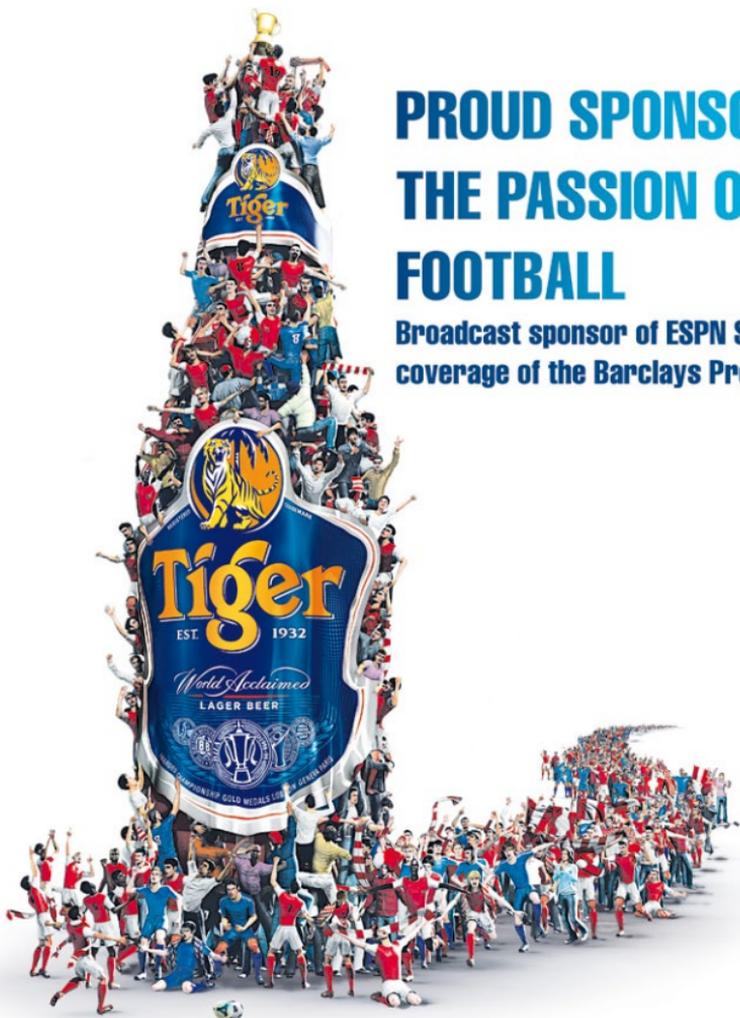


1. 제일 중요한 건 직종과 직재에 맞는 옷재이다. 질이 좋은 원단을 고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수처럼 색 재봉과 고급재지만 한 두 번 드라이한 후에 수명이 다해버린다. 세상에 싸고 좋은건 없다는 걸 기억해라.
2. 가장 무난한 원단은 블랙, 네이비, 그레이 정장을 추천한다. 셔츠는 화이트나 블루를 권한다. 셔츠를 살 때는 목구멍과도 면소재를 신어야 마땅 흡수도 잘되고 데미에가 쉽다.
3. 그레이 슈트는 모든 TPO(Time, Place, Occasion)에 맞기 때문에 추천한다. 자급자족이 색상의 슈트에 어울려 셔츠나 블랙 컬러슈츠의 매치가 좋고 네이비 슈트에 어울려 셔츠와 브라운 계열의 슈츠를 항상 신는 것도 괜찮다.
4. 시계만큼 좋은 액세서리는 없다.
5. 꼭 알아야 하는 것들만 구입한다. 같은 슈트는 2벌 입는속으로 잘려 입지 않아 다림질은 자주 하지 않는다.
6. 슈트는 4년에 한 두 번 드라이 하는 것이 좋다. 구두도 최소 2년마다 돌려 신어야 형태 변형을 줄일 수 있다. 구두가 비어 있다면 구두 속 신문지를 넣고 바느질해서 세워 바느질해 조금 더 오래 놓아 비단 청이 유지되게 한다.



# PROUD SPONSOR OF THE PASSION OF FOOTBALL

Broadcast sponsor of ESPN STAR Sports  
coverage of the Barclays Premier League



**Tiger** ENJOY WINNING



**ESPN**



Broadcast sponsor of ESPN STAR Sports  
coverage of the Barclays Premier League



# Got MAXIM?



경고 ©세 미안 형스님께 판매할 수 없습니다. 앱스토어에서만 그립니다. MAXIM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은 아니어도 내 가족, 이웃까지도 물들게 합니다. 아이패드용 MAXIM에는 중독성 물질인 풀동영상, 미공개컷, 독한농담, 우수암컷, 때깔가게, 교미사실, 독침버린, 가친수컷, 폐인게임, 총질칼질, 프로운동, 새큰차량, 오도바이, 만취음료가 많이 들어있어서 국내 유료 아이패드 매가진 중 매출순위가 부동의 1위인가 봅니다.



LET'S  
PAINT  
THE TOWN  
RED

도시를 붉게 물들여라. 당신의 몸이 뜨겁게 달아 오를 것이다.

BY 고경희 PHOTOGRAPHS BY ARC STUDIO HAIR 이도우, 오한기  
MAKE-UP 고영민 MODEL 김민우, 최수정 ASSISTANTS 세민정, 최정민



정원 (庭園) 1인 1인방 1인방  
285,000원 SYSTEM HOMME

베이지 (베이지) 1인방

가방 (Bag) Change by lee hyun chan

3인방 3인방 1인방

183,000원 CREATIVE RECREATION



여  
망사 장갑이 달린 시스루 상의  
가려 미장 Reamodonne  
821 웨스트 쇼츠  
에디티 소장  
블랙 언더웨어  
105,000원 GUESS Underwear  
레드 슈즈  
380,000원 Gaia

남  
화이트 셔츠 블랙 팬츠  
모두 가려 미장 BON  
블랙 스니커즈  
56,000원 NIX FOOTWEAR



레드 재킷  
가죽 미싱 CharmGe by lee hyun chan  
여성용 드레스  
55,000원 Calvin Klein Underwear



남  
몸집이 훌쩍 커진 듯한 브랜드 로고 티셔츠  
40,000원대 adidas originals  
화이트 맨즈  
88,000원 HAZZYS MEN

여  
화이트 언더웨어  
98,000원 Calvin Klein Underwear  
그레이진  
가격 미정 TANKUS

시계 위에사부터  
레드 프레임이 포인팅인 블랙 밴드 시계  
225,000원 Starck by FOSSIL KOREA  
블루 프레임에 레드 포인팅의 샬버 메달 시계  
740,000원 SEIKO  
레드 가죽 밴드 시계  
368,000원 VAGARY  
레드 프레임 샬버 메달 시계  
648,000원 Paul Smith watch by GALLERY O' CLOCK  
레드 가죽 팔찌  
가격 미정 JAME & BELL

에  
화이트 언더웨어  
55,000원 GUESS Underwear





가이폴 50원 3개 묶음이  
197,000원 (Nata)  
리브 캠프 샷리  
67,800원 Night Queen  
블랙 언더웨어  
50,000원 Calvin Klein Underwear  
블랙 슈즈  
30,000원대 SHOESONE





에  
말이 오픈된 플리워 프론트 원피스  
가격 미정 *Heamadonna*  
블랙 브라지어  
69,000원대 *wonderbra*  
블랙 언더웨어  
35,000원 *GUESS Underwear*  
그린 부티  
가격 미정 *Heamadonna*

남  
체크 셔츠  
100,000원대 *TOMMY HILFGER*  
인디웨어  
가격 미정 *Calvin Klein Underwear*  
플루신  
139,000원 *TOMBOY JEANS*



레드 집업 니트  
가죽 미장 STONE ISLAND  
레드 카고 팬츠  
가죽 미장 Change by lee hyun chan

## Oil &amp; Water

언제까지 당신의 얼굴에 흐르는 개기름을 수분이라고 착각할 텐가. BY 세인팅 PHOTOGRAPHS BY ARC STUDIO

화장품 회사 직원 못 믿겠다, 제품 뒷면에 적어진 성분은 외계어 같다. 그래서 MAXIMO 미우타를 구했다

유수분 밸런스를 잡아준다고 광고하는 제품을 테스트 해봤다. 마무리는 각 제품을 2주간 하루 2번 사용했다.



Kiehl's 레어 어스 딥 포어 데일리 클렌저 150ml 28,000원/ 레어 어스 리파이닝 토닉 250ml 28,000원/ 레어 어스 포어 미니마이징 로션 75ml 38,000원/ 레어 어스 딥 포어 클렌징 마스크 142g 34,000원

신맛함 ★★★★★  
흡수력 ★★★★★  
지속력 ★★

로션은 끈적이지 않고 흡수력이 좋아 만족스러웠지만 지속력은 떨어지는 듯했다. 질감이 부드러워 발림은 좋았으나 색상이 들어가 있어서 비비크림을 바른 것처럼 됐다. 클렌저는 스크럽이 해도 될 정도로 피부에 원가 곁히는 느낌이라서 매일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유분기를 잡아주는 효과는 부족했다. (테스타: 이선한, 직장인)



CLARINS 사인 프리 젤 50ml 46,000원

신맛함 ★★★★★

흡수력 ★★★

지속력 ★★★

하나로 끝! 여러 제품을 순서대로 바를 필요가 없어 간편하다. 기대 이상의 유분 조절 기능은 낮 동안의 번들거림을 확실하게 막아주었다. 수분은 다소 부족했다. 심한 지성 피부가 아니라면 건조한 환경기에는 이 제품만으로는 만족하기 힘들 것 같다. (테스타: 홍승모, 직장인)



LAB SERIES 오일 컨트롤 데일리 하이드레이터 50ml 44,000원/ 오일 컨트롤 타겟팅 30 Tissue 33,000원/ 일 컨트롤 웨이스 워시 125ml 33,000원

신맛함 ★★★★★ 흡수력 ★★★★★

지속력 ★★★★★

웨이스 워시는 피지 제거 능력이 뛰어나서 청량감이 들지만 알코올 향이 다소 강하다. 하이드레이터는 로션 특유의 향이 적다. 유분기가 확실하게 잡아줘서 피부 트러블이 눈에 띄게 줄었다. 타겟팅은 유분을 닦아내는 느낌이 약하다. 물티슈 같다. (테스타: 이희연, 대학생)



ZIRH Protect 100ml 46,000원  
신맛함 ★★ 흡수력 ★★★★★  
지속력 ★★★

은은한 향에 첫 느낌은 좋은 반면 발랐을 때는 다소 번들거린다. 수분을 촉촉하게 공급해서 피부에 수에 적합하다. 지성피부라면 여름보다는 겨울에 쓸 것을 추천한다. (테스타: 김진욱, 직장인)



DHC 포밍 페이스 워시 150ml 9,800원/ 페이스 큐어솜 60g 10,000원/ 페이스 젤 50g 9,800원

신맛함 ★★★★★ 흡수력 ★★★★★

지속력 ★★★★★

포밍 페이스 워시는 세안력이 좀 떨어지고 미끈거리는 느낌. 큐어솜은 세안력이 좋고 거품도 풍부했음에도 세안 후 당김도 없었다. 페이스 젤은 세안 직후 나타나는 건조함이 없었다. (테스타: 박상우, 피차터디)

tip

여름철 입찰 흐르는 유분을 잡는 법  
당신은 이미 충분한 개념이다.

## 1. 한류 바수

냉정과 속 한류 바수! 입술은 물론 세안 한다. 차가운 물이 피부 온도를 급하강시켜 피지 분비를 억제하고 모공을 조여 피부 탄력을 높인다.

## 2. 오일 필름

면역 에디션! 간단하게 유분을 제거하는 오일 필름! 기름종이(오일) 1조, 1조 부위를 꼭꼭 눌러주자.

## 3. 피지 컨트롤 화장품

시용에 있는 피지 컨트롤 제품을 생용용기에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 바려주자.

HELP 유용도 향상

(오라클피부과 대치점 02-501-4818)



Mdoc 워터드롭 스킨 에센스 70ml 20,000원/ 세뽀 스트라이크 토너 150ml 18,000원

신맛함 ★★★★★ 흡수력 ★★★★★

지속력 ★★★★★

하루종일 피지 과다 분비를 잡아준다는 점은 매우 만족스럽지만, 피지 조절 피우다가 병 바닥에 가라앉아 있어서 사용 할 때마다 흔들어야 하는 것이 조금 불편했다. 또 사용량 조절에 실패하면 얼굴이 하얗게 떠보인다. (테스타: 최문영, 사업가)



ESSOR 에스르 스포츠 아쿠아틱 스킨에센스 120ml 28,000원

신맛함 ★★★★★

흡수력 ★★★★★

지속력 ★★★★★

끈적임이 전혀 없어서 시원한 지성피부에 강력 추천한다. 바른 지 3~4시간 후엔 유분기가 사뭇 건조하게 느껴질 정도다. (테스타: 박창경, 직장인)

# Women Want You Waxing

당신의 무성하고 까슬한 털로 인해 마음과 몸에 상처 난 여성들을 위해 지금 당장 왁싱을 하라.

BY PHOTOGRAHS BY ARC STUDIO MODEL 김은주

최근들어 왁싱에 관심을 갖는 남성이 많다. 적절한 위치에 지린 적당한량의 털은 피부를 보호하고 색채해 보기도 하다. 하지만 매끈한 피부가 보여야 할 자리에서 털로 덮여 있다면 흔쾌 왁싱이란 간단히 말해 모근 제거를 말한다. 여성의 경우 왁싱을 하면 음모에 골판이균이 자라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남성은 자기가 털 때 털 쓸림을 없애주고, 풀업 팬츠나 쇼츠를 입을 때 거뭇하게 빠져 나오는 털로 여성에게 혐오감을 주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각질 제거 효과도 있고 피부 톤도 밝아져서 지금 당장 시도해보자. 여자친구에게도 당신의 고운 속살을 보여줄 때가 됐다. 집에서 하는 것과 자신이 직접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모두 MAXMI 직접 체험해서 알려주자.

## SHOP Waxing



1. 제모를 받기 전 피부 타입에 맞는 제모제를 선택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



2. 제모를 원하는 부위에 스킨을 문힌 화장 솜으로 소독한다.



3. 제모제를 바른다.



4. 왁싱용 천으로 재빨리 털을 떼어낸다.



5. 피부 진정을 위해 진정 효과가 있는 티트리 오일과 로션으로 마사지한다.



6. 완전히 제거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왁싱 솜에서 사용한 제모

#### MAXMI

초콜릿 성분 포함 왁스 건조 피부에 사용하는 하드 타입으로 브라질리언 왁싱 때 사용  
달기 성분 포함 왁스 (대부분 피부에 사용 가능)

일모에 성분 포함 왁스 얇은 털에 사용  
플스 성분 포함 왁스 보디 왁싱에 사용

#### MAXMI

티트리 오일 진정 효과 왁싱 후 비버 일모에라 알면 모공을 닫는 데 효과적이고 쁘 차가운 겔로 냉각고에 보관하여 얼음 왁싱 시 사용

## SELF Waxing

### 1. MOM CLASIC

\*전자렌지에 한 번 돌리거나 뜨거운 물에 끓여 사용하면 된다.



2. 스파클라(화장품 주리)로 적당한 양을 원하는 부위에 털이 난 방향으로 펴 바른다.



3. 왁싱용 천을 붙인다.



4. 털이 난 반대 방향으로 재빨리 천을 뜯는다.



5. 완전히 제거된 모습을 확인할지.



1. 제모 크림을 원하는 부위에 썬다.



2. 스폰지로 부드럽게 면을 이용해 크림을 떼 버린다.



3. 1~2분 후, 물 묻힌 스폰지로 깨끗한 면으로 문지른 후 닦아낸다.



4. 완전히 제거된 모습을 확인할지.

## 습 왁싱 VS 셀프 왁싱

여자친구에게 브라질리언 왁싱한 당신을 찬양하진 마라. 왁싱을 쉽게 봤다면 큰코 다치기 십상이다. 집에서 받는 왁싱은 전문가가 개개인의 피부 타입까지 고려해 피부 손상을 최대한 막으면서 진행하지만, 자가 진행을 하면서 관리를 하지 못하면 피부 모공과 피부 결이 손상되고 세균 감염 등의 우려가 있다. 처음 받고 3~4주 정도 지나면 털이 자란다. 털 하나하나 자라는 속도가 달라 왁싱 유지 기간이 다소 짧다. 하지만 3회차부터는 성장 주기 맞춰지면서 유지 기간이 길어진다. 왁싱 후에는 열린 모공을 깨끗이 닦고 피부를 진정시켜야하는데 솜에서는 크림이나 젤로 마무리한다. 기사를 위해 사용한 셀프 왁싱은 뜯는 타입과 씻어내는 타입을 사용했다. 모기도 빼제나가지 못할 정도의 울창한 털을 가진 사람이려면 뜯는 왁싱을 추천 한다. Veet in shower hair removal cream은 모근까지 제거하지 못하므로 2~3회 후 다시 해야 하지만 사용이 편하다. 왁싱의 시간 투자가 가능하면 MOOM CL ASSIC을, 급히 해결해야 한다면 Veet in shower hair removal cream을 권한다.



### TIP 한편에, 이여진 정장님(뷰티플래너 강남점)

왁싱 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 왁싱 후에는 모공이 열려 있어 세균 침식이 쉽기 때문에 대충 욕탕은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샤워를 할 때는 뜨거운 물보다 미지근한 물로 하라. 이미 왁싱으로 모공이 열린 피부에 자극까지 더한 상태에 뜨거운 물로 또 자극을 주면, 붉은 기가 오래가고 모공이 빨리 닫히지 않기 때문이다. 습 왁싱 때는 따로 보디크림이나 오일을 바를 필요 없지만 셀프 왁싱을 경우 보디크림이나 오일을 꼭 발라줘야 한다. 인기로운 헤어털이 피부분에서 맺혀 있는 상태를 막기 위해서는 주 1~3회 보디스크림을 해야 한다.

### 에디터 후기

오른쪽 다리엔 뜯는 왁싱 제품 MOOM을, 왼쪽 다리에는 씻어내는 제품 Veet in shower hair removal cream을 사용했다. 잠깐의 찜도 내기 싫은 귀차니즘인 에디터에게 Veet가 적합했다. 두 제품의 사용법이 다르니 초보자에게는 Veet를 추천한다. 왁싱하느라 고생한 모델에게 감사드린다.

# 2010 WORLD DJ FESTIVAL

최대한 날세보다 더 핫했던  
WORLD DJ FESTIVAL을 즐기는 패션 피플을 만나봤다.



이성표(20) 학생  
헤어랜드\_가제 제작  
신글라스\_Ray-Ban  
티셔츠\_American Apparel  
저스틴드\_스트라이프 슈츠  
팬츠\_UNIQLO  
슈즈\_COVERSE  
모든 인 스타일 스트리트 슈츠



박재지(33) 연구원  
모지\_스트라이프 슈츠  
티셔츠와 팬츠\_반디지 슈츠  
팬츠\_YOHO YAMAMOTO  
팬츠\_DIOR HOMME  
팬츠\_영국 국가\_스트라이프 슈츠  
모든 인 스타일 슈츠



박석원(20) 학생  
점프 슈트\_타 회사 작업복  
시계\_BEAMS BOH-LA  
벨트\_동산복 리플  
책갈피\_영글 반지\_영글  
모두 스트리트 슈츠  
슈즈\_Dr. Martens  
모든 곳



김홍석(26) 학생  
신글라스\_Ray-Ban  
티셔츠\_H&M  
팬츠\_A.P.C.  
슈즈\_Clarke  
모든



윤왕교(30) 호렙리아어  
신글라스\_Ray-Ban  
티셔츠와 팬츠\_American Apparel  
시계\_G-shock  
모든 장



강현태(24) 학생  
모지\_UNIQLO  
신글라스\_Ray-Ban  
티셔츠와 팬츠\_반디지 슈츠  
시계\_SMATCH  
슈즈\_COVERSE  
모든 곳



유동훈(30) 프리랜서  
신글라스\_LINDA FARROW X DAMIR DOMA  
티셔츠\_American Apparel  
쇼츠\_ALLEN\_A  
레깅스\_UNIQLO  
슈즈\_NEW BALANCE  
모든 곳



Oh my Lady



ROSWAL20 학생  
선글라스\_Ray-Ban  
팬츠\_빈티지 습  
슈즈\_TOMS  
□ 스트리트 습



이도현20 패션스 디렉터  
모자\_Nirvite  
가인\_스트리트 습  
선글라스\_METRO CITY  
그래이 티셔츠\_DESIGN WORKERS  
화트 핑크 민소매 티셔츠\_샘즈 제작  
시계\_PMP  
팬츠\_A.LAND  
양말\_UNIQLO  
슈즈\_Dr. Martens  
□ 모든 곳

김태수20 학생  
문광이 티셔츠\_빈티지 습  
팬츠\_HYSTERIC GLAMOUR  
슈즈\_RED WING  
□ 압구정 로데오

유원진20 학생  
모자\_티셔츠\_벨트\_팬츠\_모두 빈티지 습  
제인\_Nude Jeans  
슈즈\_Dr. Martens  
□ 홍대



김경수20 학생  
그래이 티셔츠\_채드 셔츠\_빈티지 습  
블루진\_O-EAP MONDA  
양말\_스트리트 습  
슈즈\_Dr. Martens  
백\_A.LAND  
□ A.LAND

김준수20 학생  
데님\_제인\_자체 제작  
티셔츠\_팬츠\_슈즈\_모두 스트리트 습  
□ 모든 곳

채경훈20 학생  
티셔츠\_UNIQLO  
모자\_귀광이\_팬츠\_슈즈\_가인\_모두 빈티지 습  
□ 모든 곳



유승호20 학생  
선글라스\_OAKLEY  
티셔츠와 팬츠\_codes combine  
시계\_Nixon  
슈즈\_Dr. Martens  
□ 홍대



최정훈20 군인  
체드 셔츠\_빈티지 습  
시계\_INVICTA  
팬츠\_HOLLISTER  
슈즈\_LAWNN  
□ 영동



안병재20 박사  
모든 제인\_빈티지 습  
□ 모든 곳

Free Market



I DO LIKE YOUR STYLE

# HOT ELDERLY LOOK

그들의 핑크함에 온 거리가 들썩였다. 들썩 들썩  
WORDS, PHOTOGRAPHS BY 권민재, 권희성, 양기봉 ILLUSTRATION 조장민

## > FUNKY STREET STYLE

문경재(76세)

무심한 시크함이 마치 서을 강남 거리에 일라노를 옮겨놓은 듯하다. 핑크 스카프를 포인트를 주고 루즈한 피트의 상의 컬러가 복고의 미학을 보여준다.

김재환(80세)

배기 트라우자에 패턴이 버라이어티한 스트라이프 카디건의 조합이 보부사다. 톤업된 주황색 피케셔츠로 시선을 위로 집중시켜 작은 키를 커버했다.

신옥순(74세)

이방기르드한 디테일 주름치마에 절개선이 독특한 상의로 재미난 착장을 선보여 프렌치 시크룩의 전형을 완성시켰다.

최복자(73세)

블루중 일색의 올블 스트리트 패션에 도전하는 국방위험장 스타일 베이비 핑크 점프슈트의 소프트 로엔틱함은 2010 시즌의 핫 트렌디 룩. 이것이야

말론 스타일 패션의 정석

정순복(71세)

노랑과 주황을 매치하는 대범함이 극적인 효과를 이끌어 낸다. 베이직 팬츠로 밸런스를 유지 하는 예지가 돋보인다. 캡, 슈즈 등 화이트 컬러 소품이 포인트. 골프웨어 마니아들은 베이직 웨어를 구입하는 데에도 돈을 아끼지 않는다.



**박노영(75세)**

고급스러운 스트라이프 장식의 포명한 네이비 슈트는 그의 사회적 지위를 짐작하게 한다. 목에 걸맞은 에티튜드 또한 가치 패시 미플이라 부를 만하다. 100m 밖에서도 보이는 불명불령한 배지가 포인트.



**박정순(71세)**

중성적인 실루엣의 사파이어 블루 세미정장이 보디를 휘감는다. 모노톤에 튀는 칼라로 포인트를 줘야 한다는 공식을 역이용해 드라마틱한 돌잔치 목을 연출했다. 클러치백은 프라다.

**하보원(74세)**

웨스턴 유림의 낭만을 '금연 필터'로 표현했다. 후대폰 목걸이와 선글라스 케이스를 버버리 체크로 통일하는 세심함까지 더해 완벽한 유러피언 스타일을 선보였다. 오른쪽 허리춤에 한 선글라스 케이스는 아이리스 안경원 가격 미정.

**이돈(왼쪽, 69세) 이엽(오른쪽, 74세)**

함께 있어야 뽀보이는 진정한 커플룩의 스탠다드는 베이자와 스카이블루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증명한다. 상의를 파스텔톤으로 통일한 이 스마트한 패시 미플은 형제지간.

# INDA CLUB!!



Twins Party

쌍둥이 콘셉트 파티가 쌍쌍파티보다 재미있을 줄은  
MAXIM도 몰랐다. 광란의 밤으로 초대한다.

BY 권해진 후원단 PHOTOGRAPHS BY ARC STUDIO  
COOPERATIONS GOA LIMITED(www.goa.net) CLUB MACSI(www.clubmacsi.net)



Disco  
Baby



MAXIM





Come on Baby



Club Mass



GOA

파티플래너 송원우 (주)GOA LIMITED



클럽에서 가장 빛을 발하는 남자 의상은?

클럽 안은 어두우니 밝은 계열 옷이 좋다. 화이트 셔츠나 티셔츠에 블루진이 가장 멋지다. 선글라스와 인스에 티셔츠는 최악

마음에 드는 이성에 접근하는 이상적인 방법은?

술보다 음료수를 건네보자. 술 안 마시는 사람은 있지만, 음료수 안 마시는 사람 없으니까. 친근해하려는 인상을 주지 않고 당신의 센스는 높여줄 것이다.

수입은 어떻게 되나?

파티 기획력에 따라 수입은 달라진다. GOA는 파티 기획 한 건 당 천만 원에서 천오백만 원 정도 본다.

파티플래너가 되려면?

파티플래너에겐 기획력이 가장 중요하다. 활발하고 시교성 넘치는 성격이라면 금상첨화

(당사에서 가장 좋아하는 파티플래너 송원우가 들려준 [www.maximkorea.net](http://www.maximkorea.net) 에서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 KING OF POP MICHAEL JACKSON



놀라지 마시라. 2010년 6월 25일, 우리가 팝의 제왕을 잃은 날로부터 정확히 1년째 되는 날이다. "별써?"를 외치기도 전에 그는 전설이 되고 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고 간 그를 추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대한민국에서 그 이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이는 단 한 명. 대한민국 제1호 팝 칼럼니스트 서병후다. 감이 잘 안 온다고? 바로 타이거.K의 아버지이자 윤미래의 시아버지이자 서조단의 할아버지인 그대 어지러운 중원에서 한발 물러나 있던 무림 고수가 MAXIM과 마이클을 위해 친히 몸을 일으켰다.

BY 박성우 WORDS BY 서병후 IMAGES 모든 마이클 책은 사진 (Getty Images/김대호)



1983년 1월 31일, 제2회 슈퍼볼 게임 하프타임에 공연하는 마이클 잭슨.

## 전설의 전설 팝의 제왕 마이클 잭슨의 빛과 그림자

마이클 잭슨의 타계 1주기에 들려오는 그와 관련한 몇 가지 세소식의 일부다. 그러나 그는 이미 1984년과 1989년 사이에 메가스타로서 전설의 절정기를 누렸다. 그는 음반 판매, 콘서트 관객 동원, 거액의 CF 출연, 자선 활동(아프리카 난민 구호 모금을 위한 '위 아 더 월드' 뮤직 비디오 공동기획·제작 등 세계 정상급 대중음악 스타들이 세운 기록을 모두 깨뜨린 전무후무한 스타다. 그는 1989년

**“나는 내 일에 모든 것을 바쳤다.  
그것은 나의 삶의 이유이기 때문이다.”**

-자신에 가을, 소니 뮤직이 발매한 《마이클 잭슨의 디스 이즈 잇》 2CD OST는 세계적으로 모두 500만 장이 판매됐다. 영화도 다시 DVD로 나와 판매고 1위를 기록했다.

-마이클 잭슨 상속 재단과 소니 뮤직의 컬롬비아 에픽 레이블 그룹은 지난 30년간의 관계를 앞으로 계속 유지하고자 레코딩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3월 16일 발표했다. 첫 프로젝트로 마이클의 미발표 취입곡을 담은 다음 앨범이 올해 11월에 출반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니 뮤직은 2001년 《인비저블》 앨범을 끝으로 생전의 마이클과 재계약을 취소한 바 있다.

한때, 모든 업적을 거의 성취했으므로 일체의 실황 공연에서 은퇴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한 언론사가 기획한 1989년의 내한공연이 무산된 것은 이 때문이었다.

1984년 봄 필자는 특별 취재차 마이클 잭슨의 선셋-호니 사무실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그곳에는 레이건 당시 미 대통령이 그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기 위해 보낸 백악관 메신저들을 만나볼 수 있었다. 그들은 대통령의 초대장을 들고 와 마이클의 수락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이클 축이 분주한 스케줄을 내세우며 오히려 워싱턴 행 일정을 재조정하는 민지 못할 진풍경이었다. (그는 결국 그해 5월 백악관에서 레이건 부부의 환영을 받으며 표창식에 참가했다.)

인디애나 주 시골 마을에서 미국 제철회사 공장 직원으로 일하던 복스 출신, 무명 R&B 밴드의 기타리스트였던 흑인 아버지 조 잭슨과 대형 마켓 점원 출신의 어머니

캐서린 사이의 6남 3녀 중 다섯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5세 때 형들의 이름 없는 시골 흑인 그룹 리더 보컬로 데뷔했다. 팝의 제왕이 비상(飛翔)하는 순간이었다. 그 뒤, 1989년에 당시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은 또 다시 그를 초청해 백악관 특별 시상인 '시대의 아티스트상'을 수여했다. 리즈 테일러 같은 톱 배우뿐 아니라

브룩 설즈나 테이텀 오닐 등 할리우드 인기 여우들이 디투

어 그의 데이트 신청에 응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외동 딸 프리실라 프레슬리를 그의 첫 아내로 맞이할 정도도, 제왕 마이클은 인종차별의 벽을 훌쩍 뛰어넘어 백인 주류 사회의 총아로 등장했다. 전 세계 수억 명의 팬을 사로잡는 무기는 다음 아닌 마이클의 팝 음악에 대한 천부적 재능과 인간적인 매력이었다.

우리는 이미 '로큰롤의 제왕' 엘비스 프레슬리를 만났고, 비틀스, 레이 찰스, 밥 딜리 등 대중음악의 시대별·장르별 전성을 목격한 바 있다. 그러나 무엇이 마이클 잭슨을 '내 생애에서는 다시 보지 못할 레전드' 중 레전드'(T 율미래의 말)로 만들었을까?

그의 음악은 모타운의 유명 흑인 스타들을 자랑하던 디트로이트 R&B의 정수의 경계를 뛰어넘어 록과 재즈, 포크와 발라드 등 여타 장르의 정점을 모두 모은 종합적인 작품이었다. 가장 많은 리스너가 공감하고 즐길 수 있고

록,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할 때 속에 융화하는 절제력과 완성도를 추구했다는 점은 그의 천재성을 보여준다. 일례로 '빌리 잔'에서 그는 헤비메탈 기타리스트 에디 반 헤일런의 솔로를 삽입하는가 하면

**“무대에 선다는 것은 마법이다. 에너지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몇 번씩 드러머를 초빙해 맛을 더해주었다. '스릴러' 후반에는 호러 영화의 대가 빈센트 프라운스의 공포 랩을 파러칭했다. 그의 흥 춤작에는 브루스 리의 무술 동작이 녹아 있다.

1972년 그가 '갓 투 비 데어', '벤' 등 자작곡을 발표하며 솔로 활동을 시작한 것은 14세 때였다. 솔로 전향 10년 뒤인 1982년 발표한 음반 '스릴러'는 1년 만에 전 세계에서 1억1천만 장이 팔리면서 세계 음반 사상 최고의 판매량을 올렸다. 이 음반 한 장에서 '빌리 잔', '비트 잇' 등 수록곡 7곡이 히트하는 가운데, 1984년 선보인 뮤직 비디오 '스릴러'는 아직까지 최고 영예의 뮤직 비디오로 남아 있다. 그는 <더 위즈>와 <캠프 EO>를 비롯한 9편의 영화/시디에도 출연했다. 남자 솔로 가수로서는 최대 음반 판매를 기록한 팝가수로 남은 그의 10장의 솔로 음반 판매량 기록은 총 7억5천만 장으로 집계된다. 지난 30년 동안 솔로 아티스트로서 마이클은 13곡의 넘버원 싱글을 기록했고, 15개의 그래미상을 수상했으며,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 두 번이나 (한 번은 그룹으로 또 한 번은 솔로 가수로) 헌액된 몇 명 안 되는 아티스트가 됐다.

젊은 시절 만난 폴 매카트니 같은 특급 음악인들과의 컬래버레이션 경험은 그의 음악적 시야를 넓혀주었다. 자칫 내용이 빈약한 댄스뮤직의 함정에 빠질 수 있던 그는 1979년 제프의 가장 친신 킨스가 프로듀싱한 솔로 앨범 <오프 더 월>을 발표하면서 음악적 완성도를 높였다. 합창을 비롯한 흑인 아티스트들이 MTV 등 주류 방송 매체로 진출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사람이 바로 마이클이라는 사실을 많은 합창 아티스트는 고맷게 기억하고 있다.

스무 살이 되기 전 마이클은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메니지먼트사와 절연하는 냉정함을 보이는가 하면, 한때 예뻐 음반 뉴욕 지사에서 눈부신 음반 프로모션 활동을 펼치던 프랭크 딜레오를 자신의 메니지먼트 최고 지휘자, 퍼스널 매니저 자리에 앉혔다. 1984년 초의 일이었다.

매니저 딜레오는 마이클의 예술 비전을 뒷받침해줄 만한 강력한 리더십을 가졌다. 그는 마이클의 영화 <문 위 카>를 비롯해 가객의 펄스콜라 CF 3편의 출연을 제작했고, 그래미상 수상 작품을 포함한 여덟 편의 뮤직 비디오를 프로듀싱했다. 1989년 (베드(Bad) 앞 두어), 잭슨 가족이 모두 출연한 1983~84년 공연 (빅토리 투어) 등도 그의 솜씨다. 1989년 2월 변호사들과 레코드 산업 중역 출신의 메니지먼트 군단이 딜레오의 지휘를 빼앗은 이후, '팝의 제왕'의 왕국은 물론 사생활과 커리어가 서서히 허물어졌다고도 볼 수 있겠다.\*

마이클은 몇 번의 코 성형수술로 인한 부작용과 피부 빛의 변화, 산소관 속 수면, 침팬지와와 친구 등 가십 기사가 번지며 '웨코 재코(Weco Jacko)' 괴짜 '잭슨' 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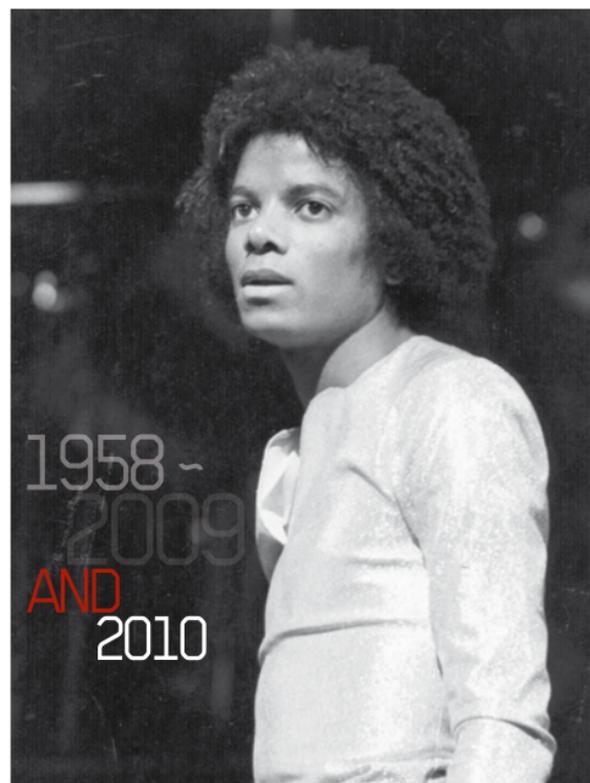
반감기 없는 별명을 얻고 스포트라이트에서 멀어졌다. 급기야 2003년과 2005년 두 번에 걸친 아동 성추행 사건에 휩싸이며 소속사 소니 레코드와 재계약이 취소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한동안 침묵과 잠적 속에 유럽과 중동 등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던 마이클의 삶과 예술적으로 퇴조하는 모습이 노그레이스의 증언으로 드러났다. 그녀는 재미 인도인 대체의척자 겸 저술가 디파크 초프라가 마이클에게 소개한 르완다 출신 유학생이었다.

그녀의 입에서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다. 변호사 비용 지불로 궁지에 몰린 그에게 700만 달러를 빌려 준 바레인 왕자 셰이크 압둘라의 배신과 변상 요구 소문의 내막, 서유상으로는 로열티 수입업자 미화 수의 달달대어 이르는 세계적인 부호 마이클이 끊임없이 생활을 한 모습, 어려서부터 몸담던 여호와의 증언에서 나온 뒤 귀위한 네이션 오브 이슬람(Nation Of Islam, NOI)에 의한 출연료 착취설, 마이클 사망 전에 시적된 힌

두고 영상 입문설 등 여러 설이 분분하지만 그중 NOI는 마이클의 죽을 직전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두 번의 결혼에서 얻은 세 아이와 호텔을 전전하던 그는 유럽 유랑 생활을 마치고 LA에 돌아와 런던 클럽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둔 홈비힐스의 집도 마이클의 경호를 맡아온 흑회교, NOI에서 빌린 것이었다.\*\*

\*한동안 영화 출연으로 세월을 보낸 62세의 전설적 전 매니저 프랭크 딜레오는 20년 만인 2008년 다시 마이클의 곁에 돌아왔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공헌은 사망 전 마이클의 캠페인스트리트 리허설 모습을 보여준 영화 <다스 이즈 잇>의 공동 제작뿐이었다.

\*\*미국 정부의 편지를 받은 해비단 흑인 복싱 세계 챔피언 케시어 스콜리가 1984년 흑인 민간운동에 적극적이었던 흑회교, 네이션 오브 이슬람(N.O.I)으로 전향하며 이들을 무라드 알리로 배운 여와 흡사하다. 알리는 다시 1975년 수니파 이슬람교로 그 뒤 무슬림으로 전향했다.)



**팝의 황제**는 죽어서도 끝없는 화제와 의문을 남겼다. 보노 그레이스는 얼마 전 "내가 20년 이상을 마이클 곁에서 지켜왔고, 그의 세 아이를 생모처럼 보살피는 일에서 얼마 전에 밀려났으며, 그 대신 NO(네이션 오브 이슬람: NATION OF ISLAM) 측 여성이 들어섰다"고 주장했다.

마이클의 세 아이 중 둘은 인공수정으로 태어났고, 그의 히트곡 〈빌리 진〉 가사 ("The kid is not my son")처럼 마이클의 혈육이 아니라는 사실이 간혹사 출신인 두 번째 아내의 증언으로 밝혀졌다. 마이클은 또 다른 대리모에 의해 태어난 세 번째 아이만을 자신의 혈육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확실치 않다. 마치 그의 사인(死因)처럼.

2010년 1월 31일 52회 그래미 어워드 공연장에서는 마이클의 동생 자넷 잭슨을 포함해 수많은 슈퍼스타가 감동적인 추모사와 함께 잭슨을 추모하는 공연을 펼쳤다. 그리고 마이클의 두 아이가 등장해 "우리는 아빠가 그리워요"라고 말하던 그 순간 그 공연장에 있던 많은 스타들이 눈물을 흘리게 만든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다. 이를 지켜보던 전 세계인의 가슴도 먹먹해졌다.

1년이 지난 지금, 팬들의 마음속에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 주고 간 먹먹함과 슬픔은 조금 사그라졌지만 그가 준 감동만은 여전히 크고, 차고, 넘친다.





##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

마이클 잭슨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모든 세대에 영향을 미치고 영감을 주는 음악을 하고 싶다. 그의 꿈은 이루어졌다."

**팻 조** "마이클이 없었다면, 크리스 브라운도, 저스틴 팀버레이크도 없었을 것이다."

**스눅독** "그의 음악은 결코 죽지 않고, 그의 정신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는 우리에게 너무도 큰 영향을 끼쳤다."

**와이클리프 톰** "그는 뮤직 아이콘 이상이었다. 그는 나의 음악적 신이었다."

**디디** "마이클 잭슨은 우리가 비트를 실제로 볼 수 있게 보여주었다. 그는 음악을 살아 움직이게 했다. 그는 나에게 마음을 열게 해주었다."

**윌.아이.엠(블랙 아이드 피스)** "왕과 함께 일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한다. 그는 이 세상에 온 선물이었다. 그는 밝은 빛이었고, 그 없는 자리가 더 이상 돌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놀라지 않았다."

**MC 해머** "말이 안 나온다. 마이클을 정말 많이 사랑했다."

**루디크리스** "그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나도 여기에 없었을 것이다. 그의 음악과 유산은 영원히 살아 있을 것이다."

### LEGEND



마이클 잭슨을 만났다.

"나는 사람들이 초현실적 감정을 경험하게 해줘야 할 의무를 느낀다. 그것이 내가 여기 있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누군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언제나 내 꿈과 함께 할 것이다."

"내 태부터 공연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멈추지 않았다."

"사랑받는다는 것은 멋진 일이다. 하지만 결코 자랑하거나 이웃보다 낫다고 생각하며 우울한 적은 없다."

"사람들은 늘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이상할 수 있으니까."

"유명해지면 멋진 점이 많다. 하지만 시간은 자신을 위해 써야 한다."

"뭔가에 열중하고 함께 하여 맘 풀리고 나서 그것을 사람들과 공유하는 게 좋다."



▲ 2010년 1월 3일, 잭슨의 재네럴(LA에서 열린 제2회) 그레이 어워드에서 마이클 잭슨의 평생공로상을 수상하고 있다. 딸 레리스(왼쪽) 아들 프랜시스(오른쪽)



▲ 2009년 10월 3일, 마이클 잭슨의 가족이 장례식 표창으로 장례식에 참석했다. (좌로부터 자넷, 랜디, 재기, 티토, 제레인, 딸린)

# ICON

WORDS MIKE OLSON IMAGE 리틀리 스켓/Getty Images/겟티이미지

# Ridley Scott

올해 나이 72세. <에이리언> <블레이드 러너> <글래디에이터>를 만든 리틀리 스켓 감독이 새 서사 영화 <로빈후드>를 선보인다. 그리고 그의 빛나는 새 무류드.

## 수술 후 회복 중이라고 들었다.

무릎을 교체했다. 이거 욱 나오게 아프다. 진짜 정신이 나갈 정도다. 그럴 땐 약이 필요하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 같은 경우는 필요했다.

## 어떤 약이 효과가 있었는가?

모르핀 한 방이면 괜찮아진다.

## <에이리언 VS. 프레데터>는 마음에 들었나?

그렇지 않게 그 영화와 엮이고 싶지 않다. 그 사람들이 만든 에이리언을 써 먹었다고 얘기한 적도 없다. 기분이 상했다. 그러다 '그래, 여기는 할리우드인데. 안 될 게 뭐가 있겠어?' 라고 생각했다. 지금 속편을 준비하고 있다. 기확인과 대본도 완성된 상태다.

## 오리지널 '에이리언' 은 오랫동안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그렇다. 그때 이미 조지 루카스는 차세대 기술로 <스타워즈>를 완성한 상태였다. 하지만 우리는 루카스보다 예산이 적었다. 그래서 우리는 아날로그 기법을 썼다. 달리 샷기메라를 레일 위에서 움직이며 촬영한 화면 촬영이나 엄청난 양의 드라이아이즈와 대형 선풍기 같은 걸 사용했다. 아주 기본이고 지금까지도 유용한 기술이다.

## <아바타>에 자극 받지 않았나?

제임스 카메론은 '이게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 말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스탠리 큐브릭이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로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말이다. 할리우드 감각이 나와 뭔가 하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 헤리스 포드와 함께 <블레이드 러너>를 촬영할 때 굉장히 짜증났다고 말한 적이 있다. 아직도 그런가?

그렇다. 아마 그는 아직도 그럴 거야

있었지만 하지만 그는 감독인 내가 더 짜증이 났다고 하겠다.

## 나이가 들어서 유순해지는 것 같다.

그렇다. 하지만 난 여전히 구두쇠라 세태다. 시나리오 음악부터 구두끈까지 눈으로 확인해야 직성이 풀린다.

## <글래디에이터> (아메리칸 갠스티), 그리고 최근 작품 <로빈후드>까지 러셀 크로와 함께 작업했다. 그와 공방이 잘 맞았기 때문인가?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우리 엄청 자주 싸운다. 그가 언제나 질문 공세를 퍼붓기 때문이다. 영화에 집중하고 그것을 연기로 보여주기 위해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은 그의 특장점이기도 하다. 그가 '정말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물으면 나는 그날 '그래' 라고 대답한다. 나는 가능한한 설명을 적게 해주려고 한다.

## 에이리언 존 허트의 배를 들고 나오는 장면, <엘미와 루이스>의 두 주인공이 손을 잡은 채 절벽으로 처를 뛰어 자살하는 장면, 그리고 <한나발>에서 맨서니 출신 스가 뇌를 기름에 튀기는 장면 중에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존 허트가 나온 시퀀스가 가장 좋다. 대본상으로도 좀 유쾌하지만 일단 찍어봤다. 근데 이게 촬영인가 남자가 부엌 테이블에서 괴물의 아이를 낳는 장면이라니! 과장된 것처럼 나올 뻔했는데 아주 잘 나왔다.

## <지 아이 제인> 같은, 인기를 못지 못한 영화는 어떻게 생각하나?

<지 아이 제인>에 대해서 별로 깊게 생각해본 적이 없다. 데미 무어에 관해서는... 음, 내 평생 한 손으로 푸사-업을 그렇게 잘하는 여자는 본 적이 없다.

## <글래디에이터>를 만들 때 그 영화가 기존 서사 영화의 재작 관습을 바꿔놓을 거라고 생각했나?

나 말고 두어 명의 감독에게 감독 제의가 있던 것으로 안다. 그러나 그들은 창과 검, 그리고 가죽 샌들이 나오는 영웅 영화의 면모가 사라지는 걸 싫어했던 것 같다. 이런 영화들은 연극적인 요소가 너무 강해서 까다로운데, 이를 영화로 극복하려면 스펙타클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래서 서사 영화가 어렵다. 그리고 그 서사는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의 인물에 가깝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 <로빈후드>도 그런 생각으로 찍었나?

그렇다. 그와 우리는 지금 여기 같은 세계에 사는 인물이다.

## 역사물의 팬으로서 질문하겠다. 당신이 그런 영웅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로빈후드는 1년 넘게 전설로 남아 있다. 실제로 무엇인 건 그 상상 속에서 무뎠다. 영웅 또는 공상적 바이베루자로 남아 있다. 이 사람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또 존재했더라도 우리 상상만큼 순수했는지 어는지는 알 수 없다.

## 영화 만들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 같다. 대부분 로빈후드 영화는 참 별로였으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로빈후드 영화는 많지만 한 번도 감동받은 적이 없다. 우리가 최초로 멋진 로빈후드 영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 당신이 열여덟 살이었을 때의 자신에게 찾아가 말을 걸 수 있다면 무슨 말을 하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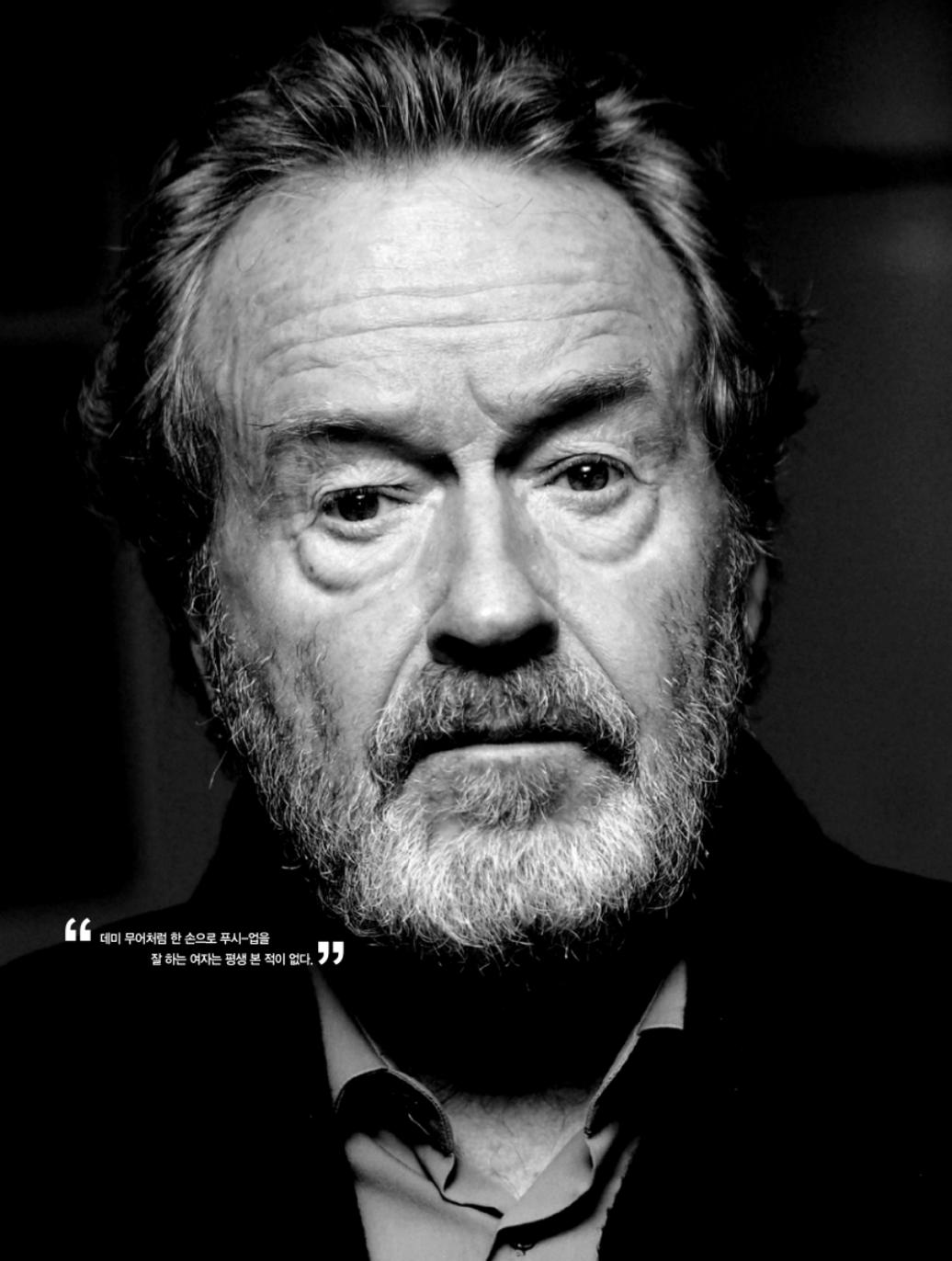
무엇이든 미루지 말고 이야기해라. 실패는 당신에게 늘 무언가를 가르쳐준다. 실패를 실패로 보는 것은 부정적인 사람이나 하는 일이다. 그러나 당신이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면 이전 절대 시간을 낭비한 게 아니다. 오히려 발전하는 것이다.

## 주먹싸움을 할 때 기뻐해야 할 것인지는 무엇이라 생각하나?

선반 좋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 망설이면 안 된다. 그가 일어나면 다시 때려 놓아라

## 당신이 가졌던 최악의 나쁜 습관은? 나쁜 습관은 다 고쳤다. 정말 바에주긴 하지만, 애연가였는데 20년 전에 끊었다.

테니스도 좋아했는데 내 무릎이 나가버려서 어쩔 못했다. 지금은 보드게임과 레드와인이다. 딱 이거 두 개.



“ 데미 무어처럼 한 손으로 푸시-업을  
잘 하는 여자는 평생 본 적이 없다. ”

# Style

## 2010 Sunglasses

BY 고정희 PHOTOGRAPHS BY ARC-STUDIO HAIR 이도우 MAKE-UP 고훈은 MODEL 김형성, 조수정 ASSISTANTS 색만보 조정민 HELP 윤승현 해니제 (holics) 임규정

베이지컬러 수트 500,000원대

셔츠 100,000원대 모두 AYA MORE

보타이 58,000원 eco

발매 & 실버 힐 500,000원대 Namu by namuhana

COOPERATIONS CUTLER AND GROSS(www.holics.co.kr) AYA MORE, eco(02-3443-1703) Namu by namuhana(02-511-9159)

선글라스는 시선을 위로 잡아줌어 민망한 몸매의 때를 벗기고, 맛있는 이목구비에 광을 낸다. 2010년도 역시 빅 프레임이 강세이나, 얼굴에 맞지 않을 정도로 큰 것은 촌스럽다. 빈티지 디자인에 화려한 색상이 포인트로 들어간 제품이 인기. 영국 하우스 브랜드 컷러 앤 그로스(CUTLER AND GROSS)는 패션을 목적으로 만든 디자인으로 많은 패션니스타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요란함 브랜드 로고 따위는 솔기 디자인에 충실함을 보인다. 허세를 부리지 않지만 고급스러움이 묻어나오는 것은 어필 수 없다. 580,000원 CUTLER AND GROSS

# MAXIM JUNE 2010

## 정기 구독 신청 방법

MAXIM Korea 웹사이트(www.maximkorea.net)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웹사이트 하단에 있는 정기 구독 신청란을 클릭하거나 MAXIM Korea로 전화주세요. Tel 02-323-1182

### 6개월 정기 구독

- (정가 32,400원) **27,540원 (15% 할인)** + 1000떡 적립   
+ 타이거 맥주 12캔 (3만원)

### 12개월 정기 구독

- (정가 64,800원) **51,840원 (20% 할인)** + 2000떡 적립   
타이거 맥주 24캔 (6만원) or 이승철 25주년 기념 콘서트 A석 티켓 1장 (7만 7천원) 중 택1

### 24개월 정기 구독

- (정가 129,600원) **97,200원 (25% 할인)** + 4000떡 적립   
타이거 맥주 48캔 (12만 원) or 이승철 25주년 기념 콘서트 A석 티켓 2장 (15만 4천원)  
or 타거스 백팩 (6만 9천원/9만 9천원) 중 택1

날권(정가: 5,400원)을  
maximkorea.net 에서  
온라인 주문시  
10% 할인!

\*사은품은 조기 마감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타이거 맥주  
아시아를 대표하는 세계 최대의  
숙주 소스인 맥주 타이거 맥주



타거스 Revolution 백팩  
모던함과 스포티한 디자인을 함께 갖춘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영풍 백팩, 타거스 Revolution 백팩



타거스 Feren 백팩  
4인치 노트북 수납가능, 보온생성 포켓  
내장의 아웃도어 다기능 백팩, 타거스 Feren 백팩



이승철 콘서트  
대위 25주년을 맞은 가수 이승철 콘서트  
일시 2010년 6월 5일/ 장소 잠실올림픽주경기장



## MAXIM 독자 모델 응모 GIRL NEXT DOOR

내가 더 예쁘다. 화장법, 조명법 받으매 내가 낫다!

MAXIM 화보를 보며 이런 생각을 하는 여성은 당장 이리 오십시오!

하루쯤은 MAXIM 표지 모델처럼 판타스틱한 화보 촬영장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여성도 이리 오십시오!  
MAXIM이 'GIRL NEXT DOOR', 일명 '옆집 여자' 코너에 등장할 여성 독자를 찾아서 화보 촬영의 기회를 선사합니다.  
꼭 MAXIM 독자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수컷 독자들께서는 주변에 우수한 처자가 서식하고 있거든 꼭 설득해서 신청  
하게 만드십시오! 혼자만 보면서 즐기워하지 말고 모두 함께 즐기워하자는 얘깁니다. GIRL NEXT DOOR의 주인공으  
로 선정된 분께는 쓸쓸한 선물과 함께 소정의 모델료를 지급합니다. 자, MAXIM의 특급 스튜디오와 전문 헤어/메이크  
업 디자이너, MAXIM 패션 에디터 그리고 국내 최고 수준의 포토그래퍼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model@maximkorea.net으로 사진, 연락처와 함께 신청 메일을 보내주세요.  
단, 눈동자만 있고 코 입이 없는 뽀샵질, 신원 확인 불가한 사진은 사랑받지-